

E 02-2011-02 | 2011.7 |

제13권 제2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중국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노유경	yknoh@krei.re.kr	02-3299-4280

목 차

1 포커스

- ▶ 북한의 집중호우와 피해 3
- ▶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분야별 분석 11

2 2011년 특별기획: 북한법 시리즈

- ▶ 북한 농업법의 이해를 위한 북한법을 보는 새로운 관점 45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73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101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19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19
 - 2. 대북지원 동향 132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133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38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38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45
 - 3. 북중 교역 동향 152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농업생산의 기본토대로서의 토지의 지위와 경제기술적 특성 161
- ▶ 유기농업의 발전목표설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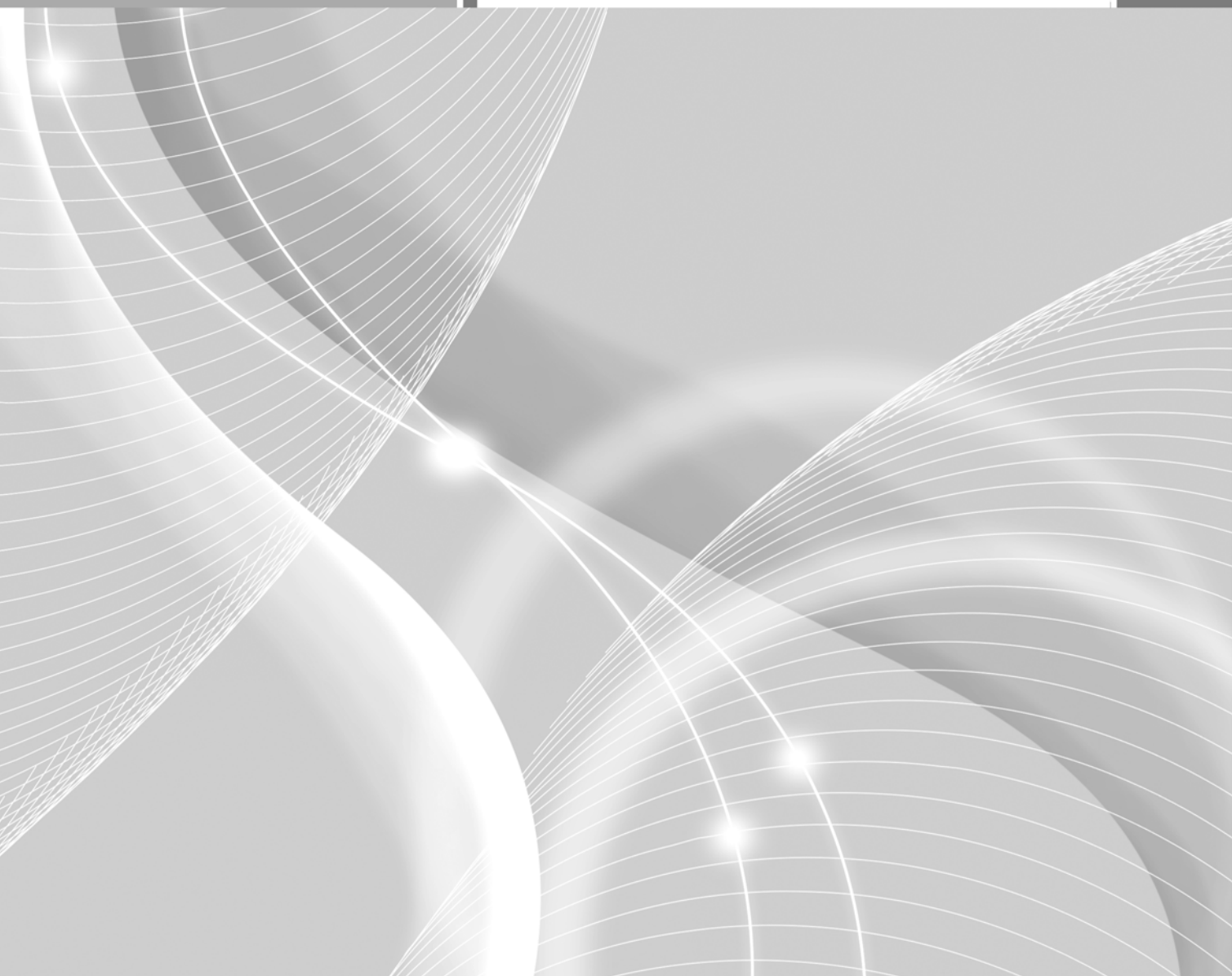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북한의 집중호우와 피해¹⁾

정리: 김영훈²⁾

1. 홍수피해를 판단하는 변수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홍수를 검토하여 농업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4가지 변수를 분석한 바 있다. 가장 영향이 큰 핵심 변수는 홍수를 초래하는 ‘강우 집중도’와 ‘집중호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 시기’와 ‘기반시설 피해 정도’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변수로 드러났다.

〈 집중호우 〉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호우의 집중도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큰 홍수피해의 호우집중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6년 : 4일간 430-750mm(하루 평균 108-188mm)
- 2006년 : 7일간 300-500mm(하루 평균 43-71mm)
- 2007년 8월 : 7일간 500-700mm(하루 평균 71-108mm)
- 2007년 9월 : 2일간 300-400mm(하루 평균 150-200mm)

이와 같은 과거 홍수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를 단계별로 구분했는데, 그것을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주요 홍수피해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하루 평균 100-150mm의 호우가 4일 이상이면 파괴적(devastating) 영향
- 하루 평균 70-100mm의 호우가 4일 이상이면 심각한(severe) 영향
- 하루 평균 50-75mm의 호우가 4일 이상이면 부분적(moderate) 영향
- 하루 평균 50-75mm의 호우가 4일 미만이면 미약한(low or no) 영향

1) 이 자료는 USCIA의 보고서(North Korea: Assessing the Impact of Flooding on Agricultural Output, 2010.12.15), 대한민국 기상청의 자료(보도자료 2010.7.28),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호우의 지역분포 〉

호우가 발생한 지역의 분포도 농업생산에 대한 호우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농업생산에 대한 홍수의 영향은 그것이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의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주요 식량작물인 벼는 전체 58만 ha에 달하는 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논은 주로 평안남북도의 서부지역, 황해도와 경기도 지역,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 분포해 있다.

논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이들 도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880~1,300mm에 달한다. 이중 봄과 여름철에는 85%, 6월과 9월 사이에는 60%가 집중되고 있다. 태풍은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 기간은 벼가 성숙하는 계절이다. 이를 종합하면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주요 벼 재배지역의 강수량은 500~800mm 정도라 말할 수 있다.

옥수수, 맥류, 채소 등 기타 작물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다.

- 옥수수 재배면적은 50만 ha에 달하며 8개 도 전체에 분포해 있다.
- 량강도는 감자의 최대 재배지역이다.
- 황해남도는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다. 다른 작목과 축산에서도 황해남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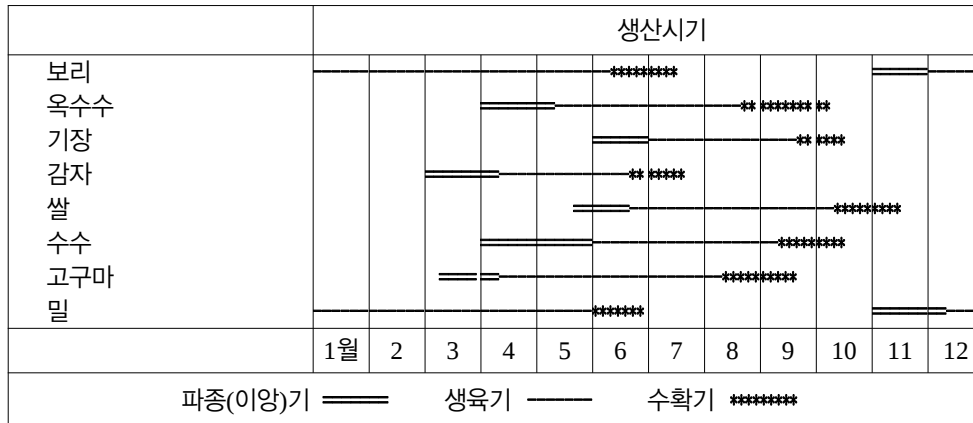
〈 작물 생육기간 〉

작물의 주요 생육기간과 홍수의 발생 시기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벼는 특히 홍수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작물의 중요한 생육기와 호우 발생시기가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벼 작황에 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4월초 파종시기(못자리)
- 5월 말에서 6월 초 모내기 시기
- 9월 말에서 10월 초 알곡 성숙 시기

옥수수는 4월에 파종하고 9월에 수확한다. 이외에 맥류의 생육기간은 우기에서 벗어나 있다.

그림 1. 북한의 주요 작물 생산 시기



자료: FAO/GIEW, FAO/WFP CFSAM, 2008

〈 농업기반시설의 피해 〉

기반시설이 홍수피해를 입으면 홍수가 작물에 끼친 직접적인 피해가 가중된다. 호우가 길어지게 되면 작물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전선, 창고, 시설 및 장비, 주택 등에 피해를 입혀 농업생산성을 중장기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2. 과거 홍수피해

홍수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해는 1996년과 2007년이다. 앞에서 언급한 홍수피해의 네 가지 요소가 이 두 해의 홍수에서 나타났다. 주요 곡창지대에서, 주요 작물의, 중요한 생육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중요한 기반시설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6년에는 7월 24일에서 28일 기간 동안 폭우가 내려 심각한 홍수피해를 입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9개 도의 117개 시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에는 주야 배배지역도 포함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약 1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4일 동안 430~750mm의 비가 내린 지역도 있었는데 이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인해 28만 8천 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관개시설, 제방, 수백개소의 보, 댐, 교량이 피해를 입었고, 수십 km의 전선, 수만 채의 가옥과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주요 산업 중심지인 평양/개성, 평양/해주를 잇는 철도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07년에는 8월 중순의 호우와 9월의 태풍 등 두 번의 폭우 피해를 입었다. 이 두 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은 한해 총 강수량의 70~8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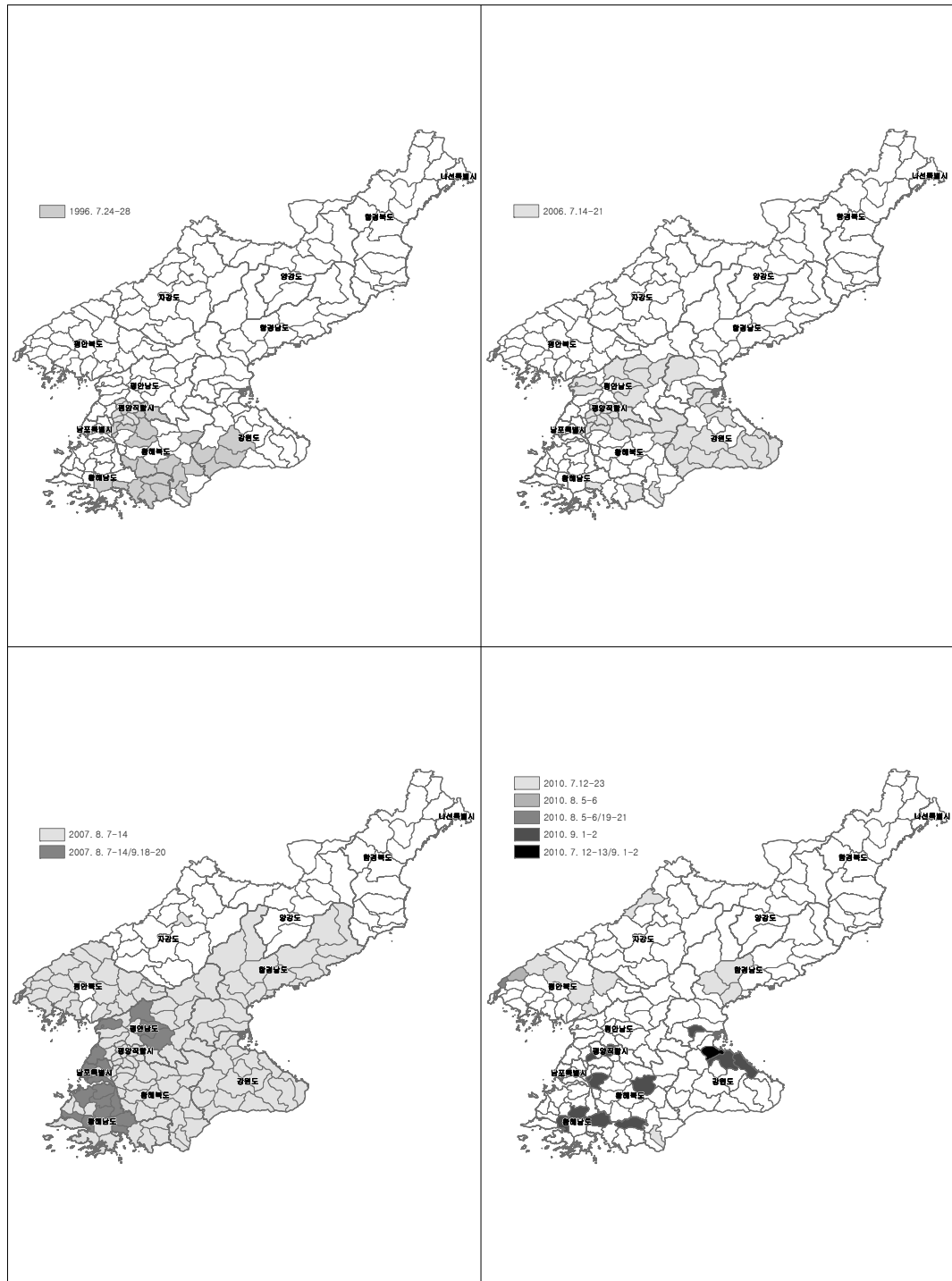
-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벼 생산지역에 위치한 96개 군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 33개 군은 760~84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전체 재배면적의 10%(약 26만8천 ha), 전체 벼 재배면적의 20%,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의 15%가 완전히 침수되었다고 발표했다.
- 2007년에 불어닥친 태풍 '위파'로 인해 해주의 신광교가 붕괴되고 다음과 같은 여러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다. : 통천발전소 1호기(강원 통천군), 부천발전소 1호기(함남 신흥군), 회천수력발전소(함남 회천군), 부천발전소 6호기 등. 연산발전소(황남 연산군)와 금진강 구창수력발전소(함남 청평군)의 건설은 지연되었으며, 수집개소의 변전시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고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요한 전선이 피해를 입었다.
-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수만 채의 주택과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철도, 도로, 수많은 교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폭우가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발생했는데 33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의 피해는 1996년과 2007년 보다 크지 않았다.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은 300~500mm의 비가 온 지역이었으며, 홍수 피해는 황해남북도의 벼와 옥수수 재배지역을 비껴 지나갔다. 한국과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2만 3천 내지 9만 2천 ha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반시설의 피해는 1996년과 2007년에 비해 가벼웠다. 따라서 작황의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홍수는 1996년과 2007년과 비교한다면 그 세력이 약해 전체 강수량과 기반 시설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 역시 작게 나타났다.

- 7월에 11일 동안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의 23개 시도에 총 170~306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하루 평균 17~30mm에 해당된다.
- 9월초 이들 동안 영향을 미친 태풍 '곤파스'는 강한 바람과 함께 총 150mm의 비를 뿌렸다. 이는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 중앙방송에 의하면 약 3만 ha에 달하는 면적의 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도별 집중호우 발생지역



3. 올해의 홍수피해(2011년 7월말 현재)

올해 역시 6월 말 태풍 ‘메아리’에 이어 계속된 장마와 7월 말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북한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 세계기상기구(WMO)에 제공한 관측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성에 853mm, 해주에 829mm, 신계에 607mm, 평강에 598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주에는 26일 하루에만 191mm의 폭우가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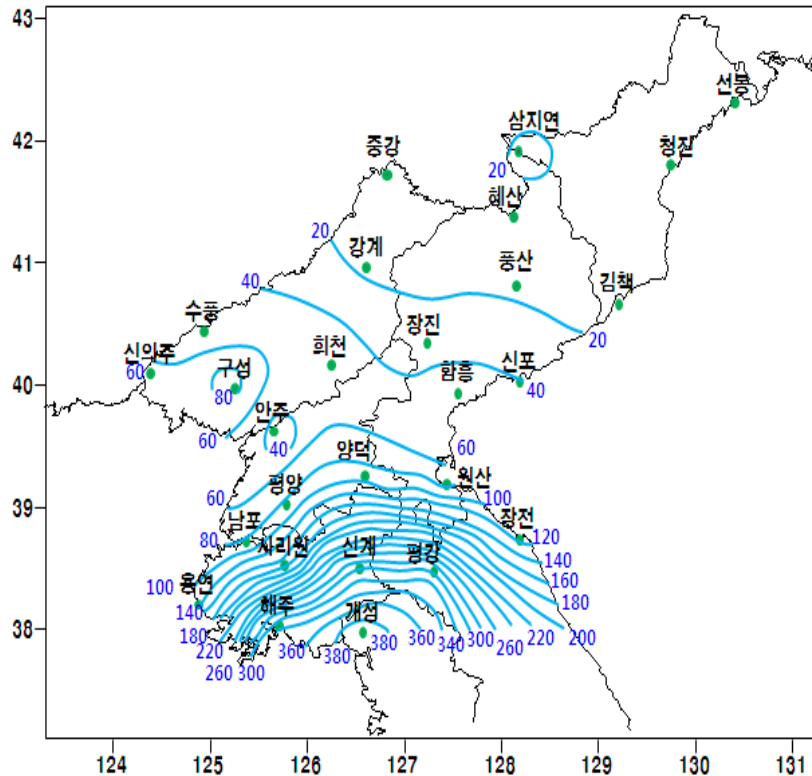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은 7월 16일 오후 “조선 각지에서 12~15일 내린 무더기비로 피해가 났다”면서 “1만 5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 중 1만 정보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다.

- 이 기간의 집중호우는 12개 시군 지역에서 관측되었다(조선중앙방송).
- 황해남도 청단군에서는 3천여 정보의 논밭이 침수·매몰됐고, 해주시와 태탄, 웅진, 벽성, 재령, 신천군도 피해를 입었다. 황해북도에서는 여러 개의 제방이 터지면서 5,900여 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 7월 26일 국제적십자사의 ‘프랜시스 마커스’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내린 폭우로 황해북도에서 900채, 황해남도에서 2,460채의 가옥이 파손됐다”고 전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피해가 북한지역에서도 관측되었다. 기상청에 의하면 북한 중부지방에 295~394mm가 내렸으며 함경남도 평강에서도 321mm가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다.

- 이 기간(2일) 동안 총 2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은 황해도의 개성, 해주, 신계, 서흥, 함경남도의 평강 등 20여개 시군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기상청).
- 이 기간 동안 총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은 사리원, 곡산, 세포 등 25개 시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타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는 100mm 미만의 비가 내려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북한의 누적강수량 (2011. 7. 26~28)



자료: 대한민국 기상청, 2011. 7. 28

2011년 7월에는 현재까지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의 2~3배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이 많고 주로 곡창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기록된 강우피해는 이미 2010년의 피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는 작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996년 7월과 2007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비해 기간이 짧고 강수량은 적어, 지금까지 피해규모는 1996년과 2007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³⁾

3)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의 북한 식량작물 작황은 401만 톤으로 2004~2006년 3개년 평균 작황 444만 톤에 비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7월 강수량 현황 비교

요 소	황해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개성	해주	신계	용연	평강	평양	양덕
강수량(mm)	793.4	723.0	547.2	383.1	544.4	366.3	364.0
평년값(mm)	262.8	236.0	254.8	179.7	317.7	199.9	207.2
평 비(%)	301.9	306.4	214.8	213.2	171.4	183.2	175.7

자료: 대한민국 기상청, 2011. 7. 28

표 2. 북한의 주요 홍수피해 비교 (1996~2011.7)

연도	강수량 (mm)	강우기간	강우집중도 (mm/일)	침수면적 (ha)	전선유실 (km)	도로, 철로 교량 피해	주택, 시설 피해	영향
1996	430-750	7월 24-28	108-188	288,000	50	도로: 7,600km 교량: 539개소	주택: 8,260 시설: 3,825	심각
2006	300-500	7월 14-21	43-71	23,771- 99,152	-	도로: 168km 교량: 261개소	주택: 28,747 시설: 1,180	보통
2007	300-400	9월 18-20	150-200	32,278	40	도로: 600km 교량: 23개소	주택: 40,463 시설: 8,000	심각
	500-760	8월 7-14	71-108	268,000				
2010	50-150	9월 1-2	25-75	30,550	-	도로: 1km 교량: 4개소	주택: 19,307 시설: 580	보통
	170-300	7월 12-23	17-30					미약
2011 7월말 현재	275-363	7월 12-15	92-121	77,000	n.a..	n.a..	주택: 21,700	보통
	295-394	7월 26-28	118-158					심각

자료 : 1996-2010년(USCIA), 2011년(대한민국기상청, 연합뉴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분야별 분석¹⁾

정리: 김영훈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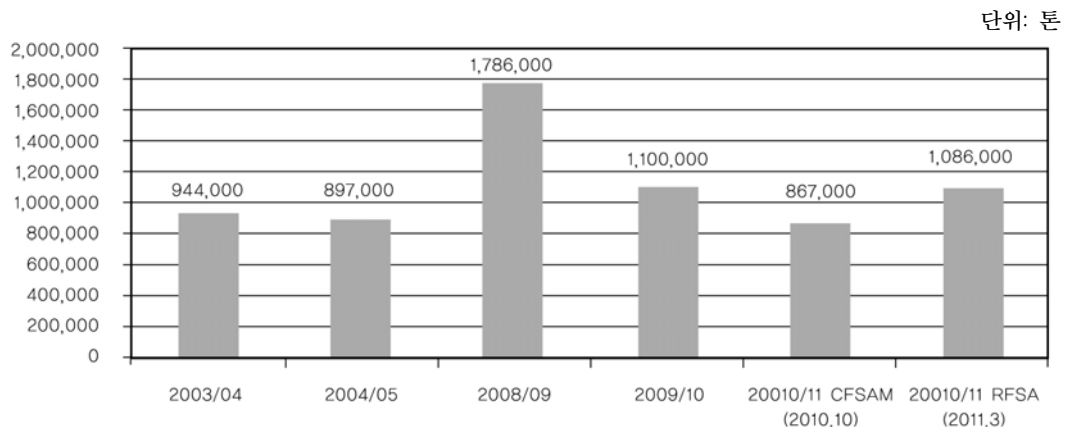
1. 식량안보

1.1. 개요

북한 주민들은 매해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식량안보조사(Crop and Food Security Missions: CFSAM)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의 식량 부족은 평균 100만 톤에 이르렀으며, 식량 부족량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00년, 2001년인데 당시 수입요구량은 연간 200만 톤에 달했다. 지난 4년간 식량 부족량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만 톤 수준이다.

북한 정부의 긴급식량지원 요청에 따라 국제기구(WFP, FAO, UNICEF)들은 긴급 식량안보 평가조사(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RFSA)를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실시했다. 이 평가의 목표는 겨울 및 봄작물의 2011년 생산 예측, 2010/11년 곡물수입능력과 필요요건 평가의 갱신, 식량지원 요구량 평가 등이다.

그림 1. 북한의 연간 곡물 수입 요구량



1) 이 자료는 UN이 발간한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PRK (2011)」의 "Thematic Analysis of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Section B)" 부분을 번역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1 긴급식량안보 평가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한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 소요량은 5,338,000톤
- 국내생산에 따른 공급량은 4,252,000톤
- 전체적인 식량 공급 부족분은 1,086,000톤
- 정부가 예상하는 상업적 수입량은 200,000톤
- 수입을 충당되지 않는 순 부족분은 886,000톤

긴급식량안보평가 결과보고서는 2011년 기간 297,000톤의 곡물과 137,000톤의 혼합식품을 610만 명의 취약인구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규모의 식량부족으로 인해,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PDS)는 지난 몇 년간 북한 인구의 상당수에게 최소한의 식량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 평균적으로 공공 배급은 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인구의 칼로리 필요량의 절반 정도 밖에 충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다수는 영양결핍에 시달렸으며 저소득 비농업 가구는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 북한에서의 식량자원과 공급시스템 〉

북한 인구의 대다수는 공공배급제를 통해 식품을 공급받는다. 식량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협동농장에서 조달되며, 이는 높은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가구에게 배분된다. 양정사업소(State Food Procurement Agency)는 매달 배급량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배급제의 식량공급분이 다음 수확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수확기는 10월과 11월).

북한법에 의하면 곡물은 정해진 쿼터에 따라 국가가 주민에게 할당하는데, 크게 3개 그룹이 있다.

- 1) 군과 엘리트 계층은 하루 평균 일인당 700g 가량을 제공받는다(전체 인구의 3%).
- 2) 협동농장 구성원은 11월과 12월의 주요 수확기가 끝난 이후 남은 기간 동안 이용할 식량을 제공받는다(하루 평균 일인당 600g).
- 3) 공공배급제에 의존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67%이다.

식량배급소(Public Distribution Centres)는 공공배급제의 창구 역할을 한다. 공공배급제에 의존하는 가구를 위한 곡물은 두 달에 한 번씩 식량배급소를 통해 배급된다. 가구는 자신에게 할당된 곡물을 수령할 특정 식량배급소를 지정받는다. 곡물과 임산수유부 또는 기타 특정 그룹을 위한 혼합식품은 지정된 식량배급소를 통해 배분된다. WFP 수혜자는 배급이 등록되는 WFP 수혜자 배급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 카드는 정부가 배급하는

격월 곡물 배분을 위한 일반적인 식량배급소 카드와는 다르다.

협동농장은 생산물을 정부에 매도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한다. 협동농장은 해당 농장의 생산 수준과는 상관없이 국가 배급가격으로 자신들이 할당받은 식량 배급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농장은 또한 자신의 수익의 나머지를 양정사업소에 판매된 잉여 생산의 기능으로 계산된 현금지불로서 수령한다. 협동농장의 소득수준은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공공배급제 의존 인구의 소득 수준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다. 그러나 대리변수를 사용한 계산에 따르면 공공배급제에 의존하는 가구는 매달 평균 3,000~5,000원을 받으며, 이중 1/3은 매월 공공배급제 배급량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가구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식량은 쌀, 보리, 밀, 대두, 감자로 구성된다. 쌀은 가장 선호되는 주식 중 하나이며 공공배급식량의 30%를 차지한다. 소금, 된장, 간장, 기름 및 채소와 같은 곡물 이외의 식품과 비(非)식품재는 국영상점에서 보조가격으로 구매한다. 기타 상품들은 농민이 운영하는 시장(매 군 별로 열흘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열림) 또는 도시의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주요 도시에서는 매일 열림). 시장에서의 가격은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이 가능하여 현금 또는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가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곡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식량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식량 가용성과 적응 메카니즘 〉

원칙적으로 공공배급제는 국가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에게 식량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가구가 수령하는 곡물의 종류와 양은 지역의 조달 가능성과 주요 곡물의 재배에 따라 상이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북한의 식량공급은 국내 식량생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 생산 측면에서 만성적 식량 부족국으로 남아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연간 일인당 식량 배급 목표를 평균 213kg로 계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루 일인당 573g의 곡물 배급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2009/10년, 국가적 곡물 부족으로 인해 식량 배급분이 줄어들어 일인당 136kg로 하락하였으며, 그 중에서 혼합 곡물 비율은 하루 일인당 375g이 제공된다. 이 정도 양의 곡물로는 1,290kcal만을 얻을 수 있다(필요 열량의 52%).
- 2011년 5월, 공공배급제 의존 가구에 배분되는 양은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일인당 190g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를 칼로리로 환산하면 650kcal에 불과하다.

곡물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공급/배분 감소 추세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5월 배급분의 감소는 최근 몇 년간의 계절적 변동추이와 비교했을 때 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긴급식량안보평가(RFSA) 기간 동안 나타난 하루 식사량 또는 식사횟수 감소, 산나물과 채소의 소비 증가는 식량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현상이다. 공공배급제 의존 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는 협동농장의 친척과 친구들이다. 도시가구의 60%는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공배급제 의존 가구의 상당수는 텃밭에서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거나 소가축을 키우고, 재배한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부족한 배급량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게나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보 부족으로 북한 내 식량부족의 정도를 정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10 식량안보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담고 있다.

- 전체 국내 곡물 생산은 450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 전체 인구의 식량 필요량, 수확후 손실, 사료와 종자 필요량을 감안하였을 때, 2010/11년 전체 곡물 부족분은 100여만 톤이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곡물 부족량은 약 100만 톤 수준이었으나 최악의 흉년이 든 2000년, 2001년에 200만 톤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식량 제공량과 필요량의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부족량은 여전히 10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주민들은 필요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의 곡물 배급을 받게 될 것이며, 제공량과 필요량의 격차가 상업적 수입이나 원조를 통해 메워지지 않는 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 주민의 영양 상태 〉

식량 부족은 높은 수준의 영양부족으로 귀결된다. 공공배급제(PDS)와 협동농장의 식량 소비를 검토하면, 북한 주민의 섭취 영양성분은 곡물 이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은 거의 없고 주로 야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평가(2008, 2009, 2011)에 따르면 일상적인 식단에 단백질, 지방,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배급제(PDS) 인구의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아와 영양부족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처 수단이 없는 저소득층 인구 집단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다군집조사(Multi Cluster Survey: MICS)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영양실조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32%는 성장 장애, 18%는 저체중, 임산부 및 수유부의 28%는 영양 실조를 앓고 있다.

영양부족은 산모와 아동의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북한의 공중 보건 문제이기도 하다. 영양부족은 특히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데 성장 초기에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 신장이 최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최적의 신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IQ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의 위험이 높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영양 부족은 산모 사망의 큰 요인이 되며 저체중 아기를 출산함으로써 영양 실조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체중 아기는 출생 후 1주 내에 전염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으며 만성 질환 및 면역, 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북한의 영양부족 문제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결핍이 공공배급제(PDS)에 의존하는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 성인의 대다수는 현대 기술이 가져다 주는 휴식의 혜택 없이 노동집약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아동과 임산수유부의 영양 상태는 특정 대상을 집중 지원하는 WFP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보호되고 있지만, 공공배급제(PDS)에 의존하고 있는 성인들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과 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통적 영양 조사는 식량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상황을 조명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불안에 대해 충분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기후지리학적 특징으로 인해 잦은 홍수와 혹독한 겨울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식량 안보의 취약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북한의 안전망과 비상계획 등은 갑작스런 재해 발생에 대처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정상적인 식량 공급에 부분적인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사회 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는 다양한 사회적 보호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 건강 및 영양의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1.2. 참여기관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구(UNICEF), 식량농업기구(FAO)는 유엔 내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와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주요 기구들이다.³⁾

3) 이외에 농업생산성 증대와 식량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EUPS1

1995년 이후 WFP는 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 왔다. WFP는 곡물이나 쌀과 같은 곡식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영양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곡식을 제조하여 영양이 강화된 혼합 식량을 기존 배급 식량과 함께 제공한다.

가. WFP가 북한에 제공하는 총 식량 원조는 2010년 5만 5,218톤, 2009년 6만 5,363톤에 달한다. 이 밖에도 2010년에는 다른 파트너 기관들이 462톤의 식량을 제공했다.

나. 131개 군에 대한 식량 분배에 관여하는 WFP의 긴급지원(EMOP)이 2008년 9월에 시작되었다.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60개 군 지역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2010년 6월까지 190만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

다. 2010년 7월, WFP는 2개년 구호복구사업(PRRO)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을 시작하여 7개 도 65개 군에 식량 지원을 했다.

라. 최근의 긴급식량상황조사(RFSA) 결과로 WFP는 2011년 4월에 시작된 12개월에 걸친 EMOP ‘취약 그룹에 대한 긴급 식량 원조’를 통해 107개 군 350만 명의 취약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식량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마. WFP는 다음의 활동을 통해 식량 원조를 하고 있다.

- 현지 식량 생산 : WFP와 북한 정부간에 영양강화 혼합식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WFP는 옥수수/우유 혼합식품(CMB), 옥수수/콩/우유 혼합식품(CSM), 쌀/우유 혼합식품(RMB)과 같은 영양 혼합식품과 영양 강화 옥수수와 밀가루로 만든 비스킷 생산을 위해 13개 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WFP는 식품 성분 재료, 미량 영양소, 쿠키 믹스, 기계 부품, 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북한 정부는 노동, 전기, 건물, 운송 인프라, 유지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WFP가 공급하는 제품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현지 공장의 비스킷, 쌀/우유 혼합식품, 옥수수/우유 혼합식품 생산 비용은 해외 시장보다 훨씬 낮다. 결과적으로 1kg의 혼합식품을 생산하여 최종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은 0.8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WFP는 영양강화식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였으며 지역 식품 업계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정부 및 업계의 참여를 강화시켰다.
- 여성과 아동에게 영양 지원 : WFP는 모든 임산부와 수유부, 유아원, 아동 센터

(Premiere-Urgence), EUPS2(Save the Children UK), EUPS3(Concern Worldwide), EUPS4(Welthungerlife), EUPS5(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등이 있다.

및 기숙학교의 고아들에게 식량 배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북한의 보건시스템은 도 단위의 대규모 소아과 병원과 군 단위 병원에 있는 소아과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소아과 병원과 군 단위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있는 생후 6개월 아기부터 16세 아동 입원 환자들에게 곡식과 혼합식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음식은 병원에서 준비할 것이다. 소아과 병원 환자의 간병인도 식량 배급을 받게 된다.

- 재학 아동 : WFP는 현지 생산된 영양강화식품, 곡물, 식물성 기름을 탁아소(생후 6개월~4세), 유치원(5~6세) 아동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예비학교에는 적절한 조리 시설이 없다. WFP는 매 등교일 마다 대상 군 소재 모든 학교 아동에게(7~10세) 영양 강화 비스킷을 제공할 것이다.
- 동북지역 도의 기타 취약 그룹 : 동북지역 도에서 식량 불안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WFP는 63개 군에서 1)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과 2) 7~10세 아동에게 보조 식량 배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 비상/구호 활동 : 북한의 자연 재해 (홍수, 가뭄, 혹독한 겨울/추위) 취약성을 감안하여, EMOP는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120일 간 최대 37만 5천 명의 재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비상 계획 프로세스의 큰 틀 내에서 적절한 활동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바. UNICEF는 성장 지체를 막기 위해 향상된 아동 케어시스템을 통해 탁아소, 육아원, 가구 단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UNICEF는 또한 영유아, 임신수유부를 포함한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미량영양소 보조 및 빈혈 관리를 지원할 것이다. FAO는 생계, 농업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즉각적, 장기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

사. WHO와 UNICEF는 임신수유부의 빈혈과 (설사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향상된 모성 및 아동 헬스케어 도입에 함께 협력할 것이다.

1.3. 수혜자

영양강화식품은 소아과 병원/병동의 임산부 및 수유부, 아동과 엄마, 고아원(육아소, 아동 센터, 기숙 학교) 아동, 아동 시설(탁아소, 유치원, 예비학교) 아동들에게 제공된다. 보조 곡식 배급은 동북지역 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예비학교 아동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65개의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PRRO에 비해 EMOP는 107개 군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주요 취약 그룹은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

남도, 남포 등 8개 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중 WFP는 동북지역에 위치한 도(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식량부족이 가장 심각한 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1.4. 재정지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WFP가 과거에 진행하던 긴급지원과 (지금은 중단된) PRRO는 물품의 심각한 공급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시작된 EMOP는 약 8.6%만을 재정지원(EMOP에 대한 새로운 기부금 없이 구 PRRO의 이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물품 공급 문제로 인해 EMOP는 4월과 5월에 제한적인 식량 비스킷을 배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영양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단경기(5~7월)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공공배급제(PDS) 배급량이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시점과 겹쳐지면서 영양실조와 (결핵 포함) 전염병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벼운 영양실조 상태의 아동은 급격하게 심각한 영양실조로 악화될 수 있으며 생존이나 완전한 발달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 아기를 출산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가장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WFP가 이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1년 EMOP 재정지원 소요 총액은 약 1억 7500만 달러이며 그 중 1,800만 달러는 지난 사업에서 이월 금액으로 충당되었다.

2011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억 4,326만 달러가 필요하다.

2. 농업과 축산

2.1. 개요

〈 농업 생산 〉

농업은 노동 인구의 약 30%가 종사하고 국민총생산(GNP)의 25%를 차지하는 북한의 주요 경제 분야이다. 지난 10년 간 농업 생산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뭄, 홍수, 우박을 동반한 폭풍, 태풍, 혹한의 겨울 등 자연 재해 또한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국제 식품가격 및 연료가격으로 인해 비료, 종자, 살충제, 비닐막 등의 농업 투입재료 수입이 어려웠다.

북한 농업생산의 90%는 약 3,000개소의 협동농장(600만 명)에서 이루어진다. 중앙 경제부처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성은 농업부문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한다. 협동

농장은 농업성이 발표한 생산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수확량의 90%는 공공배급제 운영에 사용된다. 농장은 계획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 투입량, 기계화 서비스, 노동력 등을 규정하는 연간작업계획(AWP)을 수립한다. 연간작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이행하는 책임은 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농장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는 책임은 협동농장 작업반과 작업분조에게 있다. 각 협동농장은 12~15개의 작업반(평균 100~115명)과 (곡물, 야채, 과수업, 염소 사육 등) 농업 생산의 세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개의 분조(평균 15~20명)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작업반은 반장과 농업기술자가 관리하며, 전문 기술자와 (야채 생산, 과일 생산, 가축 관리, 농장 장비 등) 구체적인 생산 작업이나 작물에 따라 조직이 되는 일반 노동자로 구성되어있다. 평균적으로 협동농장에는 1,900~2,000명이 550~750ha 규모의 농경지에서 작업을 한다.

2009년 추정치에 따르면, 협동농장의 경작지 규모는 약 143만 8천 ha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내 가용 총 경작지보다 현저하게 적은 규모이다. 북한의 경작가능한 농경지 총 규모는 185만 ha(국토의 18~20%)이다. 그러므로 농업 생산을 증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농장의 경작가능 부지를 더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모작을 통해 대두와 곡물과 같은 보완 작물을 증대하려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동농장의 농지 사용 패턴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이 작물 다양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였음에도 기술 부족, 농업 장비 부족, 기존 농장 관리 기구 조정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들이 따르기에는 어려웠다.

지난 십 년간 정부는 4개의 전략적 작물을 지정하여 육성했다. 평균적으로 쌀, 옥수수, 기타 곡물⁴⁾, 감자 등의 주식은 각각 협동농장의 수확량의 43%, 39%, 6%, 11%를 차지한다.

옥수수

옥수수는 북한 주민의 칼로리와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북한에서 수확된 옥수수는 제분 과정을 거쳐 면, 케이크, 빵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다. 제분의 일부 부산물은 희소한 양질의 식용유로 사용될 수 있다. 옥수수는 특히 역축을 위한 겨울 사료로써 매우 중요하다. 옥수수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옥수수 수확량 감소는 큰 걱정거리이다. 2007년 한 해에만 (총 경작지의 20%인) 49만 5천 ha에서 옥수수 파종이 이루어졌다. 최적의 상황에서 옥수수 평균 수확량은 ha 당 6.5톤이다.

4) 곡물 위주의 생산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대두 경작이 가시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및 유지 작물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서 일상 식단에 에너지 밀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소화율이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비옥하지 않은 토양 상태로 인해 현재 ha 당 4.5~5톤으로 줄어들었고 병충해 피해로 인해 ha 당 3.9톤까지 줄어들었다.

감자

식량 자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정부는 1999년에 감자를 국가 우선순위로 선포하고 몇 년 이내에 경작지를 5만 ha에서 20만 ha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북한의 농업 생산이 중앙 계획을 따르고 대규모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감자 경작지는 2006년에 이미 19만 ha로 확대되었고 일인당 소비는 16kg(1993년)에서 60kg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 양이 인간 소비 에너지의 6%, 단백질의 9% 밖에 되지 않지만 식품 안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하지만 급격한 집중화는 또한 토양 황폐화 및 침식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비료, 살충제 부족과 양질의 씨감자 부족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감자 수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배추

배추는 전통적인 식단과 지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인당 연간 배추 소비량은 120~150kg이고 일별 소비량은 0.5kg에 달한다. 배추는 김치로 만들어져 겨울 내내 주요 식품원으로 이용된다. 특히 겨울에 배추는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이 된다. 현재 배추는 3만 ha 이상의 경작지에서 재배된다.

야채와 과일

야채 경작과 과일 재배는 기후 조건(늦은 겨울, 8월 늦은 장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일 재배의 전반적 다양화(감, 자두, 살구, 딸기)는 특정 지역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수확량이 높지는 않았다. 식물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집약적인 원예가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으로 여겨진다. 과일의 현지 공급을 위한 소규모 재래식 플랜테이션의 개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 6년 간 온실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국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훗날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우수한 과일나무 프로그램 등은 국제 재정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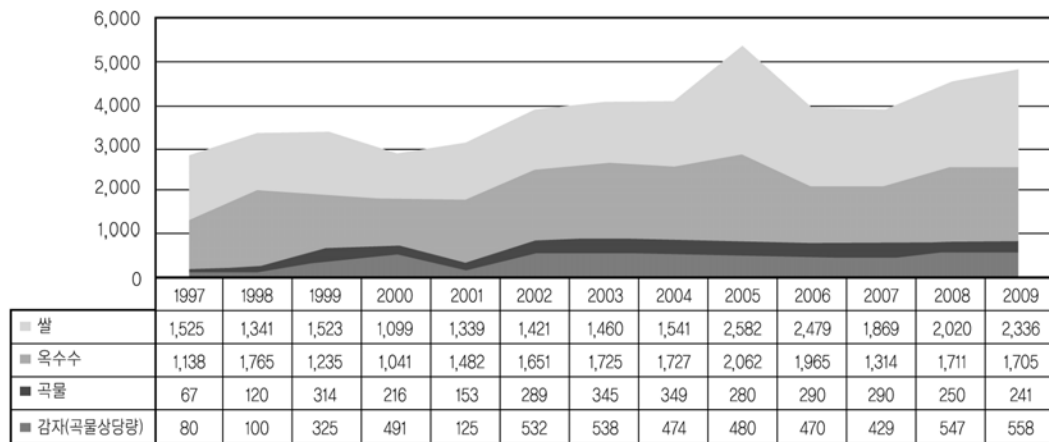
2008년에 식량안보평가조사(CFSAM)는 농업 생산 향상이 국가의 필요량을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임을 발견하고 2009/10년에 약 83만 6,000톤의 식량 부족이 발생할 것을 전망했다. WFP/FAO와 UNICEF가 2011년 2월과 3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식량안보 평가는 2010년의 호우가 야채, 쌀, 옥수수 생산에 미친 영향과 흑한의 겨울이 겨울 밀과 종자 감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CFSAM의 2011년 수확 전망치 보다 2011년 봄의 수확량이 줄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언급된 조건을 감안할 때 2010/11년 곡물 수입 요구량은 2010년 CFSAM 결과에 비해 21만 9천 톤 증가한 108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예상 수입량을 감안할 때 식량 부족은 국가 식량 소비 요구량의 21%에 해당하는 88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 예측치는 CFSAM의 2010년 전망치보다 34만 4천 톤 증가한 수치이다.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종자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식물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 지금까지 UNDP, FAO, Swiss cooperation(스위스 협력청), EuropeAid(유럽원조협력청) 및 기타 양자 간 프로젝트 등은 보전 농업, 토양 비옥도, 수변 관리, 종자 증식, 협동농장 식물 보호 등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림 2.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북한 농업성

북한 농업 생산이 직면한 주요 문제

1950년부터 북한 정부는 1980년대 후반까지 수확량 증대를 가능하게 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에는 수확량 증대, 농업 투입량 최대화, 밀식 재배 도입, 밀식 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행 수립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농업 부문은 1990년대 초 이후로 계속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무역 차질로 인해 보조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가 농업 정책, 자연/지리적 장애, 행정 시스템 등도 농업 생산량과 생산 효율성 하락을 야기했다.

북한은 대부분의 국토가 산으로 되어 있거나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국토의 16%만 경작에 적당하다.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짧은 재배 기간, 병충해 피해, 방대한 지역의 토양 황폐화와 토양 비옥도 손실 등이 있다.

중앙 계획 경제는 열악한 경작 관행으로 이어졌다.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 토질이 나빠지면서 수확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살충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산 및 수입 농업 투입 재료의 할당도 불확실하고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유기 비료와 살충제 자가 생산, 보전 농업 기술을 위한 기계화를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양질의 종자 증식을 강화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자연 재해 등 여러 이유로 식량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지금은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고 높은 우선순위 과제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이전이 북한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향이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농업성의 관심과 지원이 시작되었다.

1) 기계화

국영 서비스 센터와 지역 농업 당국은 곡물 및 가축 생산의 현대화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트랙터 기반 기술을 위한 초기 정책은 점차 수동 도구와 같은 단순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 북한 정부의 선진 투입재료 조달 능력 부족 때문에 협동 농장은 저 투입 기술과 농장 설비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장은 또한 수입 기계를 지속적으로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적,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트랙터, 전통적인 벼 생산 농장을 위한 디젤 엔진, 수확기, 동물 사료 공장, 비료 공장 등 적절한 농장 기계와 설비의 현지 생산에 투자해왔다. 이러한 투자가 매우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성장률은 몇 년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장이 단기간에 기계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력, 축력 혹은 이에 상응하는 경운기계와 같은 농기계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료 생산 능력 부족은 황소와 같은 가축의 번식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다시 농장의 동물 견인 지원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황소 증식을 위한 더 나은 제도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제 지원은 사료 작물을 다변화된 곡물 윤작 시스템과 패턴에 통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획일화된 농기계 도입 전략 대신 축력과 기계의 적절한 조합을 확보할 수 있다.

2) 수확 및 수확 후 개입

북한에서 수확 후 손실도 있지만 질적 저하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확 후 손실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곡식이 농장에서부터 운반될 때 발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군 단위 저장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농장에 사전 등급, 사전 세척, 건조 시설 등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확물은 (품질 기준에 대한 엄격한 규정 없이) 벌크 단위로 최대한 빨리 공공배급제(PDS) 시스템과 처리 시설로 운반이 된다. 농부들은 낙후된 수송 장비에 의존하여 벧짚과 이삭을 탈곡장으로 운반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곡물이 수확이 되기도 하며 즉시 저장소로 운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노동집약 재배 방식으로 추수 기간이 늘어나고, 농장 단위에서의 사전 건조와 중간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수확물이 곰팡이와 병충해 피해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장 단계에서 (이동 탈곡기 혹은 콤바인 추수기 활용을 통한) 탈곡 향상과 곡식 사전 건조 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모작 확대의 경우, 뿌리 작물 혹은 노지 재배 야채에도 동일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3) 현 재배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지 황폐화는 발전을 저해하는 숨은 장애 요소이다. 장기적으로 토지 황폐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계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능력을 저해한다. 부엽토 소실, 산성화, 연작장애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토양의 비옥도가 저하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토지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30% 줄어들었다.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양의 유기물을 소비하게 되고 환경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역적으로 다변화된 작물의 윤작 시스템을 통해 콩류, 사료, 녹비작물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두 경작이 증가됨에 따라 토양 비옥도가 향상되기 시작했다. 토양 산성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석회와 기본 비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경운을 생략하는 기술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자본 집약적이고 가격이 비싼 기계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전 농업 전략이 더욱 전파되어서 동물 견인 파종기, 씨 뿌리는 기계, 소규모 경운기기술을 개발해 경사 농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식량 공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경사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비록 생산량이 낮지만 경사지의 생산량은 공공배급제(PDS)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가파른 경사지에는 작은 경지가 분포해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탈 전체에서 추가 식량을 생산

하기 위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산림 파괴와 토양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250만 ha에 이르는 산림파괴 및 황폐화와 경작으로 인해 산림은 불안정하게 되었다. 침식으로 인해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관개 계획과 저지대 농경지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보전 농업을 포함한 개선된 경사지 농업은 산림 복구와 장기적 복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숲의 복구, 적절한 관리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땀감을 절약하는 시스템 사용을 확대해야만 한다. 수력, 태양, 풍력 에너지 혹은 농촌 지역에서의 메탄 가스 생산 등의 대체 에너지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보전 농업과 토양 관리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으며 농업 부문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농업 당국과 연구기관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곡물 경작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 시범 지역에 적용된 혁신적 산림농업 시스템과 방법은 영구적으로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곡물 다양화, 침식 통제 방법, 경사지 안정화에 커다란 향상을 가져왔다. 임목을 사과, 복숭아, 배, 견과류 및 딸기 나무 등 과수 혹은 약용 관목으로 전환함으로써 식량과 비타민을 확보하는 동시에 물물 교환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곡물 생산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작물인 옥수수가 점차 겨울밀, 감자, 고구마, 쌀, 다양한 야채, 약용 식물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 초지와 사료 경작을 증진함으로써 축산이 활발해졌고 토끼, 염소, 돼지와 같은 농가 가축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 가축 생산과 낙농업 〉

기계화가 최소한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북한의 농업 생산은 경작, 운송, 식량 생산에 있어서 가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은 농가 소득의 주요 수입원이다. 가축은 (우유, 고기 등의) 식량을 제공해 주고 성인과 아동의 다양한 식단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가축 생산과 낙농업을 농장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다양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FAO가 2011년에 영국 수의사무국(CVO)에서 수집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가축의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2005년 ‘닉 테일러’ 보고서와 차이가 있음). 정부 정책에 따라 가금류와 돼지(500 마리 이상의 암퇘지 보유)를 키우는 공장식 농장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농가에서 키우는 염소, 양, 돼지의 정확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 1. 북한의 주요 가축 수

단위: 천 두

가축 종류	2005년	2011년
소	400	590
염소	2,000	2,700
양	100	160
돼지	2,000 (암돼지 450)	3,200
가금	-	25,500
토끼	-	19,700

2002년 이후 개별 농가에서 닭, 토끼, 염소, 양, 돼지 사육이 허용되면서 매년 2~5월 기간의 식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축산업 관련 협동농장과 작업반 소속 농민들이 부업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국영농장 직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대규모 협동농장 혹은 축산전문 농장에서는 직원들이 부업으로 토끼나 돼지 등을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가축 부업축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부산물로만 사육되고 있다. 각 군마다 다양한 종에 대한 인공 수정센터가 있다. 역축을 사육해서 협동농장으로 공급하는 소수의 특화 협동농장도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숫염소 교환 등 협동농장 간의 동물 교환도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농장은 사료를 스스로 생산한다. 일부 농장은 일년에 한 번 중앙 정부로부터 사료를 조달한다. 하지만 적절한 동물 사료 부족과 기생충, 풍토병(조류 독감, 구제역, 청이병)에 대한 가축질병 서비스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노력이 동물 생산 증대에만 국한되고 있다. 가축을 경작에 통합시킴으로써 곡물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친환경적 농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군마다 한 개 이상의 도살장이 운영된다. 보고에 따르면 매년 구정(2월) 명절을 위해 살아있는 돼지의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월 중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외국으로부터 동물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축산의 주요 문제점 〉

2007년에 북한정부는 FAO에 구제역 발생 사례를 보고했다. 이는 1960년 이후로 처음의 공식적 구제역 사례이다. 구제역 국제표준실험실(WRL)은 원인 바이러스를 ‘아시아타입 1’으로 규정했다. 2008~2009년 FAO가 관리한 기술협력사업(TCP)은 주로 진단 실험실의 역량 수립, 비상 계획 개발, 백신 조달에 집중했다.

FAO에 구제역 사례가 보고된 가장 최근의 시기는 2011년 2월이다. 북한정부는 진단 및 통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FAO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물건강 위기관리센터(CMC-AH)'는 북한 당국이 발생 사례와 대응 방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기술적 운영적 지원을 제공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보고 작성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구제역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구제역이 최초로 발견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을 시점에 구제역은 이미 널리 퍼진 상태였다. 그래서 FAO는 구제역이 최초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한동안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감염 농장 격리, 차량 소독, 감염 농장 내 사람들의 이동 제한 등 정부 통제 방식은 수 개월에 걸쳐 충분하지 않았거나 큰 효과가 없었다.

- 구제역 발생은 이미 확산되어 있음
- 차단방역(bio-security) 의식 저조
- 개인보호복 부족
- 표준 대응 방안의 작동 불가
- 가용 백신 부족

구제역의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성축은 치료받은 뒤 일반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먹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
-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현저히 낮아진다.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보통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 젖염소에 대한 효과는 출산 시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피해가 예상된다.
- 역축은 치유될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다. 일부 어린 소는 영구적인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원히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봄철 농번기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 어린 소는 성장장애를 보인다. 특히 돼지는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은 죽을 수도 있다. 송아지와 아기 돼지의 사망률은 80%로 보고되었다. 북한 당국은 그 밖에 다른 돼지 질병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 염소와 양의 출산 시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갓 태어난 동물들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 비상대응구조 및 보고 〉

북한의 수역 서비스는 다음 4 단계로 이루어진다.

- 1) 수역 및 전염병 대응부(VAE)와 중앙 VAE 사무소(중앙실험실 포함)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대응
- 2) 10개 도 차원의 중앙 VAE 사무소 대응
- 3) 약 200개 군의 VAE 사무소 대응
- 4) 각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수의사 대응

대부분의 경우 수의사의 이동 수단은 자전거이다. 따라서 수의사의 이동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협동농장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농장 담당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구제역과 같은 전염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의사는 질병 의심에 대해 농장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군 단위 수의사무소 소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북한은 1946년 설립된 가축백신연구소(DAVI)를 통해 자체적으로 백신을 공급한다. 가축백신연구소는 2차 백신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가금류 백신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30개 제품)의 동물 백신을 공급한다. 연구소 건물과 시설은 지난 20년간 주목할 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되었다.

구제역 신규 발생 시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를 고려하여, FAO는 아직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보호하고 이동 제한과 생물안보 방침을 활용하여 감염 지역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비상활동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FAO는 당국이 이러한 활동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북한 진단 능력에 대한 빠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FAO는 추가 피해와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물을 표적으로 하는 비상 백신 캠페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FAO는 이 캠페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지배적인 바이러스 타입에 대한 분명한 확인 2)국제 원조 3)적당한 백신 저장소, 운송, 사용, 감독 방법에 대한 교육, 기획, 진행

2.2. 참여기관

농업 부문 개발은 농업성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침은 농업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 평양 및 도립 대학, 교직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연계되어 있다. 농업성은 유엔 개발계획(UNDP), 유럽에이드(EuropeAid),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FAO, WFP 및 기타 공여자 등 다양한 기술 파트너의 지원을 받고 있다.

동시에, FAO는 역량 강화, 북한 내 식량 생산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가축 생식 및 원예학 발전, 연안 어업 회복 및 내륙 양식 발전 증진을 위해 UNSF 2011~2015에 따라 북한 정부를 지원하게 된다. 과거에 FAO는 농업 생산, 가축 생산, 산림농업/수변관리, 수경재배, 과일 생산, 보전 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FAO는 국제 재정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활동을 자주 변경해야만 했다. 농업과 임업의 회복을 위한 농업 투입 재료(비료, 종자)와 혁신적 해결책(조기 감자 재배, 이삭발아, 감자 파종, 보전 농업 기술, 통합 병충해 관리)의 경우 여전히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지원과 별도로 EuropeAid는 영농 기계(트랙터와 간단한 농기구)의 형태로 직접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직접 지원은 2000년 초에 종자와 기타 농업 투입 재료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협동농장에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에 협동농장이 곡물 수확량, 노지 원예업, 유류작물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식량 원조와 별개로 식량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WFP의 노력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관개시설 및 농촌지역 인프라 복구 작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재건 지역과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가정에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복구작업(PRRO)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3. 수혜자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자는 협동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협동농장은 주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지역의 곡창지대에 위치한다. FAO는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의 7개 도 및 58개 군/면에서 활동한다.

농장 지원의 주요 목적은 농업 생산량 증대이지만, 이 외에도 유치원, 학교, 기타 사회 기관 등의 식량 배분과 장비를 향상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일부의 식량안보 관련 프로젝트는 함경남도 소재 (양식장 포함) 농장을 지원한다. 수혜 농장의 선정은 정부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서 가끔씩 몇몇 농장은 다른 프로젝트 및 공여자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

농장 및 북한 당국이 수혜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조정은 매우 어렵다.

2.4. 재정지원

과거에는 극히 일부 공여자만이 농업 개발 부문에 제한적으로 재정지원을 했다. 전통적인 공여자에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FAO, EuropeAid, SD, 이탈리아 협력청(Italian Cooperation), SIDA, 필란드 협력청(Finish Cooperation), WFP, UNDP, 독일과 같은 일부 양자 공여국 등이 있다. 농업 회복 지원의 총 규모는 지난 5년간 크게 줄어들었으며 농업 생산의 가장 심각한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아직 미치고 못하고 있다. 충분한 교육과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장비나 기계를 통해 협동농장의 낙후된 생산 역량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우선 순위는 재정 지원이다.

FAO의 2011년 프로그램을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595만 달러가 필요하다.

3. 건강과 영양

3.1. 개요

제도화된 광범위한 헬스케어와 보건 서비스는 북한에서 국가가 달성한 성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국가는 비록 예방과 치유 능력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보편적인 무료 헬스케어를 제공할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보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각 리와 동⁵⁾에 진료소, 종합병원, 병원
- 각 군 혹은 도시의 구에 병원과 전염예방센터
- 각 도와 시에 전문 기관(산부인과/소아과, 혈액센터, 의료창고)

북한은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중국⁶⁾의 경우 인구 10만 명에 162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북한은 10만 명 당 317명의 의사가 있으며 간호사 대비 의사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1:1.1).⁷⁾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야는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이다. 2008년에 실시된 보급률 평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동의 88%가 예방접종을 받았고 홍역의 일상적 예방접종율은 99%, B형감염 예방접종율은 97.2%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0년에 걸쳐, 보건 시스템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점점 약화되었다.

5) 리와 동은 농촌과 도시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 리는 대개 협동농장과 상응함.

6) 중국과 베트남 수치는 UNDP의 2002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용

7) 간호와 산과 업무 개발에 대한 공중보건부 국가 전략계획 (2004-2010)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프라가 축소되었고 특히 의약품과 기타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여러 해에 걸친 재정지원 부족은 보건 시스템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도 약화시켰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새천년개발목표(MDG)의 4번째 목표(아동 사망률 줄이기), 5번째 목표(산모 건강 증진), 6번째 목표(말라리아, HIV, 기타 질병 타파)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국가이다. UNICEF, WHO, UNFPA, 세계은행이 발행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8년 사이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45%에서 3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영아 사망률(IMR)은 같은 기간 동안 23%에서 26%로 증가했다.⁸⁾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생아에 대한 보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모 사망률 역시 (10만 명 자연 출산 산모 당 270명으로) 매우 높다. 북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영아 사망률은 1,000명 자연 출산 신생아 당 19명이고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 자연 출산 산모 당 77명⁹⁾으로 각각 1,000명 당 14명, 10만 명 당 54명으로 기록된 1990년대 수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보건 시스템 부족 이외에도 영양부족이 산모 및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은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9년 MICS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지체 아동 비율은 32%, 저체중 아동 19%, 소모성 질환을 앓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5%였다. 뿐만 아니라 28%의 임산부 및 수유부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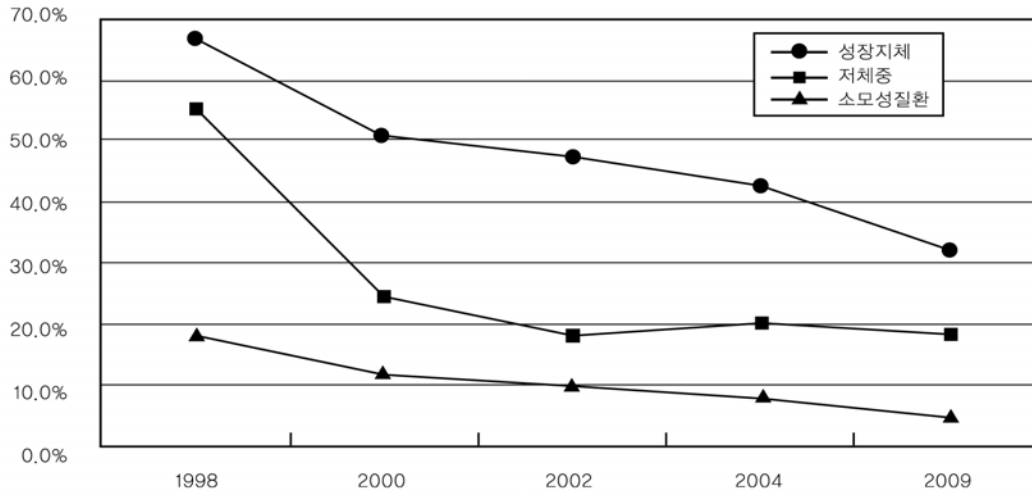
결핵은 인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WHO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10만 명 당 178명에서 결핵이 발병한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 매년 3,0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¹⁰⁾ 북한의 국가결핵통제프로그램(NTP)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결핵약 복용에 대한 직접 감시체제(DOTS)를 도입하였고 2003년까지 북한의 213개 모든 군에 적용이 되었다. WHO 추정치에 따르면 85%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계속 달성해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UNICEF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의 PR(Principal Recipient)이 되었고, WHO는 SR(Sub-Recipient)가 되었다. 2010년 중반부터 5년간 사용될 승인 기금 총액은 4,400만 유로이다.

8) 아동 사망률 추정을 위한 UN 내부 기관 그룹 2010

9) 평가 후 산모사망률은 10만 명당 85 명으로 파악됨

10) 글로벌 결핵통제-WHO 보고서 2010

그림 3. 북한의 아동 영양부족 실태



자료: WHO/UNICEF

말라리아는 90년대 후반에 다시 발생한 이후로 북한의 10개 도 중 7개 도에서 공중 보건을 저해하고 있다.¹¹⁾ 연간 발생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감염된 도 내에서 그리고 감염 전역에 걸쳐 전염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간 발병 건수를 2001년 29만 6,540건에서 2007년 7,436건으로 크게 낮추었다. 과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은 현재 말라리아 사전퇴치를 시작할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1990년 대 초 이후 신규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건 시스템은 잠재적인 대규모 보건 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적절한 물 설비와 위생 설비, 전기 부족, 최소한의 물리적 시설 부족으로 인해 적당한 병원 감염 통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저온수송체계 평가에 따르면 현존 저온수송체계 장비의 16%가 고장난 상태이며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필요하다. 병원 재고를 살펴보면 백신 배급을 위한 동력 차량(40% 이상의 차량이 고장)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냉장고와 냉동고의 14%만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최근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온수송체계 장비 대부분이 교체되었으나 열악한 계획과 유지로 인해 예방접종에서의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병원 침대와 인력이 남아도는 등 병원에서 과다 수용력을 보이는 부분도 나타나고

11) 북한은 열대열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상태이다.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치료의 질, 의약품의 가용성, 겨울철 난방, 적절한 물 공급 시스템 등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 세계 공중보건분야의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연구 개발 및 교육 기관들은 치료와 증거기반 관행보다 전문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 의약품을 직접 생산했으나 현재는 의약품 공장들이 생산능력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과 설사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외부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수 의약품 및 기본 의료 장비의 심각한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추정에 따르면 필수 의약품은 필요량의 30% 미만으로 충족되고 있다.

3.2. 참여기관

북한에서 UNICEF, WHO, UNFPA는 열악한 보건 시스템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의 공동 노력은 질병 부담이 높은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유엔특별기금(UNSF) 하에서 북한 정부와 UN 기구들은 다음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 1) 산모 및 신생아 사망률을 낮춘다.
- 2) 어머니와 자녀의 영양부족 문제를 향상시킨다.
- 3) 이미 달성한 성과를 유지한다(예방접종 프로그램).
- 4) 질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사,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 문제를 해결한다.
- 5) 시스템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립한다.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와 UNICEF는 신생아의 소생, 출산 후 1시간 내 모유수유 시작, 신생아를 이상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온, 출산 3기 관리 향상, 필수 신생아 케어 패키지 이행 등을 통해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같은 구체적 계획을 도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보건 시설의 기본적인 응급조치 및 종합적 조치와 미량영양소 대체물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산전 조치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산모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WHO는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실험실, 혈액 센터 등을 향상하고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필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100개 이상의 군과 1,000개 리 단위 진료소에서 비용효율적 조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보건 전문가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

추게 될 것이며,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UNICEF는 여성과 아동에게 필요한 필수 약과 미량 영양소를 리, 군 단위 진료소와 같은 일차 보건 단계에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도 단위의 아동 필수 약품은 WHO가 지원하게 될 것이다.

UNFPA는 피임 물품 제공 및 양질의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과 생식기 감염 관리 분야 보건 관계자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UNFPA는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병원과 진료소에 기본적인 응급 산부인과 및 신생아 물품 제공, 기본적인 응급 산부인과 및 신생아 케어 훈련 실시, 응급 산부인과 및 신생아 케어에 대한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배포할 것이다. 가장 필수적인 약품인 옥시토신과 황산마그네슘은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FP와 UNICEF는 조기 모유수유, 완전 모유수유, 적절하고 안전한 보완수유 및 사회적 홍보, 향상된 아동케어 관행 등을 통해 성장지체 예방, 태아소, 육아소 및 가정 단위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또한 UNICEF는 영아, 유아, 임신수유부를 포함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미량 영양소 보충과 빈혈 관리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예방 접종 분야에서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WHO, UNICEF, IFRC, 국제 비영리단체들의 보완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UNICEF는 백신 및 냉장수송 장비를 포함한 백신 기기들의 공급을 통해 예방 접종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WHO는 역량 수립 분야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소아마비가 박멸된 상태 유지와 예방접종 확대사업(EPI)의 종합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홍역 퇴치를 달성하기 위해 질병 감시 분야에 기술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UNICEF, UNFPA, WHO, IFRC의 공동 노력을 통해 리/동 진료소, 군과 도 단위 보건 시설에 주요 의약품 등의 필수 물품을 공급하고 훈련된 보건 관계자들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설사, 폐렴과 같은 5세 미만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UN 기관들과 국제 파트너 기관들은 모든 단계에 보건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북한의 보건 분야 개발을 위한 중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화롭고 일관된 지원이 제공되었다. 이 중기 전략의 주요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 향상이며, 보건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보유하고 배치하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체계적, 증거기반, 장기적 개입을 통해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전 전략을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이 채택될 것이다. 농촌 지역 가정의 역량 강화, 도농간 격차 및 불균형 해소는 향후 국책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3. 수혜자

5세 미만 아동(170만 명)과 가임기 여성(640만 명)은 주요 타겟 수혜자이다. UNICEF는 5개 시도(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평양)의 85개 군/면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WHO는 전체 10개 도 100개 군에서 활동을 할 것이며 특히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의 3개 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UNFPA는 4개 도(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11개 군/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3.4. 재정지원

- UNFPA는 2011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82만 달러가 필요하다.
- UNICEF는 2011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890만 달러가 필요하다.
- WHO는 2011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289만 달러가 필요하다.

4.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4.1. 개요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고 청결 관행이 더해지면 한 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상황은 가난과 배고픔 경감, 여성의 권리 신장, 산모 건강 증진, 주요 전염병 감소 등과 직결된다.

북한에서 WASH 부문의 상황은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물과 공중위생 인프라 효율성과 북한 주민의 개인위생 관행은 이미 취약한 북한 주민의 상태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설사는 5세 미만 아동의 이환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며, 오염된 물, 질 낮은 공중위생, 안전하지 않은 개인위생 관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¹²⁾

12) WHO, UNICEF, UNFPA, 세계은행 2010년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1,000 명의 정상 출산 당 영아 사망률이 1990년 23 명에서 2010년 26 명으로 증가했다. 아동 사망률 증가 원인은 극심한 식량부족, 보건 시스템 역량 감소, 물 부족, 열악한 공중위생 인프라이다.

〈 물 공급 시스템 〉

수도관 공급은 전기 펌프와 모터를 사용하여 주로 지표수원(강, 개울, 낮은 우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80년대 초에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투자, 전기 부족, 되풀이되는 자연 재해 등으로 수도관 시스템이 심각하게 침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연한 전기 부족 및 저전압 공급으로 인해 양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장비의 수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양수시 파이프라인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수도관으로부터 오는 2차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양수장이 적절한 양의 안전한 물을 도시와 농촌 인구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관 누수로 인한 손실이 높아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22%가 생활 용수를 길어오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종종 안전하지 않은 물을 길러오기도 한다. 지리적 불균형도 존재하는 데 도시인구의 18%만이 대체 수원에 의존하고 농촌 인구의 29%는 수도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물을 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¹³⁾

공급되는 물의 질 역시 중요하다. 염소 처리를 통한 소독이 물의 질을 보장하는 주된 방법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공급 물품 부족과 낙후 장비 문제로 인해 소독 과정이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 인분이 널려있기 때문에 대다수 지표수원은 잠재적으로 오염되기 쉽다. 물 공급의 화학적 오염에 대한 확인된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 공급원은 논, 밭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에 의한 물 오염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는 수질 모니터링과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문제점 들로는 수질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부족, 소독제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장비의 열악함, 군 단위의 염소 부족, 전염병방지국 직원들의 기술 낙후와 무균 시스템(물 샘플링, 소독 등)의 열악성 등이 있다.

지난 십 년 간 정부의 WASH 향상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위치 문제와 의료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다. 농촌 진료소는 의료 물품 부족과 수도물 등의 기본적 시설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대안적 보건 서비스는 군 단위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운송 시설 부족으로 인해 특히 임산부들의 군 단위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군 단위, 도 단위 병원으로의

13) 2008년 인구조사, 표 38,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정 경제활동

물 공급 문제이다. 하루에 몇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제한적인 물 공급으로 인해 외과의, 산부인과의, 간호사가 적절하게 손을 씻기가 어려우며 분만 중이나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공중위생 시스템 〉

인간의 배설물은 물, 토양, 식량, 환경의 주 오염원이다. 북한은 1980년 대 말에 주민들이 더 이상 노상 배변을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전체 인구는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한 관리는 여전히 북한의 가장 큰 보건상의 위협요소로 남아있다.

공중위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도시에서 하수관 사용, 농촌 지역과 마을에서의 얇은 구덩이 재래식 화장실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대도시의 공중위생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농촌 지역과 작은 마을의 공중위생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농촌과 작은 마을 인구의 40% 이상이 자주 비위취야만 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¹⁴⁾ 현지의 비료화 처리시설이 없어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물질은 마을의 비료장으로 운반이 되거나 필요할 경우 가정의 뒷밭에서 거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배설물이 작업장으로 유입되어 질병에 감염되는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공중위생은 단지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어느 마을도(평양시 제외) 적절한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급된 물에 2차 오염의 위험이 가중되고 아동의 노출 위험이 증가된다. 북한은 물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도 부족하지만 공중위생과 하수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재래식 대구경 하수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보통 상수도시스템 비용의 두 배)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위생 및 교육 〉

북한 주민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개인위생 홍보 메시지는 담당 의사의 지도 하에 지역 개인위생 홍보원이 전파하고 있으며 개인위생 교육은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 태도, 관행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다른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위생 홍보 접근방식들은 집중적, 핵심적 메시지가 부족하며 일관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기존의 공중위생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시키지 않은 채로 향상된 공중위생을 사용하라고만 하고 있다. 지역 배설물

14) 2008 인구조사, 표 51과 UNICEF의 북한 WES 검토 문서 2006, 18 쪽

관리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화장실 디자인이 도입되었다.

개인위생 교육은 세수와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 개인위생 향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물의 안전한 취급, 식량과 부엌 개인위생, 공중위생 시설 관리와 같은 개인위생 교육의 다른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누, 깨끗한 물, 깨끗한 화장실과 같은 요소들의 부족 역시 안전한 개인위생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 WASH와 성 〉

WASH 시설 접근성 부족에는 성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 2008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주로 물을 길어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여성 68%, 남성 32%). 또 현장 관찰에 따르면 세 번 중 두 번은 여성과 소녀들이 화장실의 배설물을 비운다. 안전하고 분리된 공중위생과 학교의 수도시설 부족은 여학생들이 생리 기간 중에 학교를 갈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 여학생 친화적인 공중위생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소녀들의 건강증진과 교육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성과 소녀들은 열악한 공중위생 시설로 인한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공동체와 학교에서의 WASH 향상은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WASH는 식량안보, 영양, 건강,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적절한 WASH 조치(깨끗한 수도물과 공중위생)가 없을 경우 수만 명의 아동들이 설사와 다른 수인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될 것이다. 보건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높은 수준의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2. 참여기관

UNICEF는 IFRC, EUPS Unit, MoCM(도시관리부)과 함께 하는 WASH 분야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WASH 그룹은 또한 수질 모니터링 및 감독 관련 분야에서 기술적 기관으로서 WHO의 지원을 받는다. WFP는 취로 연계 식량 지원 프로그램(Food for Work Programme) 하에서 WASH 프로젝트의 일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도시관리성은 도시와 농촌 물 공급을 주도하는 국가 기관이다. 개인위생 교육은 공중보건성 산하 전염병 차단국에서 주관한다. 도시관리성은 UNICEF의 WASH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파트너 기관이다. 국제적십자사(IFRC)는 북한 적십자와 직접 협력하고 있다. 모든 WASH 기관의 현장 단위 지원은 군 단위 도시관리담당의 기술 지원과 감독을 받으면서 군인민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 UNICEF와 IFRC는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며, EUPS Unit은 여러 도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활동을 한다.

농촌 지역의 공중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ICEF와 파트너 기관들은 2010년에 농촌지역 공중위생 지침을 마무리했다. WASH 파트너 기관들은 현재 농촌 지역 공중위생 증진 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UNICEF의 지원을 받아 분산하수처리 시스템(DEWATS) 시험운영이 2008, 2009년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산하수처리시스템은 전기와 같은 외부 전력 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접근 방식이다. 여러 EUPS Unit이 매우 제약적인 북한의 재정지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프로젝트 분야에서 분산하수처리시스템을 모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물 공급과 공중위생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다. 매년 수선되거나 복구되는 시스템의 수보다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시스템의 수가 더 많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북한은 긴급 상황에 영향을 받는 WASH 시설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물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GFS와 같은 입증된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4.3. 수혜자

WASH 파트너 기관들은 북한의 10개 도 중 7개 도에 접근 가능하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에 접근하여 정기적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인도적 차원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한 정부가 이들 지역에서 활동을 허가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WASH 파트너 기관들은 공동체, 탁아소, 학교, 보건 기관 등을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 지역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타겟 수혜자는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이다.

WASH 파트너 기관들은 2011년에 6개 도의 13개 군 지역, 25개 리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비 및 비상 계획은 WASH 그룹의 지속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WASH 파트너 기관들은 언제든지 필요 시에 전국적으로 10만 명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상 물품을 보유할 것이다.

4.4. 재정지원

궁극적으로 WASH 프로젝트를 더 큰 규모로 펼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재정지원에 달려있다. 북한 정부가 WASH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은 특정 지역에만 사용 가능한 자원(노동, 지역 재료)으로 한정된다. WASH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물품(파이프, 부품, 정화 소모품)들은 수입해야만 한다. WASH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정부 파트너들의 역량은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해 WASH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4년간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만이 이 분야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연간 200만 달러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 AusAid는 UNICEF가 지원하는 WASH 프로그램에 정기적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2009년에 중단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개발협력청(IDC)는 2008년에 UNICEF에 재정지원을 제공했으나 그 이후로 WASH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중단했다.

UNICEF는 본부로부터 일부 재정지원과 UNICEF 국제위원회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원은 일회성이다. 이로 인해 기획과 지원이 임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0년 UNICEF는 인도주의 재정지원 예상 금액의 35%만 지원받아서 200만 달러의 격차가 발생했다.

UNICEF는 2011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704만 달러가 필요하다.

5. 교육

5.1. 개요

북한 정부는 1945년 이래 모든 주민에 대한 무료 의무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에 강력한 사회화 채널을 형성하고 투자를 해왔다. 섬을 포함하여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해 1,600개의 초등학교 및 26개의 중등학교 분교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거의 모든 주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2008년 인구조사에 기록된 문맹률은 80세 이상 인구의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MICS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육 완료율은 87.8%이며 이 중 중등학교 진학률을 100%이다.

교육에서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성과 중 일부를 퇴색시키고 있다.

- 지난 수 년간에 걸쳐 학교 출석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취약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출석률의 등락 편차는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겨울철 학교 난방 축소로 인해 정기수업 활동이 어렵게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출석률이 (계절적으로) 60~8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교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정부가 1990년대 후반에 걸쳐 국가 예산(평균 8%)의 1%로 교육에 대한 지출을 유지해

- 왔지만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육에 배정되는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는 교과서와 기본 교과물의 부족, 학교 환경 낙후, 교사의 훈련 기회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육 예산이 교직원 월급에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에는 거의 예산이 남지 않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물리적 피해는 1990년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는데 1억 4,500만 달러로 추정된다(1995년). 인도주의 원조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¹⁵⁾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 높은 등록률과 출석률이 반드시 양질의 교육과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60개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단지 5%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 성취도 최저 수준¹⁶⁾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과학과 수학에서 남학생들만큼 높은 성취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남녀간 차이도 관찰이 되었다.

5.2. 참여기관

소수의 기관만이 북한 정부의 교육 부분 지원을 위한 직접 원조를 제공한다.

-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2007~10)에서 시작된 UNICEF의 교육 사업은 학교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아동교육센터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등학교의 교과과정 개정을 지원했다. UNICEF는 주로 학교 건물 재건 분야에서 정부를 지원했다. 현재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2007~10) 전반적인 예산 추정액은 1,000만 달러에 달하나 UNICEF의 전반적 재정지원은 약 600만 달러(연간 150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정지원의 80% 이상은 학교 인프라 재건과 기숙학교 시설 향상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학습 기준 개발과 교과과정 개정에 재정지원이 사용되었다.
- UNESCO(북한 내 비상주 기구)는 교육에 정보통신기술 사용, 영어 교습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효율적인 학교 관리를 위한 교장 훈련, 교사들의 전문적 개발 등을 촉진함으로써 북한이 교육 시스템 및 교육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UNESCO의 2010년 총 예산은 41만 2,100 달러이다.
- 영국위원회는 평양의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 영어 및 특수 영어 교습을 통해

15) WFP는 현지 제조한 비스킷을 학교에 제공한다. 한 때 UNICEF가 비타민 및 미네랄 강화 비스킷을 제공했으나 재정지원 부족과 어린 아동과 임산부유부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강화 비스킷 지원은 중단되었다. 2001년 중국은 모든 학교 교복 제작을 위한 천을 제공했다.

16) UNESCO와 Sheldon Schaeffer,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관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질 향상, 교육 업데이트: 교과과정과 학습 (2002)

현재 유행하는 의사소통중심 언어교수법(CLT) 방법을 기존 영어교수법(ELT)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5.3. 수혜자

UNICEF는 현재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내 10개의 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UNICEF는 초중등학교가 적절하고 현대적인 교습/학습 지원을 받고 교수들이 적절하게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학교 아동들에게 교과서, 문제집, 문구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UNICEF로부터 인쇄 지원을 받아 무료 교과서 제공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지원이 감소하여 문제집과 문구 제공은 중단해야만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UNICEF는 북한의 교습, 학습 과정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의 교수훈련 기관과 도의 현대적 시설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교수법 개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 탁아소(17)와 기숙학교(17)의 인프라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5.4. 재정지원

학교 인프라 재건은 매우 중요하나 북한 정부의 예산 제약을 감안하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적절한 학생/교사 비율 유지, 교과과정 개정, 교육 시스템에 적절한 하드웨어 보장, 교수 훈련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UNICEF는 2011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63만 달러가 필요하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2011년 특별기획

북한법 시리즈

북한 농업법의 이해를 위한 북한법을 보는
새로운 관점

북한 농업법의 이해를 위한 북한법을 보는 새로운 관점¹⁾

권 영 태²⁾

I. 서론

북한의 농업법,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 북한법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주제는 북한법 연구자들은 물론 북한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사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북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의미 내용도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는 연구자 개인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세분화된 학문의 구분 체계로 인해 북한법연구자들이 법 조문 해석을 위한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이해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북한 연구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방법론으로 진행된다. 물론 법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작 북한법의 연구에서는 법학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조문의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법의 연구는 어렵게 입수한 법령의 소개, 조문의 나열과 비교가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정책 담당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입법 배경에 대한 분석도 많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다.

우리 법학은 민법, 형법, 헌법을 비롯한 기본법의 경우 조문의 숫자는 그리 많지만,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북한은 법 관련 문헌이 그리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기에 북한법의 연구에서는 기본적

1) 이 논문의 일부는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서울 : 이매진, 2011)를 비롯한 필자의 다른 글에서 발췌하여 문맥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법의 조문은 필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북한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명봉 편, 『2008 최신 북한법령집』(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8)을 참조하였다. 다만, 사회주의헌법은 2009년 4월 9일 개정(북한에서는 ‘수정보충’이라고 한다.)된 것을 사용하였다.

2) 고려대 법학과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연구회 간사.

으로 자료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 자료가 부족한 현 단계에서는 북한법의 조문 해석을 위해서는 다른 북한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북한학의 다른 분야와 북한법학계는 거의 상호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학문별 구분 체계와 함께 긴급한 정책 생산 과제와 연결되지 않아 국가적 투자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민법 조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다른 북한학 분야, 곧 북한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북한의 시장과 상업에 대한 연구,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 대한 연구와 같은 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쉬운 것은 다른 북한학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법을 어려워하고 있어, 북한학의 다른 분야와 북한법학계의 상호 교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법의 조문 해석을 위해 북한학의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와 상호 교통을 하는 데서 핵심은 수령의 교시이다. 수령의 교시가 북한법 위에 있다는 점은 북한 연구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문제이다. 수령의 교시 중에서도 살아 있는 당대의 수령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전대 수령, 곧 김일성의 교시가 더 중요하다.

북한 헌법은 서문 마지막 문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 헌법’이란 표현도 이어서 등장한다.

다른 북한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북한법의 조문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한두 가지 법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완전히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 개별 법들에 언급된 개념과 논리들을 낱줄과 씨줄로 엮어 북한이 직접 문헌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조문의 의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특히, 헌법을 비롯하여 개별 법들에는 개념의 정의를 설명하는 조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북한법의 성격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북한법의 성격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법을 보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던지고, 북한법이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며, 북한법의 근본적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농업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 관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법의 성격을 다룬 선행 연구도 상당히 발견되지만, 대체로 북한의 공식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이 글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법의 이해를 위한 필자의 북한 연구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한다.

II. 북한법을 보는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

최근, 토지는 협동농장 공동 소유인데 처분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받았다. 또, 북한은 법이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받았다.

두 가지 물음만으로도 북한법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이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 북한법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나오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기에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법의 근본적 특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토지의 처분권에 대한 인식으로 보는 북한법에 대한 통념 문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북한에서 토지는 협동농장뿐 아니라 다른 사회협동단체도 소유하고, 국가도 소유한다는 점이다.

북한 헌법은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사회주의헌법 제20조)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다는 뜻이다. 1998년 제정되고 2002년 개정된 농업법에는 ‘협동농장’과 함께 ‘국영농목장’에 대한 규정이 많이 등장한다.

토지는 생산수단에 속한다. 그런데 생산수단 중에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이 그것이다(사회주의헌법 제22조). 헌법 상의 이 규정으로 인해 국가가 아닌 사회협동단체에 토지에 대한 소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협동농장이 아닌 다른 사회협동단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은 규모라도 이들이 소유하는 토지도 별도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개인소유 보호와 상속권 보장을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사회주의헌법 제24조). 헌법이 개인 소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터발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이지 터발 자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처분권은 당연히 국가가 가지겠지만,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처분권을 국가가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처분’은 우리 민법학에서는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소비하거나 파괴할 수는 없으니 양도와 담보 제공의 법률적 처분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사회협동단체 구성원들이 토지를 양도하고 담보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는지, 법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불가능한 것인지, 사회협동단체 다수 구성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토지의 처분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단정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것이며, 이를 근거로 진행되는 후속 논리는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북한법은 과연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가?

다음으로 북한법은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보자.

한 예로 농업법 제5조는 전단에서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라고 되어있다. 후단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국가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속된 말로 ‘뻔한 얘기’를 굳이 왜 법 조문으로 명시해놓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일 수 있다. ‘농업생산과 관리를 맡는 사람이 그러면 농업근로자이지, 공업근로자이겠는가’ 하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5조의 전단은 여러 의미내용을 갖는다. 다른 북한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

다른 북한 개별 법 조문의 내용과 교차하여 분석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이 아니라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북한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법에서는 사측의 상대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 적용 대상이 되는 개념이지만, 북한에서 ‘근로자’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의 구성원 대다수는 ‘근로자’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근로자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과 같이 자기의 로력으로 육체로동이나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 낡은 사회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받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들이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다 내어 일한다.

북한에서 ‘근로자’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모두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군인’을 제외하면 바로 ‘근로자’와 같은 의미가 된다. ‘근로인민’은 ‘육체로동이나 정신로동을 하는 인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

농업법 제5조의 ‘농업근로자들’은 ‘근로자’ 중 농업 분야의 ‘근로자’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근로자’는 ‘근로자’ 일반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 따라서 농업법 제5조의 의미를 새길 때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근로자’는 단순히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근로자들’을 주어로 하고 있는 둘째 문장은 첫째 문장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이라는 표현의 꾸밈을 받아야 한다. 곧,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등장하는 ‘근로자’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존재이다. 이는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의 사회의 주인으로 된’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다. 북한의 근로자들은 북한법에 따르면 바로 ‘착취와 압박

에서 해방된 존재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조선말대사전의 설명과 대동소이하다.

농업법 제5조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업 분야의 ‘근로자’이다. 북한이 ‘농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민은 농업 분야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업 분야의 ‘근로자’이다. 당연히 ‘농업근로자들’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 점이 전제된다.

북한의 농업근로자와 대비되는 우리 법의 개념은 ‘농업인’이다. 물론 과거 우리 법도 ‘농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때도 있다. 1999년 2월 5일 법률 5758호로 폐지가 결정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농업기본법’에는 ‘농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우리 법에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법률 10449호).

대통령령(제21887호)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유형은 모두 다섯 가지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는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1호와 2호의 규정은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호와 5호는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점은 명백하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법의 농업인은 농업 경영자와 농업 근로자를 포함한다. 과거 농업기본법의 농민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은 농업법 제5조에서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을 ‘농업근로자들’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설명하자면 개인이 북한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법은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가? 농업법 제5조가 북한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이 ‘농업근로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것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지, ‘언급’, ‘적시’, ‘명시’, ‘단정’, ‘발표’, ‘확인’ 같은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농업법 제5조는 일견 보면 단순히 선언적인 조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법 제5조의 규정은 다른 법 조문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농업근로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 해명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보이는 농업법 제5조의 의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

다른 의미도 발견해낼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22조는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북한법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말의 하나이다.

농업법 제5조가 언급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은 바로 농업 분야 ‘해당’ 사회협동‘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이다. 곧 사회주의헌법 제20조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협동단체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농업법 제5조에서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을 ‘농업근로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업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협동단체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농업법 제5조의 전단만 한 예로 들었지만, 북한법이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과 교차하여 확인하여야 ‘농업근로자들’의 의미와 지위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법 제5조 전단은 다른 북한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 다른 북한 개별 법 조문의 내용과 교차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이는 다른 농업법 조문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법령의 조문도 마찬가지이다.

3. 북한에는 과연 법이 없는가?

앞의 두 물음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이렇다.

북한법에서 토지의 처분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히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토지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북한법이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통념은 옳지 않다. 따라서 선언적인 북한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메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대답이다.

이 문제는 결국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제는 필자가 북한법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은 물음이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과연 북한에는 법이 없는가?

북한에 법이 있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다. 북한에는 법으로 볼 수 있는 규범이 없다는 뜻을 가진 일종의 반어법이다.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공동체에 대해 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8조금법이 그것이다. 근대 서양의 역사학이 정립한 방법론에 따라 한반도에 국가가 존재한 것도 고조선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이 국가적 공동체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에도 당연히 법이 있다.

‘법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우선 법전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고조선의 8조금법의 경우 아직까지 3개 조문밖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3개 조문의 존재가 고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에 법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면, 북한에서 법전의 존재는 북한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의 논리적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전의 존재와 법전을 펴내는 출판사의 존재마저 허구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는 필자로서는 할 말이 없다. 법전이 있는 북한에 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지난 2004년에 대중용법전을 발간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이다. 2년 뒤에는 증보판도 펴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증보판’이다. 법전을 출판한 곳은 법률출판사이다.

법률출판사는 같은 해에 ‘대외경제사업을 하는 일군들과 외국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외국투자부문 법전도 출판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부문)’이다. 북쪽은 최근 펴낸 법전 말고도 과거에도 여러 종류의 법전을 발간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비롯하여 남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법률가가 있는가 또는 법학이 존재하는가도 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률가가 있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법학 연구 기관과 법학자들이 있다. 물론 법학자들이 하는 연구는 남쪽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듯하다.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는 의문은 때로는 북한에서도 재판을 하는가라는 형태로 제기되기도 한다. 꽤 많은 이들이 북한에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놀라곤 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의 불법 월경(북한의 입장에서)을 통한 재판기관의 활동이 ‘상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 과거 박헌영의 숙청 당시 진행한 재판에 대해서는 방대한 재판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되어 있기도 하다.

북한이 발간한 대중용 법전에 실린 법의 수는 모두 112개이다. 중보판에 ‘새로 채택된 법’이 15개가 실려 있다. 법전에 실린 법의 개수가 적다는 것이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적 근거로 되지는 않는다. 법전의 편찬 시 수록되는 법의 숫자는 출간의 방향과 편집의 원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어느 국가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법의 총 개수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이 북한법을 가장 광범위하게 집대성한 자료는 1990년에 대륙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법령집(전5권)’이다. 이 법령집은 1945년 10월 28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이 ‘제정 · 공포한 각종 형식의 법령, 법규 중 입수 가능한 모든 것을 수록하였’는데, 총 분량이 3,350페이지가 넘는다.

특정 시점에서 제정된 법의 총 개수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일부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때문에 법의 개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 북한법의 법전으로 발간한 것 중 괜찮은 것은 북한법연구회가 펴낸 ‘2008 최신 북한법령집’이다. 수록 범위는 북한이 발간한 대중용법전과 대동소이하나, 외국투자 및 특구 운영과 관련한 시행규칙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고 우리 법의 분류에 따라 북한법을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북한에는 법이 없다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법과 관련된 문헌과 직업, 제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북한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물음 또한 앞서 예로 든 고조선이나 다른 나라에 법이 있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만의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논리를 갖고 있다.

북한이 법치주의인가 아닌가라는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의미부터 제대로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의 개념과 논리적 전개 및 논거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북한이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대로라면 전혀 타당하지 않다.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제각각의 법질서를 갖고 있다. 분류 기준에 따라 각 국가공동체의 법질서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곳은 법이 있고 어떤 곳은 법이 없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 상에는 많은 문명이 있고 이들 또한 나름의 법질서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겼다. 문명에 따라 법질서의 원칙과 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견해는 가능하지만, 어떤 문명에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하는 물음 또는 반어법에서 의미가 있는 지점을 굳이 찾아 본다면 남과 북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곧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법 규범은 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의 도출일 것이다. 북한에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법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Ⅲ. 북한법이 북한 내에서 지니는 의미

1. 북한법의 규범력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는 물음은 곧 ‘북한법이 북한 내에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연결된다. 법에서는 ‘규범력’이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한다. 북한법이 규범력이 없다는 명제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북한 농업법도 당연히 규범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법이 규범력이 없다거나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속하게 된 사회가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를 의거하여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북한에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법이 없다거나 규범력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된다.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를 주장한다. 북한은 인권 보장 또한 자신들만의 논리가 있다. 북한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는 정권 또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은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에 따른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북한은 법의 개념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것이 이른바 ‘주체의 법리론’

이다.

북한이 표방하는 법과 관련된 원칙과 논리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선악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북한 연구는 ‘자유민주체제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법이 북한에서 북한식의 고유한 원칙과 논리에 따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범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최근에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두 기자가 북한에서 받은 형사재판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법이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를 던지는 이들이 많지만, 이러한 회의가 타당하려면 다른 전제가 필요하며 북한법은 다른 국가와는 다른 메커니즘의 규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서 북한법을 살피는 것이 옳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법을 모른다는 사실 또한 북한법의 규범력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보면 이는 쉽게 동의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법률가와 ‘민’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오히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필자는 북한이 남북간 또는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제법 또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원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북한이 휴전협정과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낮설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우리 정부나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가, 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차이는 해당 국가공동체의 법교육이 어떤 원칙과 내용으로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북한은 법무해설원이 해당 단위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법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나마 북한이 법은 괜찮은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과 수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들도 가끔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 북한에서 법은 당과 수령과 함께 맞물려 있다. 법이 괜찮다면 당의 정책과 수령의 교시도 괜찮은 것이고,

법이 잘못 되었다면 당의 정책과 수령의 교시도 잘못된 것이다.

북한 헌법 제18조는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을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북한에서 법은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로 인식한다. ‘무기’는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는 북도 마찬가지다. 북에서 ‘국가관리’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법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기본무기’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히 살핀다.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인 북한법은 법무해설원을 통해 국가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관철된다.

2.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의 존재

북한법은 북한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피려면 북한이 남쪽을 비롯한 다른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북한법이 북한 내에서 지니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우리는 흔히 “법” 하면 판검사나 변호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북은 판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률가보다는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 ‘민’에게 먼저 다가온다.

뒤에서 더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법무해설원들은 법 조문을 활용해 경제적 생산에서 국가계획을 완수하는 데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은 국가 계획 완수를 위한 설득력 있는 정당화 규범이다. 국가 계획 완수는 ‘국가관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북한의 국가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법무해설원의 활동에 대해 평균적으로 매달 2-3회 정도 게재한다. 2006년의 경우 31명의 법무해설원들이 소개되었다. 북한에도 많은 직업이 있고 직무와 직역이 다양하다. 그런데도 법무해설원의 활동을 꾸준히 언론에 싣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법무해설원에 대하여 북한의 백과사전은 이렇게 설명한다.

법무해설원 : 근로자들속에서 공화국의 법을 해설하고 선전하며 준법교양을 담당수행하는 일군. ... 우리 나라에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 법무해설원이 있다. 법무해설원은 해당 기관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책임성이 강한 일군들로 선정되며 본신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무해설사업을 진행한다. ... 법무해설원은 언제나 근로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안의 종업원들 속에서 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한다.

법무해설원은 ‘해당 기관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책임성이 강한 일군들로 선정’되는 직역이다. 대체로 해당 단위의 책임자들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다. 북한의 각급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는 법무해설원이 있다.

법무해설원은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법 관련 직업의 명칭이 아니다. 법무해설원들은 ‘본신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무해설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단위의 모든 책임자가 곧바로 법무해설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 책임자의 직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단위 책임자가 법무해설원이 된다.

법무해설원은 북한이 법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법의 준수를 관철시키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북한은 ‘당이 세워 준 준법교양체계’가 있고,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하고 각급 인민정권기관이 이들에 대한 직접 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민위원회에는 ‘법무부’가 있어 부장과 부원들이 각급 단위의 법무해설원들을 지도한다. 북한에서 법무해설원들은 ‘공화국 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며, 준법교양의 직접적 담당자’로 불린다.

법무해설원의 기본 역할은 준법교양, 곧 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이다. 법무해설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법과 규정들을 해당 단위의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준법교양과 법해설선전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법해설선전이 준법교양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법해설선전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대관군 화학일용품공장 법무해설원 박광정의 활동을 소개한 ‘민주조선’의 기사이다.

우선 자신부터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모든 법규정과 규범들에 정통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그는 늘 종업원들의 준법의식상태를 해부학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월별, 주별로 준법교양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공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법해설선전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해설한 걸그림, 카드, 법해설 담화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조건과 환경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법해설선전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고 있다.

법무해설원이 법해설선전을 위해 월별, 주별로 계획을 세우고 걸그림이나 카드 같은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해설원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법무해설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도 열심히 법해설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다.

법무해설원은 법에 대한 ‘법무해설사업’을 진행할 뿐 아니라 협동농장의 ‘농장준칙’을 비롯한 각종 규정들에 대한 해설사업도 진행한다. ‘산림보호규정’, ‘교통규정질서’ 등도 법무해설원들이 각 단위 구성원들에게 해설하는 규정에 포함된다. 법무해설원들의 활동에는 위법현상을 바로 잡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신평군 상업관리소 법무해설원 장명성의 사례이다.

언제인가 상업관리소 안의 창고들을 돌아보던 장명성 동무는 일부 자재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상품관리에서 입출고질서를 제정된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충고를 주어 결함을 고치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장명성동무는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해당 조항과 자재관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가지고 생동한 실례를 결부하여 법해설선전준비를 실속있게 하였다. 그런 다음 해당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법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무실과 창고들에 해당한 법과 규정들을 써붙이고 모두가 그 내용을 환히 알도록 하였다.

법무해설원이 법을 어기는 사람을 발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해설선전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해설원들의 준법 감시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활동을 찾자면, 각급 기관과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감독 업무 또는 감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법무해설원들의 법해설선전사업은 언뜻 보기에 우리 사회의 법교육과 맥이 닿는다. 그렇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많이 다르다. 법교육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법적 기초 소양과 법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일반 국민들에게 법적 원리, 가치 및 생활 법률지식을 전달하여 법의식을 향상시키는 것’,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생각하는 힘, 법적 사고력과 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한 조직적 학습 경험’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북한의 법무해설원들이 수행하는 법해설선전사업은 법규범과 규정의 내용을 해설하는 것과 함께 생산성 선도와 해당 단위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해설원들의 모범 활동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에서 계획의 완수 또는 초과 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 절약, 품질 개선 등 기업소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서도 법무해설원들은 가장 앞장서고 있다. 법무해설원들은 법 해설선전을 국가계획의 완수와 단위 구성원들에 대한 생산 독려와 모범 창출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3. 농업법과 법무해설원

농업법에는 법무해설원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북한에도 우리 학계에도 농업 분야의 법무해설원에 대한 연구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법무해설원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농업 분야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종업원들 가운데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책임성이 강한 일군들’을 법무해설원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공화국의 법을 해설하고 선전하며 준법교양을 담당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농업 분야의 ‘본신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무해설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들은 ‘언제나’ 농업 ‘근로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안의 종업원들 속에서 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할 것으로 짐작된다.

농업 분야의 소속 단위에서 ‘생산성 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법무해설원들이 앞장서 진행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계획의 완수 또는 초과 달성’, 에너지 절약과 품질 개선 같은 문제 해결에서 이들이 가장 앞장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농업법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법무해설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일 것이다.

농업법은 이 법이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도대강화,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 목적을 밝혀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해설원들이 ‘해설 선전’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가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며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제5조) 하고 있으니 농업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법의 이름으로 지도하고 있을 것이다.

농업법의 조문은 모두 제78개조이다. 농업 분야에는 이 외에도 과수법, 량정법이 있고 새로운 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법무해설원은 북한에서 국가계획 완수와 생산성 선도 역할, 곧 경제적 생산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농업 분야 법무해설원은 ‘농업근로자들’을 독려하여 국가계획 완수와 생산성 선도를 위해 농업법 조문 78개와

다른 농업 분야 법의 조문을 그때그때 적절히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법무해설원이 농업 분야에서 농업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아직까지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자료 발견과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IV. 북한법의 근본적 특성인 ‘혁명’의 반영과 농업법

농업법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농업법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북한법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혁명’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야 한다. 물론 농업법의 경우 조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직접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업법을 ‘혁명’과 떼어내서 이해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농업은 인민경제 2대 부문의 하나’(농업법 제2조)이다. 경제적 생산과 ‘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직까지 ‘혁명’과 농업법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을 하기에는 아직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전제가 되는 북한법에서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는 것을 통해 농업법 이해를 위한 총론적 인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법무해설원과 ‘주체혁명과업’

앞에서 인용한 북한의 백과사전은 ‘법무해설원’에 대한 정의를 풀이하면서 ‘혁명’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또 법무해설원의 국가계획 완수와 생산성 선도 역할, 곧 경제적 생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헌법에 명기된 ‘주체혁명과업’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북한 헌법의 서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주체혁명과업’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뒤에서 두 번째 단락의 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다.”

이 표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이 주어이고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라는 결의가 술어이다. 목적어는 ‘주체혁명위업’이다. 물론 문장 전체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는 것과 함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후자가 더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주체혁명위업을 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의 앞에 나오는 서문의 내용은 결국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헌법 서문의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었다, 김일성은 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거쳐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켰다, 김일성은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자 김일성의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다, 국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서문을 압축하는 내용이다.

북한 헌법의 본문을 살펴봐도 ‘혁명’은 계속 등장한다. 북한은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인데, 이 혁명의 성격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 북한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데,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제3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제9조), ‘사상혁명’,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제10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제14조), ‘기술혁명’(제27조), ‘농촌기술혁명’(제28조), ‘문화혁명’(제40조), ‘혁명적인 문화’(제41조), ‘혁명적인 문학예술’(제15조), ‘혁명의 전취물’(제59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제19조), ‘혁명적경각성’(제85조), ‘혁명의 성산 백두산’(제163조) 등이 모두 ‘혁명’을 담고 있는 주요 개념들이다.

북한 헌법 제43조는 국가가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북한의 ‘민(民)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며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 연구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 조항은 북한의 국가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공동체의 전 구성원들을 ‘혁명가’로 키워야 하는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북한의 법규범은 전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을 ‘혁명가’로 양성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혁명조직과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국가’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전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혁명화’ 정책은 아주 일찍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미국과 대결에서 북한이 격렬한 메시지를 내놓고 강경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지금 ‘혁명 중’이기 때문이다.

법무해설원은 북한의 법 전과 및 관철 시스템일 뿐 아니라, 헌법적 과제로 명시되어 있는 ‘주체혁명위업’의 수행을 자신이 속한 해당 단위에서 ‘법’의 이름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혁명’과 ‘농업’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경제적 생산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삶이 곧바로 ‘주체혁명위업’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북한 헌법 제9조는 헌법 서문에 언급된 ‘주체혁명위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방법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미제를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중대한 역사적과업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는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몸바쳐일하여야 하며 일단 유사 시에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판가리싸움을 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1969년 김일성의 언급이다.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북한의 ‘역사적 과업’의 내용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로 정식화하였다. 이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즈음하여 ‘기본혁명과업’으로 세련되게 표현되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 것은 공화국정권앞에 나르고 있는 기본혁명과업입니다.”

헌법 제9조에 포함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 제5조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었지만, 조국통일 부분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표현으로 서술되었다.

인민정권 강화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북한의 각종 문헌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기본혁명과업 완수의 방법이자 전략적 과제이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 북한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성공적인 경제 건설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 10대 경제건설

전망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완수하는 것이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북한은 경제적 생산 또한 혁명과업으로 본다.

북한이 경제적 생산을 혁명과업과 동일시하기 시작한 것은 은 1950년대 말부터이다. 처음에는 부문별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우리가 농사를 잘하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것은 우리 생활을 문명하고 유족하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혁명사업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1970년대가 되면 각자가 맡은 모든 역할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직접 천명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부문이 다 중요한 혁명초소이고 모든 사업이 다 혁명투쟁이므로 어디에서 일하든지 정치적조직생활을 할수 있으며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은 사회주의 제도를 세운 이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의미가 재규정되었다.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생산과제는 곧 혁명과업’이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등장한다. 이는 이 시기에 북한이 전 국가공동체의 모든 일상적 활동을 혁명과업의 수행으로 보는 시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계획 과제의 수행이 모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혁명임무가 된 것이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따라서 인민경제계획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은 경제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맡겨진 기본혁명임무입니다”

이에 따라 당의 역할에 대한 서술 또한 경제적 생산을 중시하는 표현을 담게 되었다. 당사업이 중요한 혁명과업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어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구체적인 개념과 논리는 다소 변화되었을 지라도 북한은 일관되게 경제적 생산을 혁명과업과 동일시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부터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대체한 것이 강성대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서 북한이 향후 풀어야 할 핵심 문제도 바로 경제 영역이다. 향후에 헌법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강성대국 건설’로 대체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북한에서 ‘주체혁명위업’은 헌법적 사명이다. 북한에서 모든 일상적 삶은 곧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무해설원은 단순히 ‘법무’를 ‘해설’하는 직역으

로만 볼 수는 없다. 북한에서 일상의 전 삶은 혁명과업이며, 경제적 생산을 비롯한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활동은 혁명과업 수행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모든 법을 보는 기본 전제이다. 농업법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조문에 직접 ‘혁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조문의 의미 내용을 혁명과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혁명과업 수행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일상적 삶을 ‘법’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주체의 법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사회의 전체 성원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법은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헌법 제18조)이다. 그 법에 대한 해설선전과 준법교양을 법무해설원들이 담당한다. 법무해설원은 북한이 스스로 표방하는 ‘공화국 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며, 준법교양의 직접적 담당자’를 넘어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최선두, 곧 혁명과업 수행을 ‘법’을 내세워 진두지휘하는 일선 지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부터 등장한다. 김일성의 언급에서는 1977년이 처음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라는 기관도 1977년에 김일성의 교시에서 처음 등장한다. 1982년 김정일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교시를 발표하기 이전인 1980년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이라는 관련 단행본을 발간한 바도 있다.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 북한에서 언제 처음 지정되었는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김일성 저작집에도 법무해설원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법무해설원에 상응하는 활동을 한 것은 문화선전성, 선동원 등이었다. 아마도 과거에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하던 준법 교양 활동이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이 정리됨에 따라 법무해설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전 단위 책임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법의 근본적 특징, 혁명국가

북한법의 근본적 특징을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법의 근본적 특징을 살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독일법, 일본법, 한국법은 모두 대륙법계로 분류되는데, 독일법, 일본법, 한국법 각각의 근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법제 이론만을 가지고 한 국가공동체 법규범의 근본적 특징을 보기는 힘들다. 이는 미국법, 독일법, 일본법, 터키법, 인도법, 이란법, 중국법, 러시아법 등 다른 나라 법의 근본적 특징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제 구분에 더하여 북한법을 보는 어떠한 시각이 추가되어야 하는가? 한 국가공동체 법규범의 근본적 특징을 살피고자 할 때는 그 국가공동체의 근본질서를 재편하게 된 계기가 된 근본적 정치적 변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프랑스법의 근본적 특징을 살핀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간통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혼이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느냐, 대통령제냐 아니냐, 양원제냐 하원제냐,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따위를 가지고 살핀다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프랑스법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구체제를 청산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법질서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라는 분류 기준에 더하여 대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어떤 근본적 변화가 법규범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독일법, 일본법, 한국법은 비록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근본적 특징은 혁명, 민주화운동, 쿠데타 등의 계기를 비롯한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 법을 기준으로 하면 1960년 5.16쿠데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승리 등이 법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한 정치적 변동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1945년의 패배 등이 국가공동체의 법규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정치적 변동이다. 독일의 경우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 나치의 집권이 그 계기가 될 것이며 터키의 경우 케말파샤의 근대화 혁명이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이전과는 단절된 법제도가 강요되었는데 이들 나라들은 1945년을 계기로 법제도의 근본적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혁명’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혁명으로 시작해 지금도 혁명을 하는 국가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북한 헌법 제32조)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오늘 우리 혁명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2009년 6월 18일 언급했다. 북한의 ‘혁명’ 발언은 늘 볼 수 있다. 김영남의 표현에 따르면 김정일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이다.

2009년 6월 12일 조선신보 또한 ‘혁명의 3세, 4세들의 사상정신 상태와 투쟁 기세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1세, 2세들과 다를바 없다’며 ‘혁명’을 언급하였다. 북한의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모든 문헌과 발표들을 살펴보면 ‘혁명’이 북한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1994년 사망하기 전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을 집필했다. 6권까지는 김일성 본인이 직접 검수를 하였고, 7-8권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해 ‘계승본’

이라는 부제로 발간되었다. 이 회고록의 맨 앞 서두에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온 일생의 총화이다. 김일성은 이 회고록에서 ‘혁명’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 또한 쥬기밥을 먹으며 쪽잠을 자며 혁명을 한다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국가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혁명조직과 같은 곳이다. 휴전선 이북과 두만강, 압록강, 동서해로 둘러싸인 북한 영역 내에 태어나면 새로운 혁명조직의 성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소년단원, 사로청원, 직맹원, 여맹원, 당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생활은 전 국가공동체의 일반 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혁명국가’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맞선 ‘동방초소’를 자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자신들이 혁명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법규범에는 북한의 혁명단계와 혁명논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법규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혁명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같은 것이다. 농업법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법규범에는 ‘혁명’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법규범은 북한의 혁명 단계에 따라 변화하였고 혁명의 이론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주의헌법이 그렇다. 법규범에 대한 ‘혁명’의 반영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 헌법(1998년 수정보충된 것을 기준으로 함)을 살펴보면, ‘혁명’이라는 표현이 무려 25회나 언급된다. 서문에서 7회, 본문 조항에서 18회가 언급된다. 서문에는 굵은 글씨로 ‘김일성’이 17회 언급되어 ‘혁명’보다 더 많이 등장하지만, 이 또한 김일성의 혁명이기 때문에 ‘혁명’ 개념으로 연결된다.

‘혁명’의 개념은 헌법뿐 아니라 개별 법령들에서도 수시로 등장한다.

토지법(1977년 채택, 1999년 수정) 제1장의 제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1조는 이를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혁명단계’(제1조), ‘농업협동화방침’, ‘전국적 농업혁명’(제2조), ‘혁명선열’, ‘혁명정신’(제3조) 등의 표현들이 계속 등장한다. 이 법 또한 국가가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

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국가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철도법(1987년 채택, 1999년, 2000년 수정보충) 제2조도 철도가 ‘중요산업국유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노동법(1978년 채택, 1986년, 1999년 수정) 제6조는 ‘근로자’를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규정한다.

북한법은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38선 이북을 장악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가를 자임하는 세력이 창조한 법규범이다. 북한은 건국 초기에는 기존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혁명 경험에서 나온 법규범을 대거 계승하였지만, 1972년 사회주의헌법 이후부터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독창적 혁명노선에 기반한 법규범을 많이 창조하였다.

북한법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지만,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는 다른 새로운 문명의 창조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핵심 개념은 바로 ‘혁명’이다. 북한법에서 ‘혁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법의 큰그림을 그릴 수 없다.

당연히 북한에도 분쟁 해결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 국가기구의 조직과 개인의 인권을 규정한 법이 있다. 북한 주민들도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취득하며 자라면 학교에 다니고 결혼을 한다. 고용관계를 맺고 국가기관에 의사표현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0개 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법이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법에는 ‘혁명’이 있다.

3. 농업법과 혁명

앞에서 농업법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농업법 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법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혁명’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북한에서 ‘농업은 인민경제 2대 부문의 하나’(농업법 제2조)이다. 경제적 생산은 곧 ‘혁명’ 활동이기 때문에 농업도 마찬가지로 혁명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전개한 논리는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농업 분야는 다른 ‘국가관리’ 분야와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현재로선 없다. ‘농업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농업법 제2조)인 것이다.

국가는 국가공동체의 전 구성원들을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농업법 제5조의 ‘농업 근로자들’도 당연히 ‘혁명가’다. 농업법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혁명’을 ‘농업근로자들’과 연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법 제5조를 예로 들어 북한법 조문을 선언적으로 보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개인의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회협동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농업법 제5조에 언급된 ‘농업근로자들’은 이에 더해 농업 분야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혁명가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농업근로자들’은 ‘근로자’이기에 ‘사회주의로동법’의 기본 적용 대상이다. 다른 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법 제5조의 구체적인 의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제1조) 것과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가 굳건히 다져졌다’(제3조)는 두 가지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했고 지금도 사회주의는 내릴 수 없는 기치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첫 저작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였다.

농업법은 토지법이나 철도법과는 달리 직접 ‘혁명’을 반영하고 있는 조문은 많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제1조),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제3조) 이외에 더 찾아보면, ‘사회주의적 경리형태’, ‘국영경리’, ‘협동경리’(제4조), ‘주체 농법’(제7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제9조), ‘사회주의분배원칙’(제74조) 등이다.

그러나 직접 ‘혁명’이라는 개념을 직접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농업법 또한 혁명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옳다. ‘농업법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된 제1장에서 제4조와 제8조는 단적인 예가 된다.

제4조는 ‘협동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는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담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법은 토지와 농업의 국영경리 전환을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영경리로 전환 되면 국영농목장이 된다. 북한 농업에서 혁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북한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기술혁명의 과제 중 하나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법의 다른 조문들도 ‘혁명’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정확한 의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V. 결 론

이 글은 북한 농업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북한법의 성격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해 보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북한법을 보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던지고, 북한법이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법의 근본적 특성을 규명했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의 농업법을 보는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와 농업법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의미, 북한 농업법의 근본적 특성을 살피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농업법의 조문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농업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농업법은 법 조문만으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농업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농업의 현황과 연혁에 대한 연구, 북한 농민의 삶에 대한 연구, 북한 농촌의 실제 모습에 대한 연구와 같은 농업 분야 북한학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개별 법의 조문의 의미 내용과 교차 분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밝히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헌법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서문)으로 명기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북한 농업법의 원칙과 주요 내용 및 체계가 생성되게 된 메커니즘과 원리를 정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긴급한’ 국가적 정책 과제는 아닐 지도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권영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서울 : 이매진, 2011.
 권영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통권 제3호, 서울 : 법무부, 2010.
 심형일, 『주체의 법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장명봉 편, 『2008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8.
 『김일성저작집』 각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6.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모든 역량을 농촌지원전투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로동신문 5.25)
 -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에서도 알곡을 비롯한 농산원료가 많아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음. 쌀이 곧 국력이고 알곡증산이자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라고 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해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올해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함.
 - 농촌경리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 지원을 확고히 앞세우고 농촌에 영농설비와 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을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장악하여 해당 성, 중앙기관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김없이 보장하는 엄격한 질서와 규율을 세우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전력과 연유, 비료와 농약, 트랙터 부속품을 비롯한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제때 원만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농촌지원전투조직사업을 계획하여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앞그루작물 가을걷이 준비를 다그치자 (로동신문 6.1)
 - 올해 각지 농촌들에서는 당의 두벌농사 방침에 따라 앞그루로 밀, 보리, 감자 등의 작물을 많이 심은 만큼, 앞그루작물 가을걷이 준비를 미리 잘해놓아야 곡식을 손실 없이 거두어들이 수 있으며, 뒤그루 작물 심기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농장일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작전과 지휘를 잘해 불리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을걷이 적기 판정을 잘한데 기초하여 날짜별, 포전별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

-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준비를 실속 있게 세우고 농장 실정에 맞는 운반수단들과 소농기구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중소농기구 준비도 빈틈없이 해야 함. 아울러 거두어들인 밀, 보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말리지 않으면 썩이 나오거나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탈곡장 바닥과 건조로, 창고 등을 잘 보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 단위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필요한 영농물자를 제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로동신문 6.27)

-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을 세워 성과를 이루고 있음.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장마철 날씨와 관련한 기상예보 자료들을 제때 아래 단위들에 내려 보내주는 동시에,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요 저수지들과 물길에 대한 보수대책을 세우고, 연관단위들에서 그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리원시, 은파군 등 시, 군들에서는 책임일꾼들이 협동농장에 자주 내려가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에게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 농작물의 피해와 토지유실을 막을 수 있게 했으며, 수안, 연산, 인산군에서는 강냉이밭에 새끼줄을 쳐주고 밭고랑의 깊이와 이랑의 높이를 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는 사업에 힘쓰는 등 포전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음.

○ 병충해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로동신문 6.30)

- 병충해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는 것은 올해 농사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병충해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
- 그러기 위해서는 예찰·예보체계를 빈틈없이 세워, 포전조건에 맞게 예찰구역을 바로 정하여 병해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방역대책을 전망 있게 세워야 하며, 각지 식물방역소의 병해충 발생 동태를 잘 감시하고 보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제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알맞은 농약을 미리 준비하여 뿌리썩음병이 발생할 수 있는 논에서는 논물말리기와 고인물

빼기를 제때 하여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하며, 효능 높은 생물농약을 많이 만들어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과학영농

○ 효능이 높은 성장촉진제 (로동신문 4.17)

- 덕천시 평화협동농장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새롭게 연구해 낸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여 온실 오이작황에서 큰 수확을 거두고 있음. 이 성장촉진제를 이용한 이후 오이종자의 발아율이 높아지고 초기생육이 좋아졌으며, 개당 무게가 증가하였음.
- 이 성장촉진제는 농약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병을 미리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며, 원가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 앞선 수직파재배방법과 기술 개발 (로동신문 5.10)

-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의 일꾼과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선 수직파재배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음. 수직파재배방법이 높은 수준에 올라섬으로써 논벼생육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간석지 논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땅에서도 적은 노동력으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수직파를 넓은 면적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싹틔우기로부터 물 관리, 비료 및 농약 치기 등 재배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가고, 앞선 씨뿌리기 방법과 그에 맞는 씨뿌리는 기계를 창안, 도입하는 등 앞선 수직파재배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논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물질·기술적 담보를 마련하였음.
- 농장들에서는 이 기술과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간석지 논에서는 물론 벼뿌리가 썩는 병이 발생하는 포전들과 지력이 낮은 땅, 생육후반기의 여러 생리적 요인으로 인해 알곡수확고가 떨어지는 현상이 심한 논에서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복합액체비료로 가뭄피해를 막은 비결 (로동신문 5.10)

- 올해 봄철에는 수십일 간 비가 적게 내려, 서흥군의 협동농장에서는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유기광물질복합액체비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앞그루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음.
- 서흥군에서는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여 참가자들에게 유기농법의 우월성, 복합

액체비료의 효과성과 분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 일꾼들은 한 개 농장씩 맡고 나가 종자처리장들에 생산기지를 꾸리고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면서 노동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질 좋은 비료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농장마다 여러 가지 원료들을 공급해주고 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 그 결과 농장들에서는 복합액체비료 생산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고 언급함.

○ 실리 있는 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 (로동신문 5.10)

- 염주군 용북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을 전 면적에 받아들일 목적 하에 많은 우렁이를 생산하여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음. 농장에서는 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이 많은 노동력과 농약, 화학비료를 절약하면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증하였음.
- 농장에서는 영양상태가 좋은 종자 우렁이를 선택하고, 이에 맞게 관리공들이 온습도 보장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 우렁이들의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도록 하였음. 아울러 비닐박막을 씌운 야외양식장을 더 건설하고, 우렁이를 대대적으로 길러 좋은 성과를 담보하였음.

○ 농업생산과 경영의 정보화를 적극 실현 (로동신문 5.12)

- 농장에서는 노동력 관리, 자재관리를 비롯한 경영활동에 정보기술을 받아들여 농장원들의 출근일지를 작성하는 것부터 지령에 이르기까지 경영관리의 큰 부분을 컴퓨터로 하게 되었다고 함. 이에 망을 통해 작업반에서부터 관리위원회에 들어온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처리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지령체계를 더욱 완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농장에서는 필지별 전자지도 자료기지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영농공정추진 정형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음. 농작물의 생육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에서는 컴퓨터 망을 통해 농작물 생육조사 자료들이 종합지령실에 집중되고 그에 대해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생산지휘체계가 확립되었음.
- 아울러 농장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전자열람실이 있어 여기서 농장원들이 컴퓨터 망을 통해 임의의 과학기술 도서들과 최신과학기술자료, 각종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음.

2. 벼농사

☐ 농사차비

- 논밭갈이를 본격적으로 (로동신문 4.29)
 - 각지 농촌들에서 논밭갈이에 힘쓴 결과,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논갈이 실적은 1.4배, 밭갈이 실적은 1.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함.
 - 각 도, 시, 군에서는 불리한 날씨 조건 속에서도 논밭갈이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부속품, 기름 등을 제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 평원군에서는 토양조건에 맞게 트랙터와 부림소를 적극 배합하면서 농장원들이 한 평의 논밭이라도 질적으로 갈아엎도록 하고 있음, 특히 봄철 기후가 건조한 조건에 맞게 포전별로 선후차를 가려 논밭갈이를 질적으로 하여 가뭄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함경북도 농장들의 경우, 대용연료로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여 논밭갈이를 성과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평안북도 박천군에서는 트랙터에 대한 점검보수를 철저히 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논밭갈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 씨뿌리기

-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4.13)
 - 정주시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알곡증산을 위한 당면한 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 농촌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음. 이에 시급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에서는 수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의 포전들에 실어내고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시의 협동농장에서는 지난 3월 말까지 수로청소사업을 끝내고 모든 양수설비들을 수리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음. 아울러 협동농장에서 기술전습을 조직하여 농장원들이 종자소독의 중요성과 기술적 요구를 인지하여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트랙터 출동식과 농기구전시회, 부림소 품평회를 진행하였음.
 -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배치를

잘하고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과학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 씨뿌리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제때 보장되도록 힘쓰고 있음. 아울러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부식토와 복토재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었음.

○ 밀, 보리 씨뿌리기 한창 (로동신문 4.20)

- 양강도 김형권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밀, 보리 종자를 햇볕에 말리고 고르는 작업을 잘 수행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대흥단군에서는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적기에 씨앗을 묻고 있음.
- 백암군에서는 밀, 보리 면적이 넓은 조건에 맞게 사업을 크게 진행하였으며,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씨뿌리기에 힘쓰고 있음.

○ 강냉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심자 (로동신문 4.24)

- 각지 농촌들에서는 강냉이 심기가 시작되었는데, 농촌경리 부문 당조직과 농업 지도 기관에서는 알곡 증수를 위해 강냉이 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강냉이 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직파재배는 씨앗이 싹틀 수 있는 땅속 온도와 습도의 조건을 고려하여 심는 시기를 과학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의 경우, 마지막 서리가 내린 다음부터 시작하여 품종과 재배방법에 따라 소출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야 한다고 언급함.
- 강냉이 씨앗을 젖은 흙에 심고 다져주기를 정확히 하며, 씨앗을 묻는 깊이를 균일하게 보장하여 강냉이가 싹틀 때 층하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강냉이 영양단지모를 뜨기 전날 모판에 물을 충분히 주고 뜨며, 밭에 물기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힘써야 함.

○ 큰모재배의 우월성 (로동신문 4.30)

- 큰모재배는 벼가 자라는 절반 정도의 기간을 모판에서 키워 해당 포전의 목표 이삭수를 이삭당 알 수가 많은 밀아지로 확보함으로써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다수확논벼재배기술임. 모내기를 한 다음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이 절약되고 물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판농사라고도 함.
- 큰모재배는 북한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논벼농사에서 집약화를 실현하여 알곡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월한 농사방법이라고 설명함. 큰모를 재배하면 논에서 두벌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데, 모판에서 모를 크게 키워 모내기를 하면 포전에서 지라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수확고가 낮은 올종대신 중간종, 중간늦종 등 다수확 품종을 뒤그루로 심어 논벼소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앞그루 밀, 보리, 감자의 생육기일을 제때 보장하여 앞뒤그루에서 모두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며, 논두벌 농사에서 큰모 씨뿌리기는 5월 상순에, 모내기는 6월 하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함.

- 큰모재배는 냉습지, 지하수위가 높은 논, 생육후반기에 생리적 요인으로 소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심한 논에서 4월 중, 하순에 큰모 씨뿌리기를 하여 6월 중순경에 모내기를 하면 평당 이삭수가 확보되고 병충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논벼농사에 불리한 논과 지대들에서 논벼소출을 높일 수 있게 함. 아울러 자연성 냉해가 심한 동해안 지구에서 냉해로 인한 수확고 감소와 미숙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물 코끼리벌레와 벼잎파리의 발생시기가 지난 다음 모내기를 하므로 살충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데서도 큰모재배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함.

○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 시작 (로동신문 5.4)

- 각지 농촌들에서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시작되었음. 황해남도의 해주시와 삼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 일정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고, 그 뒤를 이어 연안군과 안악군, 신천군 등에서도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면서 강냉이 영양단지모를 옮겨 심고 있음.
- 사리원시, 은파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영양단지 만들기와 씨뿌리기를 끝낸데 기초하여 모 옮겨심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강냉이 밭 면적이 넓은 황주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는 밭갈이와 이랑을 만드는 것을 통해 실적을 거두고 있음.

○ 실한 모에서 실한 이삭이 나온다 (로동신문 5.9)

- 올해 봄 날씨가 예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리한 날씨조건에서 벼모를 실하게 키워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음. 지난 시기보다 비닐박막을 늦게 벗겼다가 저녁에 빨리 씌우는 것, 보조수원들에 며칠 동안 잡아두었던 물을 모판에 주지는 것, 물거름과 구들재를 이용해 모판온도를 높이는 것 등 벼모를 실하게 키우기 위한 여러 방도가 제시되었음.

- 기술일꾼들이 예견되는 날씨에 맞게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고 모판관리에 힘써, 모판에서 벼모가 충하 없이 잘 자라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판관리에 힘 써 올해 모내기를 적기에 성과적으로 해내겠다고 언급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 (로동신문 5.11)
 - 모내기는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으로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할 때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전반적인 알곡 생산을 늘일 수 있으며,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힘써야 하며,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이 모내기 전투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농업성에서는 도, 시, 군들의 모내기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아래 단위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과학기술적 지도를 앞세워야 함. 아울러 도, 시, 군 농업지도기관들은 기술적 지도와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협동농장들에서 모든 영농작업이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기계 이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 트랙터 운전자들은 기계 정비와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 논갈이와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워야 함. 아울러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농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모내기 전투에 필요한 노동력과 설비,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전력을 무조건 보장하며, 화학비료와 농기계 부품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강냉이 심기 마감단계, 모내기 시작 (로동신문 5.12)
 - 황해남도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 심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는 동시에 적기를 바로 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였음. 도 내 기관, 기업소의 수많은 일꾼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 주민들도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농촌 지원에 힘쓰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불리한 봄 날씨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모내기를 시작한 옹진군 국봉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고 일꾼들에게 주체농법의 요구를 인식시켰음. 특히 모내기에서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 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하며, 강냉이 심기를 빨리 끝내 모내기 일정계획 수

해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세웠음.

-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모내기가 시작된 데 맞게 도의 농촌당 조직들에서 선전 선동 역량을 포전에 집중시키고 방송선전, 직관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씨레치기의 질이자 모내기의 질 (로동신문 5.22)

- 경지협동농장에서는 다른 농장들보다 씨레치기의 질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면적의 논에 영양냉상모를 키워 모내기를 하고 있음. 이 농장에서는 씨레를 치기 전에 논판에 물을 많이 대주어 흙덩어리들이 잠기게 하고, 흙이 푹 젖은 다음에는 물을 어느 정도 뽑고 씨레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때 논 배미의 중심에서부터 점차 논두렁 방향으로 나오면서 씨레를 침.
- 트랙터를 통해 씨레치기가 끝나면 몇 명의 농장원들이 논판에 들어가 고무레로 다시 수평을 맞추고 이후 부림소로 씨레를 치면서 포전에 생긴 발자국자리를 없애며, 흙양금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진 다음에 모를 내고 있음. 이처럼 모내기가 과학 기술적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로동신문 5.23)

- 연백별 안의 당, 행정일꾼들이 협동별에 나가 당면한 영농전투로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선전선동 역량이 총집중된 협동별에서 모내기 전투가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함. 이곳 농업부문 일꾼들은 빠른 기간에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영농사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통해 영농물자 보장과 농업근로자, 지원자의 생활조건 보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청단군 내 농장들에서는 모가 잘 자란데 맞게 모내기에서 기계화 비중을 최대한 높이면서 모뜨기 조직도 합리적으로 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남촌, 구월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포전별, 날짜별 모내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영농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일정계획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 연안군에서는 본격적인 모내기에 들어가기 전에 강냉이밭 1회 김매기와 후치질을 끝낸데 이어 군의 모든 역량을 모내기 전투에 총동원하고 있으며, 배천군에서는 군 내 농촌들의 모판관리공들이 온도관리, 물관리, 통풍조건 보장을 책임 있게 하여 모내기를 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모내기를 끝내고 김매기에 역량 집중 (로동신문 6.15)
 - 평양시의 농업부문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올해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역포구역이 5월 30일까지, 용성구역과 사동구역, 만경대 구역이 6월 3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냈으며, 논 면적이 가장 넓은 강남군의 협동농장과 낙랑구역의 농장에서도 6월 5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루었음.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모든 농장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김매기전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영농지도를 수행하고 있음. 낙랑구역과 사동구역, 강동군에서 김매기 전투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3. 밭농사

☐ 이모작 동향

- 앞선 두벌농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4.28)
 - 곡산군에서는 해마다 강냉이와 감자 두줄모아심기 방법을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두줄모아심기 방법은 농작물의 생육기일과 키, 바람 및 일조율을 고려하여 겹재배 방법으로 두벌농사를 짓는 집약농법이라고 설명함.
 - 지난 시기 강냉이를 두줄로 모아 심으면 강냉이와 감자포기 사이의 공간이 보장되어 작물 사이의 생존경쟁이 약해지고, 강냉이 줄 사이의 넓은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되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뿌리의 기능이 높아지고 영양물질 흡수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함.
 - 지난 해 평안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는 강냉이를 두줄로 모아심고 앞그루로 감자와 봄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가을감자를 심는 겹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함.

☐ 콩농사

- 당의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5.18)
 - 최근 몇 년간 콩을 원그루로도 심고 사이섞음그루 또는 겹재배 방법으로도 심었

는데, 그 과정에서 콩농사는 겹재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확증하고 올해 겹재배 방법을 많이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겹재배 방법을 수용한 이후 부침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일조율도 높고 통풍조건도 잘 보장되어 강냉이 농사는 물론 콩농사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었음.

- 뒤그루 콩농사에서 앞그루감자를 심었다가 감자를 캔 후 뒤그루 콩을 심었는데 결실이 좋았음.
- 군에서는 콩농사 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일꾼들을 현지에 내려보내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준비를 앞세우면서 적지선정을 바로 하도록 하였고, 포전마다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 지력을 높이며 관수대책을 따라 세우게 한 결과, 군 내 모든 농장들에서 콩농사 준비를 빈틈없이 하게 되었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정책

- 실리 있는 감자종자생산방법 (로동신문 4.28)
 - 삼수군 신회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들은 올해 감자농사 생산방법을 계획하면서 무비루스 감자종자를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였음.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량을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완성하였음.
 - 농장일꾼들은 농장의 감자농사에 필요한 종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재배면적을 정하였으며,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의 중요성을 농장원들에 강조하는 등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에 힘썼음.
- 대규모감자산지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6.2)
 - 지난 해 5월 백암땅을 방문한 김정일은 최근 대흥단군을 비롯한 여러 산간지대들에서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백암군에 대규모의 감자농사전문농장을 꾸리면 해마다 막대한 양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어 농장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따라 백암군을 감자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토지개간에 동원된 양강도 돌격대원들은 수백정보의 땅을 개간하고 진흙과 니탄 등으로 흙갈이를 하여 기름진 포전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양강도 돌격대에서는

기계화 수단을 보충하여 덕포지구의 모든 포전을 개간정리하고 토지개량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바람막이 숲조성과 포전정리 등에도 힘쓰고 있음.

- 아울러 양강도에서는 백암군의 농장에 감자산지의 주인들이 살게 될 수백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 주택들을 세우기도 하였음.

□ 감자농사 준비

- 북부고산지대에서 감자심기 시작 (로동신문 5.6)
 - 북부고산지대 감자산지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봄철일기조건에 맞는 앞선 재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감자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 트랙터 운전수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열의를 발휘하여 감자심기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흥, 홍암, 신태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의 기계화초병들은 농기계들을 소중히 다루며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삼지연군, 백암군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도 감자심기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적을 올려나가고 있음. 이들은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종자 실어나르기를 앞세우면서 계획을 제때 수행해나가고 있음. 백암군에서는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감자심기에서 속도와 질을 높여나가고 있음.
- 백두삼천리별이 감자심기로 들끓는다 (로동신문 5.14)
 - 신태농장의 일꾼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 맞게 감자심기를 잘 하기 위해 포전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았음. 아울러 농기계의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유리한 포전들에서 먼저 감자심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다시 세웠음.
 - 백산농장에서는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영양액을 받아들여 감자종자 처리와 비배관리에 이용해 왔음. 이 영양액은 비배관리에 이용하여도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남. 감자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피려는 시기에 잎덧비료로 이 영양액을 주었더니 정보당 수확고가 거의 2배나 높아졌음. 이후 백산농장에서는 올해에 이 영양액을 확보하는 사업에 앞장서고, 종자단계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축 산

☐ 축산동향

- 염소젖생산을 늘인다 (로동신문 5.16)
 -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계남목장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올해 새끼염소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계남목장 축산 제1분장의 방목공들은 이동방목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음. 축산 제2분장의 일꾼과 방목공들도 분조별 풀판구역을 타고 앉아 영양가 높은 먹이를 골라가며 순환식으로 이동방목을 하고 있으며, 날씨 조건에 따라 방목을 조직하여 염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른다 (로동신문 5.28)
 - 두만강 기슭에 자리 잡은 무산군 두만협동농장일꾼들은 지난 기간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초식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초식가축 사육 목표를 예견성 있게 세우기 위하여 주변의 산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방목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내고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아울러 이동방목을 하는 조건에 맞게 초식가축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힘씀.
 - 이후 농장의 주변 산에는 방목지들이 생겨나고 소와 양, 염소 등 초식가축을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음. 농장에서는 올해에 더 많은 고기와 우유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초식가축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음.
- 농사성과를 담보하는 튼튼한 축산토대 (로동신문 6.12)
 - 연탄군 수봉협동농장에서는 첨가제를 이용한 먹이가공방법과 앞선 사양관리 방법을 받아들인 이후 돼지마리수가 증가하면서부터 유기질 비료 생산량이 급격히 올랐음. 염소, 오리, 토끼 등 여러 가축들을 기를 수 있게 가축우리를 더 건설하였고, 작업반 내의 모든 농장원 세대들에서도 돼지, 오리, 닭, 염소 등을 더 많이 키우도록 하여 축산에 힘쓴 결과 유기질비료 생산도 잘 되었음.
 - 아울러 여러 가지 겹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네이랑은 강냉이를 심고, 두이랑은 앞그루 감자를 심었다가 뒤그루로 콩을 비롯한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부침땅의 지력이 높아 그 어느 작물에서나 소출이 좋아졌음.

○ 돼지목장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6.24)

- 김정일은 지난 해 5월 백암군 덕포지구에 일어서고 있는 대규모의 감자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감자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종자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과 함께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지력을 높이고 관수체계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후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백암땅에 일어서는 대규모 감자산지에 현대적인 돼지목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김일성고급당학교, 내각사무국, 보건성, 만수대창작사, 인민경제대학, 출판지도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자재를 제때 보장하면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 계획한 돼지목장 건설을 완전히 끝냈음.
- 새로 건설된 돼지목장들은 건설물의 질이 높으며, 내외부시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있고 모든 생산 공정이 지대적 특성에 맞게 과학화, 집약화 되어 있으며, 돼지목장들에는 먹이가공실, 어미돼지칸, 새끼돼지칸, 야외방목장과 물거름 탱크 등이 설치되었음.

6. 농업기반

☐ 토지정리, 국토관리 사업

○ 부침땅 면적을 늘인다 (로동신문 4.17)

- 자강도에서 농경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힘쓴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유실되었던 토지를 복구하고 밭의 돌을 걸러내었으며, 천 수백 정보의 새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함.
- 자강도의 시, 군 일꾼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새 땅 개간대상지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노동력과 기계들을 집중하여 더 많은 새 땅을 찾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유실된 토지를 복구하는 사업에서 강계시, 희천시, 송원군, 용림군, 만포시 등이, 새 땅 찾기 사업에서 강계시, 화평군, 만포시 등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새 땅 찾기 실적은 현재 계획의 90%계선을 넘어섰고, 유실된 토지를 복구하는 투쟁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언급함.
- 자강도의 농업부문 일꾼들은 새로 찾아낸 농경지에서 올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대책을 세웠으며,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에 나가 새로 찾아낸 농경지에 자급비료와 흙보산비료, 소석회를 더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 거리와 마을마다 아름다운 꽃 풍경을 (로동신문 5.13)
 - 사리원시에서는 지난 해 연간 수십만 포기의 화초를 생산할 수 있는 온실을 건설하여, 거리와 마을, 화단을 장식할 수 있는 꽃들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놓았음. 이곳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봄철을 맞아 꽃 장식을 위한 화단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음.
 - 시내의 거리에는 고정식 화대들이 건설되고 이동식 화대들이 설치되었으며, 도로 옆 녹지구역에는 특색 있는 화단들이 조성되었음.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 일꾼들은 시내중심에 자리 잡은 백화점 주변과 민속거리 주변 등에 나가 꽃을 가꾸고 화분을 관리하는데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음. 아울러 시내의 기관, 기업소에서 100여 개의 고정 및 이동식 화대들의 관리를 책임 있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토관리 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 (로동신문 5.15)
 - 함경남도에서는 국토관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도 안의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넓은 면적에 나무를 심고 강하천정리와 도로정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리고 수백리에 달하는 주요도로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을 힘 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었음.
 - 단천시와 리원군, 함흥시 회상구역, 신포시, 낙원군, 영광군, 흥원군을 비롯한 시, 군, 구역들에서는 도로를 평탄하게 하고 방대한 옹벽공사를 시행했으며, 도로표식물을 만들어 설치하였음.
 - 함흥시 안의 기관, 기업소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함흥대극장, 함흥경기장, 함흥문화전시관 주변을 비롯한 주요거리들, 공원과 유원지, 마을에 정비나무, 측백나무를 비롯한 수십만 그루의 나무와 꽃들을 심어 시를 공원 속 도시로 더 잘 꾸리는데 기여하였음.
- 광산간석지 2단계공사 적극 추진, 8개 섬을 연결 (로동신문 6.15)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일꾼과 노동자들은 광산간석지 2단계공사를 끝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광산간석지 2단계공사에 나선 연합기업소 일꾼과 노동자들이 5월 말 현재 3,500여m의 방조제 1차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8개의 섬을 연결하였음.

- 아울러 정초부터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방조제 총 공사량의 35%에 해당하는 1차 물막이를 진행하고 내부와 외부에 돌을 입히는 전투에 진입하는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연합기업소에서는 광산간석지 2단계 공사를 빨리 완공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세우는 한편 여러 개의 섬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 연합기업소 참모부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해 수리기지들을 전투현장에 접근시키고 운수기재와 설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들을 제때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러 대의 압축기와 발동발전기를 현장에 전개하여 공사에 필요한 압축공기와 전기를 제때 보장해주어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되도록 하고 있음.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물길굴 공사장에 차넘치는 혁신의 기상 (로동신문 4.12)
 -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일꾼과 건설자들은 4월에 들어와 물길 공사를 끝냈음. 특히 공사의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맡은 원산시 여단 일꾼과 건설자들은 물이 차오르는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게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물을 처리하고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굴착과제를 끝냈음. 또한 여단에서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과제를 1.5배 이상 빨리 수행하여 공사 마감일을 앞당겼음.
 - 법동군 중대에서는 암질이 불리한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공법들을 받아들여 굴착과제를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공사기간에 도급기관과 원산시, 법동군의 일꾼, 근로자, 여맹원들은 공사장에 나와 경제선동을 벌이고 일도 같이하면서 건설자들을 격려하였음.
- 물길굴공사 90%계선 돌파 (로동신문 4.30)
 - 군인건설자와 성, 중앙기관,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희천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물길굴 공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조선인민군 김웅철 소속부대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아래 여러 여단들에서 맡은 대상공사를 전부 끝냈으며, 조선인민내무군 환경국소속 부대에서 물길굴 피복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과제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황해남도여단과 철도성 여단의 일꾼, 돌격대원의 경우, 완공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양의 시멘트와 자갈, 모래 등 공사용 자재들을 갱 안으로 운반해두는 등 물길굴 피복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로동신문 4.30)
 - 5월에 가뭄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측되고, 물을 많이 쓰게 될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물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지 관개관리소와 농장에서는 흐르는 물과 빗물을 모아 저수지와 저류지에 채워야 하며, 곳곳에 물주머니를 만들고 하천과 개울에 보막이를 하며, 저수지제방과 물길보수에 주력하는 등 더 많은 물을 모아두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함.
 - 모든 농장에서는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색에 맞게 분수식 관수, 짝지발식 관수, 고랑관수 등 여러 가지 관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간석지 논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에도 힘써, 관수설비와 관수시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함.
- 희천발전소 물길굴 공사 마감단계 (로동신문 5.26)
 - 희천발전소 건설에서 물길굴공사 실적이 92.8% 계선에 들어서 완공을 앞두고 있음. 조선인민군 김웅철 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홍순철, 한경국소속 부대들이 맡은 물길굴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아래 여러 단위들과 황해남도, 평안남북도 여단, 철도성 여단들이 갱피복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아래 여러 여단들과 황해남도, 평안남북도 여단들, 철도성 여단의 일꾼과 돌격대원들은 이미 갱피복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이후 혼합물 주입, 갱밀폐를 위한 공사에 힘쓰고 있음.

7. 산림

☐ 산림조성 및 보호

- 산림보호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 있게 내밀자 (로동신문 5.6)
 - 벽성군에서는 지난 기간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에 힘써 수천정보의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음. 이후 산림보호 사업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산림감독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산림자원을 잘 알도록 하고, 산불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음. 아울러 산을 끼고 있는 모든 단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산림감독원들과의 연계 밑에 산림보호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음.

- 북창군에서는 산불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봄철의 특성에 맞게 산림보호 사업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산불 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막이선들에 있는 마른 나뭇잎과 풀을 말끔히 걷어내 조그만 산불요소도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나무모 생산

-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로동신문 5.13)
 - 도시경영성 아래 각지 양묘사업소, 양묘장에서는 도시녹화에 이바지 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이에 지난해보다 양묘장 면적이 늘어나 나무모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그 품종수도 늘어났음.
 - 규모가 큰 성양묘장에서 나무모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이곳 일꾼과 근로자들은 포전들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양수기를 비롯한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올해에 들어와서도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을 많이 생산하여 각 도에 보내주었음. 이들은 나무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종별로 나무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였음. 이후 수백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으며, 특히 녹지형성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잔디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상원묘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모 생산에 박차를 가해, 수삼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한 나무들과 사철 푸른향 나무, 종비나무, 녹지장식용 키낮은 나무들, 꽃관목 등이 자라고 있음. 각 도소재지들의 양묘사업소와 시, 군의 양묘장들에서도 나무모 파종을 끝내고 김매기, 비료주기를 다그치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수

- 100여만 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를 (로동신문 4.21)

- 각 도인민보안국 돌격대원들은 올해 봄철에 들어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새로 토지 정리된 포전들에 100여만 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를 심었음. 이에 우량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 밭 면적이 새로 수백 정보 늘어나게 되었음.
 -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등의 인민보안국 돌격대원들이 키낮은사과나무의 활착률을 100%로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나무심기에 힘쓴 결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00여만 그루의 키낮은사과심기를 끝냈음.
- 600여 정보의 청춘과원 새로 조성 (로동신문 5.2)
-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철에 고산과수농장에는 현대적인 키낮은사과나무 밭 면적이 600여 정보 더 늘어났음. 618 건설돌격대 일꾼과 돌격대원들은 수백만^m의 토량을 처리하고, 짧은 기간에 2단계 토지정리를 질적으로 완성하였음. 강원도의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과일나무 구덩이파기와 유기질비료 넣기를 4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도 하였음.
 - 고산과수농장 일꾼들은 수백만 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를 적기에 심기 위해 조직정치 사업에 착수하여 농장에서 모든 분장, 작업반들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키낮은사과나무를 심는데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들을 잘 지도하였음. 아울러 심은 나무들의 활착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가뭄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함.
- 12만 그루의 감살구나무를 퍼뜨렸다 (로동신문 5.12)
- 신평군에서 약 10년 전에 처음 감살구나무를 퍼뜨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황해북도뿐만 아니라 많은 혁명사적지와 인민군부대, 황해남도, 평안남북도에도 뿌리를 내려 현재 12만 그루에 달하고 있음.
 - 신평군에서는 읍협동농장에 묘목분조를 조직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과수학을 전공하는 교사, 학생들과 지혜를 모아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썼음. 아울러 종자채취와 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감살구나무모의 생산량을 점차 늘려나갔음.
 - 군 일꾼과 근로자들은 나무모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이를 전국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군 안의 어디에나 정원과수, 가로수로 많이 심고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군 소재지는 물론 군 곳곳에 감살구나무가 숲을 이루어 이른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음.

○ 평북 땅에 청춘과원이 일어선다 (로동신문 5.17)

- 당의 구상에 따라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의주시에 위치한 송한과수농장의 경우, 올해에만 160여 정보의 과수밭이 새로 조성됨으로써 원흥땅의 백리과원을 방불케하는 전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언급함.
- 시당위원회에서는 당, 정권기관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강력한 지도역량을 농장에 파견하였으며, 책임일꾼들은 자주 현지에 나가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고 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진취적인 사업을 힘 있게 지원하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하였음. 과수연합총회사의 일꾼들은 자주 현지에 내려가 농장을 꾸리는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이들의 기술적 지도와 방조에 의해 사과, 추리, 배, 복숭아, 살구 등 다양한 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남새

○ 봄 남새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 (로동신문 5.4)

- 사동구역 미림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들은 봄 남새 비배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잘 해나가고 있음. 농장의 일꾼들은 봄 남새모 옮겨심기를 전투적으로 끝낸 이후 김매기와 덧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농장원들을 조직·동원하였음. 아울러 남새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남새제2작업반원들은 김매기와 덧비료주기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농장들에서도 트랙터 운전수와 부림소 관리공의 역할을 높여 도시거름 실어들이기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 또한 양수설비들에 대한 점검사업에도 힘써 관수체계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음.

○ 과학적인 남새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6.15)

-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는 예년에 비해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거름을 포전마다 듬뿍 실어내어 남새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기여하였음. 아울러 시금치영양단지모를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종자와 노동력을 절약하고 생육기일을 단축하면서도 수확고를 높이게 되었음. 이와 함께 시금치 밭에 배추를 사이그루로 심어 땅의 이용률을 높이면서도 많은 남새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아울러 포전에 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쳐서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였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첨가제와 유기질복합비료를 적합하게 배합하여 밭에 뿌려 놓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었음. 또한 지난 시기 두 번 이용하던 비닐박막의 회전을 다섯 번으로 늘여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짧은 기간에 높은 수확을 거두었음.

□ 버섯, 약초

○ 많은 버섯을 생산한다 (로동신문 4.28)

- 북창버섯공장에서는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느타리버섯, 참나무버섯 등 여러 가지 버섯을 생산하여 군내 주민들과 탁아소, 유치원 등에 공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버섯 기르기에 필요한 기질을 많이 생산하여 군 내 사회급양망과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고 있음.
- 이 공장은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안전하게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한 해 수십 톤에 달하는 버섯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음.

○ 약초재배를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로동신문 4.29)

- 약초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씨뿌리기를 제때 보장하는 것은 봄철 약초재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함. 보건성 일꾼들은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약초재배월간 지휘부를 조직한데 이어 사업의 성과적 실현을 위해 보건, 농업, 국토관리,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연관 부문 일꾼들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전례 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전문약초 재배단위인 시, 군 고려약공장들과 약초관리소, 도약초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백지, 시호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약초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5월 초에 심게 될 약초들에 대한 모관관리를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협동재배 단위들에서는 유기농법의 요구대로 질 좋은 자급비료, 홍보산비료를 받게 내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청진시, 김책시 등에서는 이미 수백 정보의 약초산 조성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함.

9. 기타 보도 동향

□ 농기계

-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로동신문 4.12)
 - 함흥시 회상구역에서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정비와 농기구 수리 및 생산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음. 경영위원회 일꾼들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한 협의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구역 안의 트랙터와 연결차들을 수리하였음. 또한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설치해놓고 농기계 부속품 생산에 힘씀.
 - 구역에서는 새로운 연유절약기를 협동농장의 모든 트랙터에 설치하여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가동률을 높이고, 논밭갈이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또한 구역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중소농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수리·정비하는 사업에도 힘써 협동농장에서 필요한 중소 농기구들을 원만히 확보하였음.
- 모내는 기계 수리정비를 끝냈다 (로동신문 5.2)
 - 각 농촌들에서 모내는 기계의 정비를 4월 30일 현재 100%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함.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은 당 조직의 지도 밑에 농기계 작업소들의 생산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연관부문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모내는 기계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힘썼음.
 - 증산군농기계작업소의 경우, 버거를 이용하는 발동발전기를 돌려 1만 9천여 개의 부속품을 생산 및 재생함으로써 군안의 농장들에서 모내는 기계 수리정비를 제때 끝내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음. 황해남도의 은률군, 신천군, 안악군 등에서는 모내는 기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생산에 힘쓴 결과, 수천대의 모내는 기계들이 언제든 만가동 될 수 있도록 수리정비 되었다고 언급함.
 - 평안북도의 용천군, 선천군, 광산군 등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피스톤, 살창, 모손 등 모내는 기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생산 및 재생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대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두었음.

□ 비료

-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5.6)
 - 평양시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 공장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음.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건설지휘부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시공지도와 기술 지도를 수행하고 있음.
 - 평양시건설사단의 지휘관들은 울타리공사와 2만6천여㎡에 달하는 구내포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1단계와 2단계 울타리공사와 7,800㎡에 달하는 1단계 구내포장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2단계 구내포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음.
 - 공장건설이 진척될수록 지원자들의 열의도 높아져, 평양시검찰소 일꾼들은 수백 ㎡의 골재와 많은 후방물자를 신고 공사장을 찾아와 건설자들을 고무하고, 평양산원의 일꾼과 종업원들도 많은 후방물자를 신고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아와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음.
- 유기광물질 비료를 적극 이용 (로동신문 5.9)
 - 배천군에서는 유기광물질 비료를 비롯한 여러 비료를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한 농장들이 지난 해 농사에서 앞장섰다는 점을 자각하고, 협의회에서는 농장들에 유기광물질 비료 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결정하였음. 이후 유기광물질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군 일꾼들은 모든 농장의 농장원들에 기술지식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농장에서는 유기광물질비료의 특성과 시비방법, 그것이 농작물의 성장에 주는 영향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해주는 등 유기광물질 비료를 적극 이용하는데 힘쓰고 있음.
- 여러 가지 비료원천을 적극 동원이용하자 (로동신문 5.13)
 - 농사를 잘 짓는 데서 비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농업부문에서 비료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비료원천을 적극 동원이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 염전에서 해마다 걷어내는 염전이끼와 평강지구에 묻혀있는 질 좋은 니탄, 비료적 가치가 높은 단백토, 인회토, 카리장석을 비롯하여 부족한 비료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원천이 많은데, 이러한 비료원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화학비료와 섞어 유기질복합비료를 만들어 쓰면 화학비료를 그대로 쓸 때 비해 그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비료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유기광물질알비료나 흙보산알비료를 만들어 논밭에 뿌리면 요소비료를 그대로 줄 때에 비해 흡수이용률이 30% 이상 높아지고, 정보당 논벼, 강냉이 소출은 600~700kg 더 높아졌다고 함. 유기질복합비료생산능력을 10만 톤 수준으로 조성하면 표준비료로 환산하여 4만 톤의 질소비료를 가지고 6만 톤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생산이용 (로동신문 5.17)

- 안변군 비산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들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열의를 가지고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자체로 생산하여 적극 이용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50여 톤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생산하여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면서 농작물의 병충해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였음.
- 경제성 효과성이 높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는 최근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이 비료는 많이 매장되어 있는 금강약돌에서 수십 가지의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들을 추출하고 여기에 복합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만듦.
- 농장에서는 비료 덕을 크게 보고 있으며, 작업반들에서는 복합비료를 모판밑 비료로 주고 그 풀림액을 잎덧비료로도 이용하였음. 그 결과, 벼모들이 모마름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을 이겨내고 실하게 자라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촌지원

○ 수송조직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로동신문 4.27)

- 개천철도국에서 농촌에 보낼 물동 수송에 큰 힘을 쏟고 있음. 국에서는 농업 부문의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영농물자들을 제때 수송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기관차와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역별, 구간별

화차배치 상태와 유동상태, 물동의 확보정형과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진행 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 수송지휘를 맡은 일꾼과 사령원들은 방향별로 집중수송열차를 편성해주는 한편, 목적지까지 영농물자들을 제때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아울러 구장청년역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상하차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영농물자들을 제때 실어보내기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음.

○ 양수동력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로동신문 4.27)

- 황해북도 송배전부에서는 농사에서 양수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도안의 전력소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타산을 바탕으로 협동농장들에 대한 전력보장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있음.
- 책임일꾼들은 송변전 시설들이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조건에 맞게 직접 현지를 돌아보면서 전력공급 정형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 황주군 송배전소와 사리원시송배전소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송전선들에 대한 보수정비에 주력하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고, 양수설비 보수를 적극적으로 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때 퍼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든 힘을 농촌에 총동원하여 (로동신문 5.10)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힘 있게 조직동원 하고 있음.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 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고수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당면한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하도록 하고 있음.
- 대관군에서는 여러 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 일꾼을 파견하여 논갈이와 벼모기르기를 비롯한 당면 영농전투를 힘 있게 벌리도록 밀어주는 한편, 강냉이 파종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써 성과를 거두었음. 의주군에서는 군 내 모든 모내는 기계를 100% 수리·정비하기도 하였음.
- 박천군은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벼모기르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 비배관리를 앞세우는 한편 감자 파종면적을 지난해보다 더 늘이고 앞그루 감자농사에 힘을 넣고 있으며, 동림군에서는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고구마를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새 땅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음.

-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로동신문 5.26)
 -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노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체신성에서는 지난 4월 당면한 영농공정을 추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많은 양의 비닐박막을 곡산군 서촌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외교단사업국 일꾼들은 협동벌에 무엇보다 발동소리가 높이 울려피져야 한다고 하면서 농기계들의 정상 가동에 요구되는 지원물자들을 준비해 가지고 안악군 평정협동농장에 찾아가 농장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음.
 - 기상수문국에서는 대동군 순화협동농장에 논물온도계를 비롯한 여러 종에 수백 점의 지원물자를 보내주고, 농업출판사에서는 대동군 시정협동농장에 수십 점의 농기계 부속품과 많은 영농물자를 보내주었음. 이외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사무국, 육해운성, 기계공업성, 무역성, 보건성, 국가과학원 등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 농업전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현지지도

- 용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 현지지도 (로동신문 5.19)
 -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들인 김기남,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비서인 태종수, 당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와 함께 용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을 방문함.
 - 김정일은 용전과수농장을 둘러보면서 과수의 고향인 북청군의 용전과수농장이 지난 기간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하고, 최근 몇 해 사이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고 내부망과 살림집 건설, 과일나무 모발 확장공사를 끝낸 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끝마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였음. 특히 농장에서 지난 시기 산비탈면들에 널려있던 과수밭대신 수백정보의 평지에 키넛은 우량품종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과일생산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면서도 종합적인 기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음.
 - 덕성과수농장을 돌아보면서는 농장에서 과수업을 하기에 좋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과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2년 사이에 수십

정보의 현대적인 과수원을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특히,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키낮은 사과나무품종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과원을 조성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면서 높게 평가하였음.

- 용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이 자리 잡고 있는 북청군과 덕성군은 과수업에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튼튼한 토대,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현대적인 대규모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과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고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과일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과일품종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로동신문 6.3)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인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과 함께 고산과수농장을 방문함.
- 618건설돌격대 건설자들은 근 1,000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의 토지정리와 수십 km에 달하는 도로 및수로 건설, 연 수천여리에 달하는 전호식 구덩이 파기, 11만대의 과일나무 지지대 세우기, 수백만 그루의 과일나무 심기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1년 5개월 사이에 해냈다고 언급함.
- 김정일은 과수농장을 둘러보면서 건설자들이 짧은 기간 안에 고산과수농장을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만든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아울러 평기와, 경사기와, 삼각기와, 용마루기와 등 각종 기와들과 과일나무지지대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돌아보고, 농장의 실정에 맞는 훌륭한 건재기지를 세운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땅의 지력을 높일 때 질 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장에 돼지공장을 건설하여 더 많은 유기질복합비료를 과수밭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 (로동신문 7.7)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비서들인 최용해, 김평해, 조선노동당 평안북도 위원회 책임비서 이만건과 함께 용천군 신암협동농장을 방문함.

- 김정일은 신암협동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 구상을 빠르게 실현할 신념을 안고 투쟁한 결과 알곡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농장이 이룩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였음.
- 아울러 새로 건설한 기계화작업반을 둘러보면서 설계와 시공이 농기계들에 대한 보관관리를 잘할 수 있게 특색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농촌건설은 농촌을 더욱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애국사업이라고 하면서 농장마을을 더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북, 휴대전화 가입자… 지난해 말 43만 명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난해까지 43만 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월 18일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난해 9월까지 30만 명에서 석 달 동안 13만 명이 추가되면서 총 43만 명을 기록해 2009년 가입자 9만 1천명에 비해 4.7배 증가했다”고 전함.

- 오라스콤 텔레콤은 북한의 투자회사인 고려링크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6,64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전년도 2,595만 달러에 비해 무려 1.5배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힘. 아울러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을 평양, 원산, 함흥 등 14개 도시와 22개의 고속도로 등으로 확대해 북한 전역의 91%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

노컷뉴스, "北, 휴대전화 가입자… “지난해 말 43만 명”", 2011.4.19

☐ 북, 올해 들어 군량미 헌납운동 전개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4월 18일 북한 식량사정과 관련해 “북한은 식량 공급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월 이후 북한 전 세대와 기관,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군량미 헌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힘.
- 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양 시민과 하급 간부에게까지 배급을 축소하는 등 악화조짐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식량사정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발언함.
- 국정원 측은 북한의 식량공급 통제 및 군량미 헌납운동이 강성대국 진입 원년

(2012년)을 앞두고 정치행사 대비, 안정적 3대 세습체제 구축, 군량미 비축 등 3대 목표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김정은이 현재 정책 관여의 폭을 확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수행하면서 후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식량 도입과 생필품 증산을 독려하며 주민단속과 체제결속 도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힘.
동아일보, "北 올들어 군량미 헌납운동 전개" , 2011.4.19

☐ 북한 대동강맥주, 미국 수입 차질 예상

- 북한산 대동강맥주는 올 여름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대동강맥주를 미국에 수입할 예정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스티브 박 대표는 4월 19일 "19일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규정과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는 맥주의 수입이 일단 금지된 것으로 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박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 발효와 관련해 현재 가장 주시하는 부분은 행정명령 제1조"라고 언급함. 아울러 "그동안 대동강맥주의 미국 내 수입문제를 논의해 온 미국 재무부와 접촉해 지난 해 승인받은 수입 허가의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제1조에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명령 발효 이전에 승인한 계약, 면허, 허가에 대해서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적 수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정부는 그 동안 북한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허가를 내줬으나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대동강맥주도 직접 타격을 입게 되었음.
노컷뉴스, "北 대동강맥주, '미국 수입 차질 예상'" , 2011.4.20
경향신문, "北 대동강맥주, 美 수출 물거품되나" , 2011.4.20

☐ 북, 지난 해 광물수출 사상 최대

- 북한의 광물 수출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자유아시아방송은 20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유럽연합의 무역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2010년 한 해 동안 8억 6천만 달러 어치의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아울러 북한은 같은 기간 유럽연합에 8천만 달러, 러시아에 1천1백만 달러 어치(2010년 9월까지)의 광물을 수출함.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액은 2002년 약 5천만 달러에서 2008년 5억 5천만 달러로 6년 만에 11배나 증가한 뒤 석탄 수출이 금지된 2009년 3억 달러로 떨어짐. 그러나 2010년에 8억 6천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수출액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 수출한 광물은 석탄과 철광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한국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북한의 외화획득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닉슨센터의 드류 톰슨 전 연구원은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의 한계는 열악한 기반시설”이며 “북한이 지속적인 광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함.

노컷뉴스, "RFA, “北, 지난해 광물수출 사상 최대”", 2011.4.21

□ 북한 나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 북한과 중국은 나선·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 북측은 ‘강성대국 선구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나선에는 원자재 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 농업 등 6대산업, 황금평에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 농업, 경공업 등 4대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알려짐.
- 최근 공개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는 두 지역을 조선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조·중 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470km², 황금평 경제지대는 16km²로 설정되어 있음. 아울러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 부두 건설, 지대 내 그물망 도로 구축, 황금평-단동 신구간 2개 출입도로 건설의 내용도 담겨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국 연변과 북한 라선·청진·칠보산·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사할린, 일본 니가타·삿포로, 남측의 속초·부산을 잇는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잡혀있다고 알려짐.

- 이에 대해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중 간에 협의됐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중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나선지역과 황금평을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北라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 2011.5.23

뉴시스, "北최고인민회의, 황금평·위화도 개발 추진" , 2011.6.7

☐ 북한 도시들, 농업용수 사용 많아 물 부족

- 북한에서 농업용수의 비중이 높아 평양과 청진 등 도시에서 쓸 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자유아시아방송은 9일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가 최근 발표한 ‘물부족지수’에서 북한은 전체 평가대상국 186개국 가운데 75위로 중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할 물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함.
- 이 회사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농업용수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55%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함.
- 북한은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도시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것과 함께 수자원 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빗물을 이용해 물자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연합뉴스, "농업용수 사용 많아 北도시들 물 부족" , 2011.6.9

☐ 북, 매년 여의도 150배 산림 줄어들어

- 다락밭과 같은 농업용 산지개간 및 마구잡이 벌목으로 인해 북한에서 최근 2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0배 만큼의 산림이 줄어든 것으로 17일 파악됨. 국립산림과학원 유병일 박사는 「세계 식품과 농수산」 6월호에서 최근 북한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한 ‘2010 국가산림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힘.

- 유 박사는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0년 북한의 산림면적을 566만 6천 ha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남한 산림면적 622만 3천 ha보다 55만 7천 ha가 적은 것임. 아울러 2010년 북한의 산림면적 중 인공조림지는 78만 1천 ha로, 남한 인공조림지 182만 3천 ha의 40%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북한이 FAO에 보고한 산림면적은 1990년 1천 ha, 2000년 699만 3천 ha, 2005년 629만 9천 ha로 나타남.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년 간 산림면적이 253만 5천 ha가 줄어든 것으로서 20년 간 전체 산림면적의 30.9%가 감소한 것이며, 이는 해마다 여의도 15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없어진 규모로 추정됨.
- 유 박사는 “이와 같은 급속한 산림감소는 열대개발도상국에서의 높고 빠른 산림 감소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식량과 연료 채취로 인한 농업용 산지개간과 난벌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힘.

세계일보, "北, 매년 여의도 150배 산림 줄어들어" , 2011.6.17

매일경제, "北, 매년 여의도 150배 숲이 없어진다" , 2011.6.17

□ 북한 영양결핍 인구 전체의 20~34% 차지

- 북한 전체 인구의 최대 1/3 정도는 영양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기아현황지도에서 북한을 영양결핍 인구가 20~34%로 비교적 높은 국가로 분류했다고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WFP는 영양결핍 인구를 정도에 따라 5% 미만으로 극히 낮은 국가는 1단계, 5~9%는 2단계, 10~19%로 비교적 낮은 국가는 3단계, 20~34%로 비교적 높은 국가는 4단계, 35% 이상으로 아주 높은 국가는 5단계 등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음. 최악의 5단계 국가군에는 에티오피아, 차드공화국, 콩고,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은 몽골, 인도 등과 함께 4단계로 분류되었음.

노컷뉴스, "WFP, “북한 영양결핍 인구 전체의 20~34% 차지”" , 2011.7.13

조선일보, "WFP, “北 전체 인구의 최대 3분의 1이 영양결핍”" , 2011.7.13

2. 식량 사정

☐ 북, 식량난 가중으로 농촌지역 역량 총집중

- 북한에서는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농촌지역에 총집중, 총동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은 5월 25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올해 알곡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쌀은 사회주의로 쌀이 많아야 선군의 위력을 강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함.
-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6월 2일 “만성적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식량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농업 부문 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내기철을 맞아 전체 주민의 노력동원, 비료 및 영농자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력난, 자재난, 자금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동원 선동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함.
- 북한은 식량난이 북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만연된 일반적 현상임을 부각시켜 주민 불만을 완화하고, 해결방안으로서 ‘자력갱생에 의한 식량 증산’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사설에서 이처럼 식량증산에 대한 요구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전력 및 연유, 비료, 농약, 트랙터 부품 등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 지원을 확고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파이낸셜뉴스, “북한, 식량난 가중으로 농촌지역 역량 총집중”, 2011.6.2

☐ 굶어죽는 북한 주민, 식량배급량 또 줄어

- 지난 5월 북한주민 1인에게 제공되는 식량배급량이 190g으로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최근 유엔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육체노동을 하는 성인의 하루 평균 식량 필요량은 700g으로, 북한주민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보고서는 이 배급량이 예년의 같은 시기보다 훨씬 적고 북한 당국은 지난 수년간 1인당 하루배급량 목표로 잡은 573g을 채우지 못했다고 언급함.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량을 100만 톤 정도로 잡았고, 특히 2001년에는 200만 톤이 부족해 식량난이 가장 심했다고 전함.

- 또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난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상당히 부식됐고, 식수가 배설물과 화학비료 등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수년간 함경도 등 북한 동북부 지역의 경우 겨울에 학교 출석률이 60~80%까지 떨어졌다고 전함.

동아일보, "굶어죽는 北주민, 식량배급량 또 줄어" , 2011.6.22

서울경제, "北주민 식량 하루에 190g 받는다" , 2011.6.22

□ 북, 7개월 간 외부서 곡물 13만 톤 확보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수입과 외부지원을 통해 곡물 13만여 톤을 확보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 기간에 곡물 5만 톤을 구매했고, 여기에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받았거나 실제로 전달된 인도주의적 지원물량 8만 4,500여 톤을 합치면 곡물확보량이 총 13만 4,500여 톤에 달한다고 밝힘. 아울러 곡물회계연도 부족분을 메우려면 총 108만 6천여 톤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언급함.
- 지난 6~15일 방북해 식량상황을 조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ECHO)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의 식량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충분한 현장접근과 수혜자들에 대한 정확한 전달 등 투명한 분배보장이 있어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FAO "北 7개월간 외부서 곡물 13만 톤 확보"" , 2011.6.24

조선일보, "북한, 수입·외부지원 등으로 식량 13만 톤 확보" , 2011.6.24

□ 북, 이모작 작황 급감… 7~8월 식량난 가중될 것

- 봄 가뭄과 비료 부족으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의 수확량이 매우 부진해 7~8월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올해 봄철 강수량이 예년의 30%에 불과한 상황이며 감자 등 밭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비료사정 역시 열악한 것으로 전한바 있음.
- 이와 관련해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해 겨울이 길었고 올해

봄 가뭄이 심해 보리와 밀, 감자 등 북한의 올해 이모작 작황이 작년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작물이 8월 초 정도까지 식량공급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여름 북한의 식량사정은 예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수확량 부진으로 북한 장마당(시장)에서는 감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쌀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햇감자가 장마당에 나왔는데 가격이 작년 300원에서 올해 600~7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어든 게 확실하며, 최근 2,000원대로 쌀값이 오른 이유가 햇감자 수확량 부족의 영향일 수 있다고 전함.

헤럴드경제, “北, 이모작 작황 급감... 7~8월 식량난 가중될 것”, 2011.7.2

☐ 북, 군량미 100만 톤 보관 주장은 부풀려진 것

- 북한이 군량미로부터 100만 톤의 식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됨.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7일 세종연구소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1990년대 중·후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였음.
- 아울러 권 부원장은 “1995년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는데 2005년 북한은 식량지원 대신 개발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며 “기술지원 요청은 외부 지원으로 식량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원 중단으로 축적분이 소모되자 다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하고, “과거보다 중국의 식량 지원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북한의) 식량 수입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 7~8월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北 군량미 100만 톤 보관 주장은 부풀려진 것”, 2011.7.13

3. 가격 추이

☐ 북, 비료난으로 가격 폭등

- 북한 시장에서 감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음. 가뭄과 비료부족 등으로 올감자(제철보다 일찍 수확하는 감자)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예년에 비해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감자가격(1kg)은 900~1,000원인데, 이는 작년 이맘 때 400~500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뛴 가격임. 이에 따라 현지 농장에서 감자를 사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알려짐.
- 수확한 올감자는 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비와 관개수리 대금, 농기계사용료 등을 공제한 후에 각 개인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되는데, 올해는 비료대금 등의 공제비가 높아 농장원들의 분배 몫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알려짐.
- 반면, 감자 가격 급등이 쌀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한 소식통은 “시장에서 쌀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오르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고 밝힘.

데일리NK, “‘감자가 금값이네~’ 北, 비료난으로 가격 폭등”, 2011.6.27

☐ 상반기 북한경제, 환율급등 여파로 식량가격 상승

- 한국연구개발원(KDI)은 「KDI 북한경제리뷰」 6월 특집호를 통해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는 대북지원을 중단한 남한 정부의 5.24조치와 남북관계 악화, 환율 급등과 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특히 환율 급등이 시장 식량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은 악화기로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분석함.
- 5.24조치로 가장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대남수출액으로서, 지난해 1~5월 월평균 4천만 달러에서 6~12월 월평균 2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음. 반면, 대중수출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5월 월평균 5천만 달러에서 6~12월 1억 3천만 달러로 뛰었음.
- 환율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시장환율은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로 이듬해인 2010년 1~3월 중 급등

세를 보이고, 12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불안감을 반영, 두 배 가량 폭등했다고 밝힘. 환율 급등은 식량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kg 당 500~600원 수준에서 2,000~2,200원 정도로 3배나 급등했다고 밝힘.

- KDI는 이에 대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추세에 놓여있는데다가 5.24조치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다른 대외부문의 악재가 겹쳐 있긴 하지만, 북한이 해외로부터 일정한 자원을 유입할 수 있다면 반짝 회복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아주경제, "KDI "상반기 북한경제, 환율급등 여파로 식량가격 상승" , 2011.7.6

4. 북한농업 일반

☐ 북, 모내기 시작... 거국적 집중 독려

- 북한은 매년 원화협동농장(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의 모내기 시작 소식을 전하며 모내기철을 맞이하는데, 이곳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전에 없이 불리한 일기조건 속에서도 이곳 일꾼과 농장원들은 벼모판 관리에 힘을 쏟아 실한 모를 키워냈다”며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도 제때 끝내고 만반의 준비 끝에 모내기에 진입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 모를 키우는데 있어 기상조건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다”며 “다만 모판을 덮을 비닐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비료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北 모내기 시작... '거국적 집중' 독려" , 2011.5.11

☐ 북, 농번기 비료부족... 옥수수 값 두 배

- 북한 지역에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비료부족으로 인해 중국산 복합비료는 1kg에 옥수수 가격의 두 배인 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13일 “양강도 백암군 지역의 1만 정보 농장에 인분을 지원하면서 가루인분 값이 500원으로 뛰었고, 중국산 복합비료는 1kg에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서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옥수수 1kg이

900원에 거래되고, 밀수꾼들 사이에서 파고철 1kg 역시 900원인데 비해 비료 가격이 두 배나 비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소식통도 “장마당에서 강냉이(옥수수) 2kg에 복합비료 1kg을 맞바꾼다”면서 “강냉이 1kg에 750원인데 비료값은 1,500원까지 올랐다”고 언급하고, 장마당에서 비료 값이 높아지게 된 원인에 대해 “지난 겨울 홍남비료 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기업소에서 전력 부족으로 화학비료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에 관해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5월 13일 “북한 전체의 연간 비료 사용량이 58만 톤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북한이 사용하는 비료가 10만 톤 정도니까, 필요량의 20%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언급함.

노컷뉴스, “北, 농번기 비료부족... “옥수수값 두 배””, 2011.5.14

□ 첫 감자수확 앞둔 북, 작황 부진 현실화될까?

-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후유증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국가배급 중단,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 등으로 극심한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있음.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하루 두 끼 이하를 먹는 주민이 전체의 20%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짐. 이처럼 극심한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 올해 첫 감자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봄감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알려짐.
- 하지만 감자 작황은 예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WFP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료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봄감자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7, 8월 식량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 전반적인 물가가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자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식량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식량수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봄감자의 시장 유통으로 취약계층이 6,7월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데일리NK, “첫 감자수확 앞둔 北, 작황 부진 현실화될까?”, 2011.5.31

□ 북, 비료난 여전… 올 농사도 차질 우려

- 북한당국의 비료생산 증강에도 불구하고 비료난이 여전해 올해도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강도 대흥단군의 한 소식통은 6월 1일 “올 봄에는 냉해가 심해 감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다 비료까지 공급되지 않아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소식통들은 “지난 해 4월 초부터 흥남비료공장에서 생산된 질소비료를 상당량 협동농장들에 공급했고, ‘알곡 10만 톤 생산 군’으로 지정된 28개의 군에는 남흥 청년화학공장에서 생산된 요소비료도 일부 공급했다”고 설명하고, “올해는 농작물들이 냉해를 입어 비료주기 작업을 앞당겨야 할 형편인데도 질소비료를 공급해주지 않는 대신 농업성으로부터 대체비료인 흙보산 비료를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언급함.
- 이러한 상황의 원인에 대해 한 소식통은 “북한이 자체의 비료생산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비료생산을 못하는 원인은 심각한 전력난과 함께 외화벌이를 위해 석탄수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노컷뉴스, "북, 비료난 여전… “올 농사도 차질 우려”" , 2011.6.2

□ 북, 유기농 관심 고조… 관련 교재 출간 계획

- 북한에서 유기농 재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유기농 관련 교재를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유럽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6월 3일 “최근 북한의 과학원에서 집필된 유기농법 교재가 현재 북한 내각의 승인절차를 밟고 곧 인쇄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교재를 인쇄해 평양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부원장은 “경제난으로 외부에서 수입된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유기농 자재를 공급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오랜 기간 대북농업지원을 해 온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농사에 필요한 살충제나 화학비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 유기농법을 꾸준히 잘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노컷뉴스, "북한 유기농 관심 고조… “관련 교재 출간 계획”" , 2011.6.4

5. 자연재해

☐ 북, 구제역 추가 발생

- 북한에서 3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약 3백 마리의 소와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돼지 270마리와 소 22마리 등 모두 298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41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면서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황해북도의 상원군, 신평군, 황주군, 강원도의 금강군 등”이라고 밝힘.
-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구제역이 어떤 경로로 전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들을 차단하고 소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개체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노컷뉴스, "북한에서도 구제역 추가 발생", 2011.4.20

☐ 북 수해, 예년보다 심각?

- 6월 말 태풍 ‘메아리’에 이어 보름 넘게 계속되는 장마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규모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남한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13일에는 황해북도, 함경남도 등지에 곳에 따라 30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음. 조선중앙TV에서는 이날 ‘장마철 국토관리 사업에 적극 참가하자’는 보도를 통해 강가제방, 도로수축 및 도랑설치, 강하천 정리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언급함.
- 평양의 한 소식통이 데일리NK에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로 심어놓은 뽕나무(포플러) 나무가 뿌리채 넘어져 도로가 다 파괴됐다”며 “그에 따른 영향으로 무궤도 전차도 한 동안 다니지 못해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에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데일리NK, "'폭우에 도로파괴...' 北 수해 예년보다 심각?" , 2011.7.14

□ 북, ‘물폭탄’ … 인명피해·농지침수 속출

- 황해남도 태탄군 등지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 중·북부지역의 농경지가 상당 부분 침수되고 인명 피해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농경지 피해는 148.7km²로서, 이는 하천바닥까지 포함한 여의도 면적(8.4km²)의 17.7배 규모임.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6일 오후 “조선 각지에서 12~15일 내린 무더기비로 피해가 났다”면서 “1만5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 중 1만 정보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보도함.
- 황해남도 청단군에서는 3천여 정보의 논밭이 침수·매몰됐고, 해주시와 태탄, 웅진, 벽성, 재령, 신천군도 피해를 입었음. 황해북도에서는 여러 개의 제방이 터지면서 5,900여 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음.
- 지난 12일에도 중앙통신은 제5호 태풍 ‘메아리’로 2만1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고 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폭우로 인한 북한의 농경지 피해지역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여의도 면적의 4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16일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와 비료 부족 등으로 북한의 올해 농사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세계일보, "北 대동강은 범람위기 처해", 2011.7.15

연합뉴스, "北 ‘물폭탄’… 인명피해·농지침수 속출", 2011.7.16

□ 개성 7월 강우량 870mm 이상, 연간 강우량 55% 초과

- 북한 황해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28일 하루 현재(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와 강원도 평강군은 28일 같은 시각 각각 154mm와 158mm의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신계와 평강군은 7월 한 달 동안에만 700mm가 넘게 내렸음.
- 개성은 연간 평균 강우량이 1,576mm 가량인데, 7월 한 달 동안에만 87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연간 강수량의 55%가 넘는 수치임. 특히 개성은 나흘간 423mm의 폭우를 기록함으로써 수해가 염려되는 상황임.

데일리NK, "개성 7월 강수량 870mm↑ 연간 강수량 55% 초과", 2011.7.28

□ 황해도 수해 발생 시 북 식량난 심각해진다

- 북한의 곡창지대로 유명한 개성과 황해도 해주, 사리원에 폭우가 쏟아져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이 우려되고 있음. 북한이 세계기상기구(WMO)에 제공한 관측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개성에 853mm, 해주에 829mm, 신계에 607mm의 비가 온 것으로 확인됨. 특히 해주에는 26일 하루에만 191mm의 폭우가 쏟아짐.
- 북한은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최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음. 26일 국제적십자사의 프랜시스 마커스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내린 폭우로 황해북도에서 900채, 황해남도에서 2,460채의 가옥이 파손됐다”고 전함.
- 황해남도 해주시와 황해북도 사리원은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인데, 해주시의 경우 자연적인 수방(水防)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사리원은 농경지 침수나 산사태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기상청은 사리원에 사흘 간 150mm 가까이 폭우가 내렸다고 발표한 가운데, 7월 한 달 간 500mm가량이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관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침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도 “황해도 지역은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이고 무엇보다 평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올 식량 작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데일리NK, "황해도 水害 발생시 北 식량난 심각해진다", 2011.7.28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12,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998만 달러에 비해 32.1% 감소(전월 15,631만 달러 대비 17.5% 감소)
- 반입은 7,04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0,423만 달러에 비해 32.4% 감소(전월 8,051만 달러 대비 12.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5%, 전자전기제품 37.5%, 생활용품 7.6%, 기계류 6.2%, 화학공업제품 2.9% 등임.
- 반출은 5,85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575만 달러에 비해 31.7% 감소(전월 7,580만 달러 대비 22.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6%, 전자전기제품 32.2%, 기계류 7.4%, 화학공업제품 7.1%, 생활용품 5.2% 등임.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35.8만 달러로 전월 38.4만 달러 대비 6.8% 감소하고 4월 전체 반입액 7,047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19.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6.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89.6만 달러로 전월 210.4만 달러 대비 9.9% 감소하고 4월 전체 반출액 5,853만 달러의 3.2%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56.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7%), 분유 등 축산물이 0.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1%), 합판 등 임산물이 2.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9.5달러(전체 반출액의 0.5%)를 차지했음.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5월 중 남북교역액은 14,919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653만 달러에 비해 4.7% 감소(전월 12,900만 달러 대비 15.7% 증가)
- 반입은 8,12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717만 달러에 비해 16.4% 감소(전월 7,047만 달러 대비 15.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1.5%, 전자전기제품 37.1%, 생활용품 7.8%, 기계류 7.1%, 화학공업제품 3.2% 등임.
- 반출은 6,79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935만 달러에 비해 14.4% 증가(전월 5,853만 달러 대비 16.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7.1%, 전자전기제품 28.1%, 화학공업제품 8.5%, 기계류 7.5%, 생활용품 6.1% 등임.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5.3만 달러로 전월 35.8만 달러 대비 26.5% 증가하고 5월 전체 반입액 8,128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2.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22.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45.2만 달러로 전월 189.6만 달러 대비 29.3% 증가하고 5월 전체 반출액 6,792만 달러의 3.6%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98.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

분유 등 축산물이 16.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3.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7.6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6월 중 남북교역액은 14,86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2,275만 달러에 비해 21.1% 증가(전월 14,919만 달러 대비 0.4% 감소)
- 반입은 7,62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589만 달러에 비해 15.6% 증가(전월 8,128만 달러 대비 6.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0.2%, 전자전기제품 35.2%, 생활용품 10.0%, 기계류 7.5%, 화학공업제품 3.4% 등임.
- 반출은 7,24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687만 달러에 비해 27.3% 증가(전월 6,791만 달러 대비 6.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7%, 전자전기제품 32.1%, 기계류 6.9%, 생활용품 6.8%, 화학공업제품 6.4% 등임.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6.5만 달러로 전월 45.3만 달러 대비 24.7% 증가하고 6월 전체 반입액 7,620만 달러의 0.7%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9.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7.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29.5만 달러로 전월 245.2만 달러 대비 6.4% 감소하고 6월 전체 반출액 7,241만 달러의 3.2%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95.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7%), 분유 등 축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합판 등 임산물이 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30.4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표 1. 2011년 4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98,908	192	0.3	농산물	577,024	1,569	2.7
참깨	35,020	63		쌀	2,216	4	
들깨	11,980	20		밀가루	1,801	1	
고추	650	1		참깨	45,500	49	
밤	25,200	81		들깨	8,550	9	
참기름	5,323	8		사과	57	0	
들기름	1,386	1		딸기	9	0	
기타유지가공품	11,349	18		바나나	125	0	
박류	8,000	0		멜론	14	0	
				토마토	28	0	
				고추	3,120	3	
				장미	120	2	
				기타화초	840	3	
				밤	71,200	107	
				기타산식물	5,309	14	
				대두유	10,692	10	
				참기름	128	1	
				고추장	77	0	
				기타소스류	2,189	6	
				커피조제품	886	6	
				초코렛	155	5	
				녹차	22	0	
				홍차	870	3	
				제조담배	3,125	100	
				위스키	100	8	
				기타주류	395	8	
				정당	149	0	
				기타당류	30	0	
				물	1,290	1	
				과일주스	895	2	
				기타음료	499	1	
				비스킷	237	1	
				곡류가공품	92,115	237	
				빵	148,533	526	
				면류	55,612	123	
				기타농산가공품	118,630	260	
				종자류	5	0	
				견	1,201	68	
				면	300	8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2,375	8	0.01
				닭고기	90	0	
				소시지	1,148	2	
				기타낙농품	1,137	5	
임산물	0	0	-	임산물	20,994	25	0.04
				합판	11,654	8	
				섬유판	3,850	2	
				건축용목제품	405	1	
				기타목재생활용품	5	0	
				기타목재류	100	1	
				수목류	4,980	13	
수산물	128,682	166	0.2	수산물	589,497	295	0.5
톳	3,982	70		미역	589,382	295	
미역	124,700	96		기타해조류	115	0	
합 계	227,590	358	0.5	합 계	1,189,890	1,896	3.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38호(2011.4.1~4.30).

표 2. 2011년 5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8,196	228	0.3	농산물	1,083,150	1,981	2.9
참깨	31,880	57		밀가루	3,345	2	
들깨	15,710	26		참깨	47,220	54	
고추	4,920	8		들깨	35,475	35	
밤	34,600	111		사과	19	0	
대두유	315	0		수박	19	0	
참기름	3,208	6		멜론	71	0	
들기름	2,522	3		토마토	42	0	
기타유지가공품	9,841	16		고추	300	0	
박류	5,200	0		기타채소	5	0	
				기타화초	70	2	
				밤	39,200	59	
				기타산식물	1,278	24	
				대두유	17,276	16	
				참기름	295	1	
				겨자	19	0	
				기타소스류	2,536	7	
				커피조제품	3,074	14	
				초코렛	12	0	
				녹차	12	0	
				홍차	11,098	1	
				제조담배	1,260	39	
				소주	2,354	3	
				맥주	941	2	
				위스키	153	3	
				기타주류	642	19	
				정당	155	0	
				물	3,522	2	
				기타음료	380,825	235	
				비스킷	222	1	
				곡류가공품	126,532	329	
				빵	181,589	611	
				기타농산가공품	151,413	362	
				견	600	35	
				면	400	3	
				면류	70,678	121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35,442	166	0.2
				소시지	3,011	4	
				우유	181	0	
				분유	19,816	100	
				발효유	218	0	
				기타낙농품	12,216	60	
임산물	0	0	-	임산물	17,212	30	0.04
				합판	2,080	3	
				섬유판	4,685	2	
				건축용목제품	7,095	12	
				젓가락	1	0	
				기타목재생활용품	211	0	
				기타목재류	1,050	4	
				수목류	1,040	7	
				종자류	1,050	1	
수산물	300,360	226	0.3	수산물	549,691	276	0.4
미역	300,360	226		명태	301	1	
				김	221	1	
				미역	549,169	275	
합 계	408,556	453	0.6	합 계	1,685,495	2,452	3.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39호(2011.5.1~5.31).

표 3. 2011년 6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35,780	294	0.4	농산물	764,410	1,959	2.7
참깨	38,880	70		쌀	2,096	3	
들깨	13,900	23		밀가루	2,558	2	
고추	4,440	8		참깨	65,500	69	
밤	37,200	119		들깨	49,630	48	
은행	2,700	9		사과	9	0	
대두유	0	0		바나나	10	0	
참기름	5,400	11		수박	48	0	
들기름	6,263	10		멜론	14	0	
기타유지가공품	14,855	25		무	370	1	
박류	7,200	0		토마토	23	0	
소주	0	0		고추	4,529	4	
맥주	0	0		난초	10	0	
기타주류	4,942	20		기타화초	61	0	
				밤	53,600	80	
				기타산식물	1,985	8	
				대두유	28,710	27	
				참기름	298	1	
				고추장	10	0	
				기타소스류	1,380	8	
				커피조제품	16,820	22	
				녹차	4	0	
				홍차	334	2	
				제조담배	2,150	64	
				인삼류	134	26	
				소주	3,550	4	
				맥주	2,689	4	
				위스키	552	58	
				기타주류	225	0	
				물	2,166	2	
				기타음료	780	0	
				비스킷	523	1	
				곡류가공품	117,742	312	
				빵	192,589	652	
				정당	155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면류	56,683	139	
				빙과류	70	0	
				기타농산가공품	155,465	363	
				견	938	55	
축산물	-	-	-	축산물	5,296	13	0.02
				소시지	3,677	8	
				기타낙농품	1,619	5	
임산물	38	0	-	임산물	16,479	18	0.02
				합판	1,458	2	
				섬유판	9,890	9	
				건축용목제품	4,901	5	
				기타목재생활용품	42	0	
				기타목재류	38	0	
				종자류	150	0	
수산물	338,502	270	0.4	수산물	608,426	304	0.4
미역	338,502	270		미역	608,426	304	
합 계	474,282	565	0.7	합 계	1,394,611	2,295	3.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0호(2011.6.1~6.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 175,607
소 계	196,690	794	7,149,178	212,010	1,086	7,458,069	14,607,247	308,891
2011.1	2,785	207	70,022	3,368	411	57,274	127,295	△ 12,748
2011.2	2,170	175	70,918	2,586	357	51,471	122,389	△ 19,447
2011.3	3,073	192	80,510	3,674	423	75,798	156,308	△ 4,712
2011.4	2,635	197	70,465	3,034	391	58,534	128,999	△ 11,931
2011.5	2,887	195	81,277	3,393	431	67,914	149,191	△ 13,363
2011.6	2,853	196	76,198	3,602	413	72,406	148,604	△ 3,792
소 계	16,403	305	449,390	19,657	594	383,396	832,786	△ 65,994
총 계	213,093	797	7,598,568	231,667	1,086	7,841,465	15,440,033	242,897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40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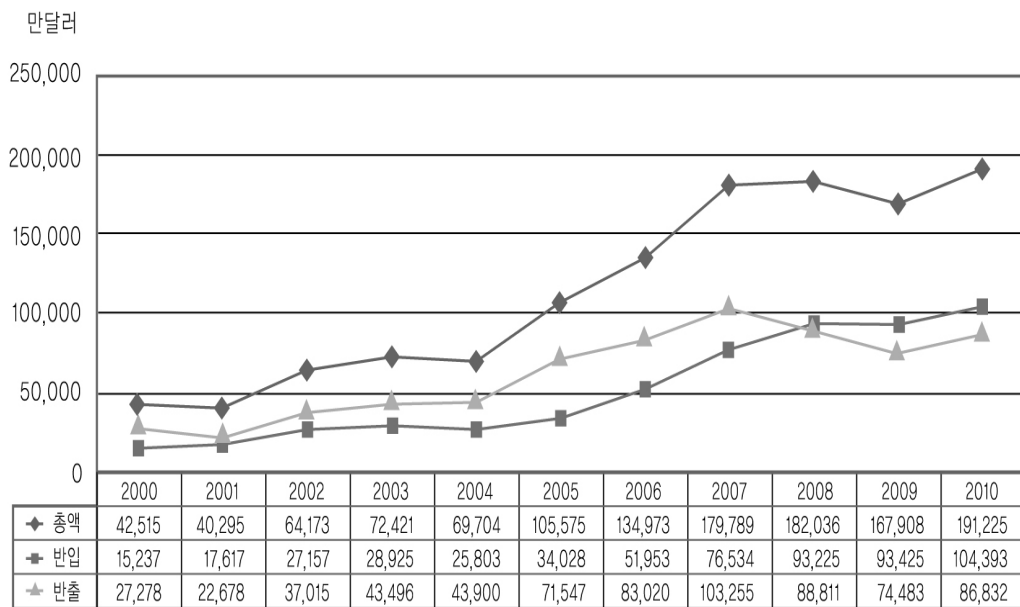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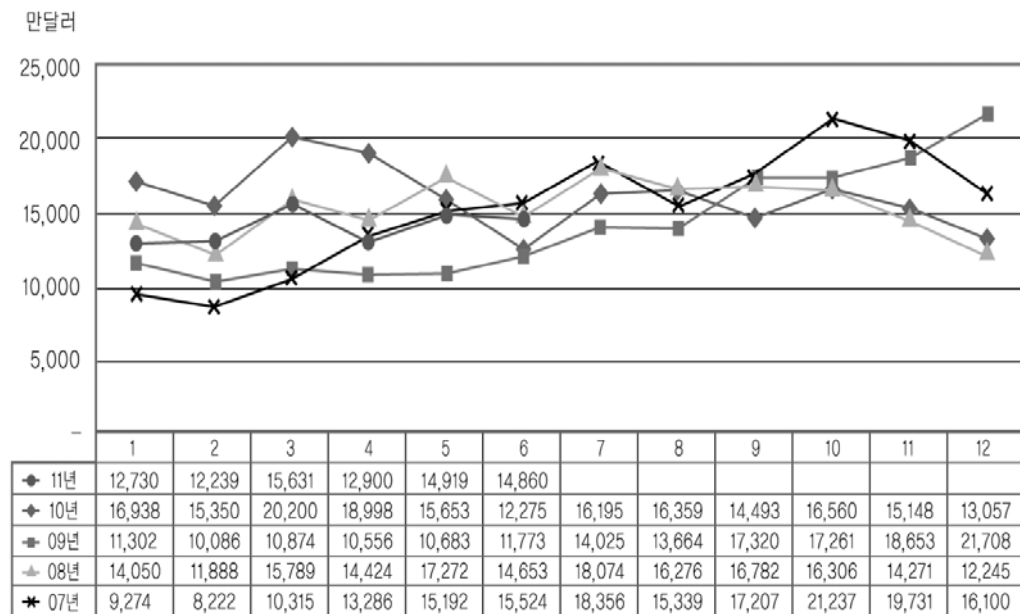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소 계	514,536	3,317	51,145	1,020,774	1,589,792	937,627	26,021	29,424	25,475	1,030,401	2,608,428	△418,614
2011.1	392	-	0	57	450	1,604	6	13	0	1,623	2,073	1,173
2011.2	193	-	0	17	210	1,230	9	34	122	1,395	1,605	1,185
2011.3	265	-	0	119	384	1,715	5	26	359	2,104	2,488	1,720
2011.4	192	-	0	166	358	1,569	8	25	295	1,896	2,254	1,538
2011.5	228	-	0	226	453	1,981	166	30	276	2,452	2,905	1,999
2011.6	294	-	0	270	565	1,959	13	18	304	2,295	2,860	1,730
소 계	1,564	-	0	855	2,420	10,058	207	146	1,356	11,766	14,186	9,346
총 계	516,100	3,317	51,145	1,021,629	1,592,212	947,685	26,228	29,570	26,831	1,030,401	2,622,613	△409,26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38~240,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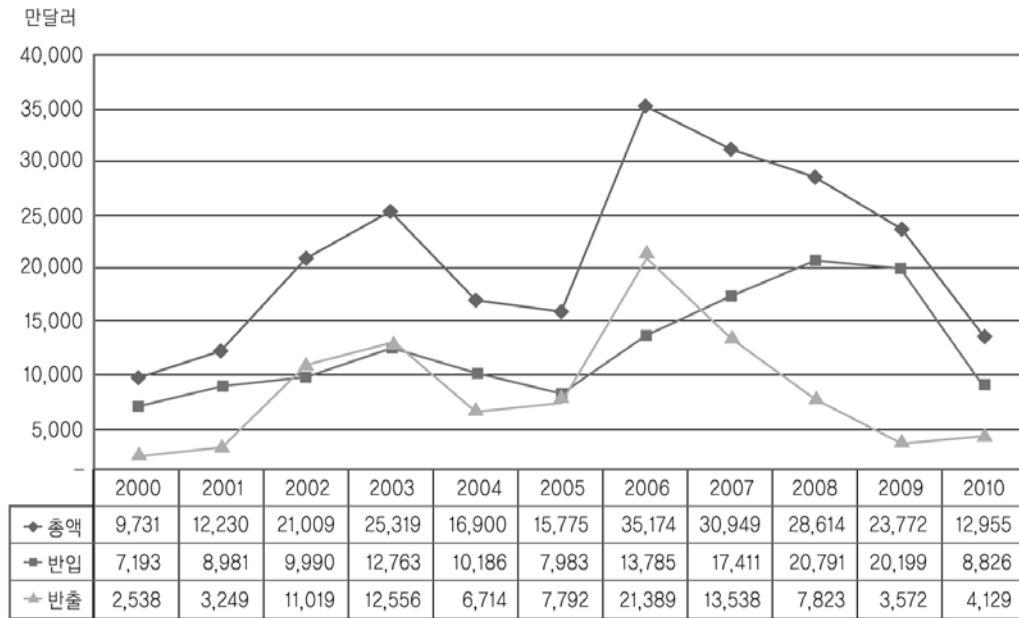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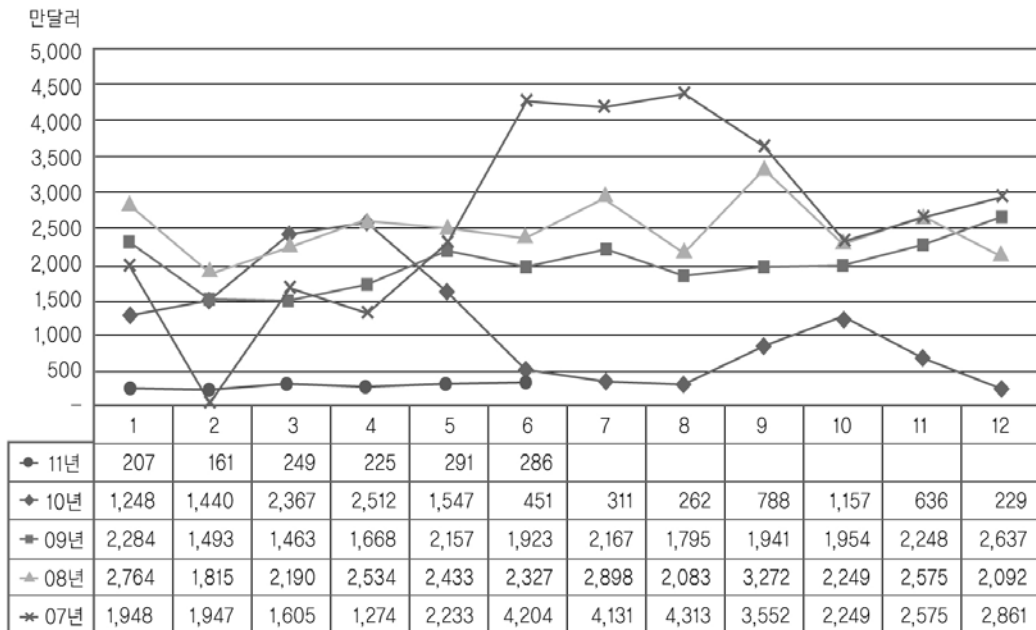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 기아대책, 연평도 포격 이후 첫 대북 민간지원

- 기아대책 대북지원법인 '섬김'은 지난 14일 빵 14만 개와 과자 2만 상자, 비타민 5천 병, 두유가루 3만 개 등 3억 원 상당의 어린이용 영양식품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지원 단체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음.
- 이번 식품 지원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일절 불허되었던 민간 지원이 최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해 다시 허용된 후 통일부 승인을 받은 첫 공식 지원으로 알려짐.
- 기아대책은 이번 지원 기금과 관련, '기적을 낳는 달걀', '라진이 겨울동무' 등의 북한돕기 캠페인을 통해 2억 3천 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여러 기업과 단체, 개인 후원자를 통해 모금했다고 밝힘. '섬김'의 조성근 이사장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굶주림의 고통에 있는 어린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비료지원 및 농업개발 후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자료: <http://www.kukinews.com/>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아대책, '연평도 포격' 후 첫 대북 민간지원" 2011. 6. 17)

☐ 카리타스, 천주교 5천만 원으로 북에 밀가루 100톤 지원 예정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김운회 주교)가 주교회의 사회복지지기관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사장 안명옥 주교)에게 대북지원 기금을 전달하였음. 민화위 총무 서종엽 신부, 이선중 수녀 등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기원미사의 봉헌금 중 5천만 원을 북한 동포 돕기에 써달라고 하면서 기탁함.
- 카리타스는 이 기금으로 밀가루 100톤을 북에 지원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반출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카리타스의 이종건 신부는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평안북도 강남군 인민병원 등을 둘러보니 탁아소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적극 협조로 하루 빨리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자료: <http://www.newsis.com/> (뉴시스, "카리타스, 천주교 5천만원으로 북에 밀가루 100톤" 2011. 6. 29)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5.9)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0. 9.27 공포·시행)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2011년 5.10~5.29까지 입법예고함.
- 동법 시행규칙은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 및 보고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 신변안전 정보의 통지는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현지 기업과 국민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함.
- 신변안전 정보의 보고는 북한 당국에 의한 우리 국민의 체포·구금·억류 및 우리 국민과 관련한 범죄 발생 시 재단으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게 하며,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범죄사실을 신속하게 고발 또는 신고하도록 한 것임.

☐ 민관합동협의단의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문제 협의 제의와 북측의 제의

(통일부, 7.8, 7.12)

-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에 관한 제의를 담은 통지문을 7월 8일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송부함.
- 7월 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제시하는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가질 것을 제의
- 이에 대해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7월 11일 “7.13 금강산에서 협의하자”고 공식 입장을 전달함.
- 이에 따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 5명, 현대아산과 금강산 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 등 총 14명(행정지원 인원 4명 포함)이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북측에 통보함.

□ 금강산관광사업 재산문제 협의

(통일부, 7.13)

- 7월 13일 민관합동협의단은 북측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전체협의 4회, 당국 간 협의 1회 등 총 5회 협의를 진행하였음.
- 북측은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재산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특구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함.
- 우리측은, 북측의 특구법이 우리측의 사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존의 남북사업자간 계약,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므로,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아울러, 몰수·동결, 독점권 취소 등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북한, 금강산 부동산 처분을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일방 통보

(통일부, 7. 29)

- 북한은 7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우리측 기업들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음.
- 북측의 대정부 통지문 주요 내용
 - 남측 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이미 천명한대로 7월 29일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
- 우리측 기업에 대한 북측 통지문의 주요 내용
 -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해야 함.
 - 입회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정리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 기금지원 의결

(통일부, 7. 27)

- 정부는 지난 7.18~25일 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 청소년교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주요 내용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은 통일준비 차원에서 다각적인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청소년 교류의 장을 마련함.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점을 조성함.
 - 당면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미래 현장학습 공간을 제공함.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의 소요경비 총 521억 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임.

□ 정부, 대북 밀가루 지원 승인

(연합뉴스, 7.25)

-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해 온 민간단체들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함.
 - 통일부는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가 신청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밀가루 지원과 이를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
- 이와 관련하여 민간지원단체들은 지원계획을 발표함.
 - 민화협은 26일 밀가루 300 톤 등을 사리원시 탁아소, 유치원, 소아병원에 지원할 예정
 - 천주교는 28일 밀가루 100 톤 등을 황해북도 인민병원 등에 지원할 예정
-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고 그 과정에서 밀가루와 같은 전용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해왔다”며 “지난주 민간단체들이 북측과 협의해 지원 대상, 분배 계획서, 수혜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내왔다”고 설명함.

- 통일부 관계자는 또 “다른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임.

☐ 정부, 밀가루 이어 대북 장비지원도 승인

(연합뉴스, 8. 11)

- 통일부는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6월 중순 제출한 ‘이동식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기’ 2대의 대북반출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태 등이 우리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물자와는 다른) 별도의 반출 기준을 적용했다”며 “말라리아 장비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판단과 기생충학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일 개성을 통해 해당 장비를 북한에 전달.

☐ 민화협과 카리타스, 대북 밀가루 지원분 전달

(연합뉴스, 7.26, 8.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7월 26일 북한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북한에 밀가루 300 톤(1억8천만 원 상당)을 전달함.
 - 김기진 한국JTS 공동대표, 이운식 민화협 사무처장 등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방북대표단 6명은 밀가루를 실은 25 톤 트럭 12대를 이끌고 육로를 통해 개성 봉동역에 도착하여 북측에 밀가루를 인도함.
 - 이 밀가루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내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병원 등지의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분배될 예정임.
- 한편 8월 2일에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준비한 밀가루 300 톤이 북측에 제공되었음.
 - 이 밀가루는 굿네이버스와 남북평화재단 함께 나누는 세상이 마련했으며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전달될 예정임.
- 한국 가톨릭교회의 대북지원단체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도 7월 28일 북한 황해북도 강남군에 지원하는 밀가루 100 톤을 북측에 전달했음.

- 이 밀가루는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마련된 것으로, 황해북도 강남군의 인민병원과 탁아소에 전달될 예정임.

☐ 대한적십자사, 대북 수해지원 제의

(대한적십자사, 8.4)

- 대한적십자사는 7월말의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와 관련하여, 8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함.
- 지원물자는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 원 상당의 물품임.
-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1.7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뒤에서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중앙긴급구호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중앙긴급구호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중앙긴급구호자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룩셈부르크 33
17차 '11.1~7	-	4,548	-	중앙긴급구호자금 500, 스위스 397, 스웨덴 65, 프랑스 39, 이탈리아 34
총 계	-	183,037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1)

표 2. 2011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7.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독일 카리타스(DCV)	독일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Concern Worldwide	스웨덴	1,083,256	취약자 건강 개선
FAO	스웨덴	149,016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CERF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CERF	4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CERF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CERF 11-FAP-022)
		소계 2,089,751	
국제적십자연맹	노르웨이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PMU-Interlife	스웨덴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e Urgence	프랑스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스웨덴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소계 816,112	
Save the Children	스웨덴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스위스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청	스위스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TGH	프랑스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UN 및 NGO	ECHO	14,306,152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
UNICEF	CER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이탈리아	343,407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스웨덴	2,166,512	취약계층 건강 개선
	CER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소계 4,123,652	
UNPF	CER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FP	스위스	537,634	식량지원
	CERF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노르웨이	894,454	식량지원(PRK-11/0002)
	CERF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아일랜드	356,125	생명 구출 및 고통경감(WFP DPRK EMOP)
	스웨덴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룩셈부르크	357,654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14,145,382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HO	CERF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이탈리아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CERF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소계 1,161,694	
합 계		45,480,346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기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1)

표 3. 2011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7.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스웨덴	FAO	149,016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CERF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CERF	FAO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 (CERF 11-FAP-022)
	CERF	FAO	4,0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소계 2,089,751	
식량	프랑스	TGH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CERF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스위스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스웨덴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스위스	WFP	537,634	식량지원
	프랑스	Premiere Urgenc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스웨덴	WFP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CERF	WFP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노르웨이	WFP	894,454	식량지원(PRK-11/0002)
	룩셈부르크	WFP	357,654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아일랜드	WFP	356,125	생명 구출 및 교통경감(WFP DPRK EMOP)
	ECHO	UN/NGO	14,306,152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
			소계 32,783,108	
보건	이탈리아	UNICEF	343,407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CERF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CERF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스웨덴	UNICEF	2,166,512	취약계층 건강 개선
	이탈리아	WHO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스웨덴	Premiere Urgence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CERF	UNICE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CERF	WHO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소계 6,054,149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지뢰제거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미분류	독일	독일 카리타스(DCV)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스웨덴	Concern Worldwide	1,083,256	취약자 건강개선
	스웨덴	Save the Children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소계 2,961,263	
합 계			45,480,346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기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1)

표 4. 2011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7.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FAO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 (CERF 11-FAP-022)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HO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UNICE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WFP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14,983,275	
유럽연합	ECHO	14,306,152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
프랑스	Premier Urgence Triangl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소계 394,218	
독일	독일 카리타스 (DCV)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아일랜드	WFP	356,125	생명 구출 및 고통경감(WFP DPRK EMOP)
이탈리아	UNICEF	343,409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WHO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소계 625,097	
룩셈부르크	WFP	357,654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자연맹사업(PRK-11/0001)
	WFP	894,454	식량지원(PRK-11/0002)
스웨덴	FAO	149,016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 Urgence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UNICEF	2,166,512	취약계층 건강 개선
	Concern Worldwide	1,083,256	취약자 건강 개선
	WFP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Save the Children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소계 7,363,017	
스위스	WFP	537,634	식량지원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소계 3,968,279	
합 계		45,480,346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11)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 IFRC, “대북 식량 지원 방법 바꾼다”

- 국제적십자사(IFRC)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북한의 식량 자급을 유도하는 ‘식량안보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식량 안보 사업의 하나로 올해 초부터 함경남도 신성리 등 북한 내 농촌마을 6곳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 종류의 농기계들을 지원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아울러 “북한에 쌀 도정기와 젓소 착유기, 기름 제조기, 쌀 국수 제조기 등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농촌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다양화를 위해 온실을 설치해주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 사업이 북한 내 식량 생산의 양적, 질적 개선을 이뤘다”고 전함.
- 이밖에도 “지난 3월 30일부터 ‘나무심기 사업’에 나서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북한 내 산간지방 30여 곳에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아카시아와 잣나무 등 묘목 100만 그루 이상을 심었다”고 언급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IFRC, “대북 식량 지원 방법 바꾼다””, 2011.4.23)

☐ UNICEF,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200만 달러였던 대북지원 사업 예산을 2,040만 달러로 늘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UNICEF는 최근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를 새로 펴내고 올해 대북사업에 2,040만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70% 증가한 규모임.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지난 달 북한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뒤 식량지원을 권고하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며, 지원대상도 440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증가함.
- UNICEF는 5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8만 8,400명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지원 사업에 570만 달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공 등 보건 분야에 520만 달러, 상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위생분야에 782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UNICEF는 지금껏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받은 50만 달러가 모금액의 전부로, 예산의 2%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밝힘.

자료: <http://www.mk.co.kr/> (매일경제, "WFP,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 2011.4.29)

□ WFP, “북한 취약계층 350만 명에게 긴급 식량지원”

- 세계식량계획(WFP)은 29일 북한에서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350만 명에 대해 긴급 식량지원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힘. 아울러 WFP는 1년에 걸친 이번 식량지원 계획에 2억 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WFP는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식량이 여성과 아동 등 꼭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힘.
- WFP가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는 모니터링 조건에 따르면, △WFP 직원이 매달 400곳 이상을 방문 점검할 예정이며 △방문 24시간 전에 대상지를 통보하고,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직원의 20%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알려짐.

자료: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WFP, “북한 취약계층 350만명에게 긴급 식량지원”", 2011.5.1)

□ UN, “대북사업에 1천만 달러 긴급지원”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약 1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25일 보도함.
- 방송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이 998만 달러(한화 109억여 원)를 북한 관련 사업에 추가했으며, 이 중 720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사업에 배정됐다고 전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주민 영양지원 사업에는 약 110만 달러, 식량농업 기구(FAO)의 구제역 대응 사업에는 89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의 어머니와 어린이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38만 달러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UN, 대북사업에 1천만달러 긴급지원", 2011.5.25)

□ WHO, “대북 의료·영양지원 사업 곧 시작”

-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엔의 긴급 자금을 받아 곧 북한에서 긴급 의료 및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HO는 최근 유엔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부터 약 38만 달러의 긴급대응 지원금을 지원받았음.
- WHO는 북한의 산모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보내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임. 아울러 만성적인 중증 영양실조를 겪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등에 대한 식습관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 WHO는 방송을 통해 “사업은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이 사업의 시작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HO, 대북 의료·영양지원 사업 곧 시작", 2011.5.28)

□ UNICEF, “대북 식량 영양사업에 110만 달러 투입”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유엔으로부터 지원받은 110만 달러의 대북지원 예산을 취약계층의 긴급 식량과 영양지원에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함. UNICEF는 31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받은 미화 110여만 달러로 북한에서 긴급 영양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아울러 “어린이와 산모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량영양 보충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만성적인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긴급 지원할 것이다”고 언급함.
- 아울러 이번 예산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유치원과 병원 내 상하수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강청결제 등 의약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
- UNICEF는 “이번 기금을 식량과 영양 분야에 쓰기로 한 것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UNICEF, “대북 식량 영양사업에 110만달러 투입”", 2011.6.1)

□ IFRC, “북 수해 방지에 최선”

- 국제적십자사(IFRC)는 장마철을 맞아 북한 내 수해방지 활동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함. IFRC는 27일 “북한의 장마철을 대개 7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로 보고 홍수에 대비해 북한 내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와 함께 모의훈련과 현장 점검 등 방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아울러 “수해방지를 위해 현지 모의 훈련과 감시 등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 연습’을 하고 있으며, 북한 내 각 시·도에 ‘재난대비 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차원에서의 대비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IFRC는 북한 내 홍수와 진흙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함경남도, 평안 남북도 등의 마을에 댐, 저수지, 제방, 방조문, 배수로, 우물 등의 구조물 취약 지역에 방재시설을 세웠으며, 홍수를 대비해 ‘긴급사태 대비계획’도 지원하기로 함. 아울러 장마철에 대비해 북한 전역의 여러 창고에 간단한 취사도구, 식수, 의약품이 포함된 구호장비들을 비치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IFRC, “북 수해 방지에 최선””, 2011.6.28)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미 NGO, 북한에 비료 500톤 지원 계획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가 북한에 비료 500톤을 지원하기로 함. 사마리탄스 퍼스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1일 “북한에 비료 500톤을 배편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그는 또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을 돕기 위해 평안북도에 농업용 비닐 6천 묶음 등 농사를 위한 자재도 이미 지원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 민간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재촉함.
- 미국의 ‘사마리탄스 퍼스’외에도 스웨덴의 민간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가 씨감자배양법을 전수하고, 아일랜드의 민간단체 컨선(Concern Worldwide)이 보존농업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유럽의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미 NGO, "북한에 비료 500톤 지원 계획"", 2011.6.2)

□ 북·중, 황금평 우선개발

- 북한은 6일 북·중 친선강화를 위해 황금평·위화도특구를 추진하되, 황금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움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통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온다”며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은 황금평지구부터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이 각각 8일, 9일에 열림. 아울러 두 착공식에 북측에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만건 평안북도 책임비서, 림경만 나선시 책임비서 등이, 중국측에서는 천더밍 상무부장과 왕민 랴오닝성 당서기, 쑨정차이 지린성 당서기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 정령에서는 특구 개발 배경에 관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황금평·위화도 특구가 중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치임을 밝히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함.
- 최근 공개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황금평 특구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를 축조하고 황금평 특구 안에 그물 형식의 도로망을 조성하며, 황금평과 중국 단둥신구를 잇는 2개의 출입도로도 건설될 예정임.
- 그러나 위화도 지역은 지질문제 등으로 개발 위험도가 높아 개발 타당성에 대해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추가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황금평 우선개발... 이르면 내일 착공", 2011.6.6)

□ 미 ‘대북식량지원 금지법’ 1차관문 통과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에 포함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 법안이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의 1차관문을 통과함.
 -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해짐. 한 소식통은 “미국이 현재 검토하는 식량 지원은 2009년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50만 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과는 상관없지만 향후 대북지원 논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로이스 의원은 법안을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협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하면서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 식량은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의회 소식통은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고,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함.
- 자료: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美 ‘대북식량지원 금지법’ 1차관문 통과”, 2011.6.17)

□ 몽골, 북한과 경험 희망 “항구 이용·농업 협력”

- 몽골이 북한의 항구를 자국 광물자원의 수출항으로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수크 바타르 바트볼드 몽골 총리가 밝힘. 이는 북한·러시아에 막혀 동해 쪽 출구가 없는 몽골에게 북한이 해상 관문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에 따른 것임.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트볼드 몽골 총리는 17일 베이징에서의 회견을 통해 “몽골과 북한이 우호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동해) 해양과 항구 이용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총리는 내륙국인 몽골로서 광산 프로젝트를 위해 해양진출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이같이 말하고, 북한에 육류를 비롯한 식량을 제공할 수 있고 농업부문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함.

자료: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몽골, 북한과 경협 희망 "항구 이용·농업 협력"", 2011.6.18)

□ 영 NGO 옥스팜, 북한에 농자재 지원

- 영국의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북한 협동농장에 농기구와 비닐박막 등 농자재 지원에 나섬.
- 옥스팜 홍콩지부는 24일 "최근 북한의 5개 협동농장에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농기계와 비닐 박막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함.
- 옥스팜 홍콩지부는 "지난 5월 말에 평양에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측 협력단체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KCPIT)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사업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함. 아울러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홍수 피해를 입은 황해 북도의 두 개의 협동농장에 옥수수 320톤을 지원했다"고 전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NGO 옥스팜, "북한에 농자재 지원"", 2011.6.25)

□ 미 정부, 대북 식량지원 '길 터달라' 요청

- 미국 국무부가 미 의회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상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국무부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담긴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함. 또한 현재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하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함.
- 국무부는 지난 5월 로버트 킹 대북특사 일행을 북한에 파견해 식량상태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벌인 뒤에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 그러나 이번 협조 요청은 국무부가 유보적인 공식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대북 식량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되고 있음.
- 한편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지원 발표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자료: <http://www.hani.co.kr/> (한겨레, "미 정부, 대북 식량지원 '길 터달라' 요청", 2011.7.6)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6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8							
9							
10							
11							
12							
2011.1-6	1	17,345	13,542	274	22,080	7,066	60,308
2010. 1	0	806	4,420	46	97	932	6,301
2	332	79	806	88	25	151	1,481
3	17	1,199	2,350	23	2,881	47	6,517
4	4	1,704	1,390	63	4,120	8,024	15,305
5	0	4,205	1,902	93	4,184	2,831	13,215
6	0	2,416	1,154	21	4,718	1,576	9,885
7	0	3,396	2,459	0	1,219	0	7,074
8	0	2,541	2,088	0	953	33	5,615
9	0	1,488	4,922	35	4,103	808	11,423
10	0	1,314	5,270	39	5,715	496	12,834
11	7	2,459	3,656	0	6,343	86	12,551
12	0	1,902	5,002	78	5,836	150	12,968
2010.1-12	360	23,509	35,439	468	40,241	15,134	115,16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6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8							
9							
10							
11							
12							
2011.1-6	1	56,974	25,194	423	55,898	10,683	149,173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0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1년 6월 북한은 중국에서 총 31,335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전월에 비해 수입량이 37.7%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6.8% 증가하였음.
 - 5월과 비교할 때 다른 곡물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5월까지 수입량이 미미하였던 콩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 6월의 곡물 수입액은 1,451만 달러로 5월에 비해 19.5% 감소하였음. 전월에 비해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높아졌으나 쌀의 수입 단가는 낮아졌음. 밀가루와 두류의 수입 단가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2011년 상반기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149,17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41,395톤과 비교할 때 5.5% 증가하였음.
 - 2011년 1~6월 북한이 곡물 수입에 지출한 비용은 6,031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5,270만 달러에 비해서는 14.4% 증가하였음.
 - 2011년 1~6월 북한이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38.2%, 쌀 16.9%, 밀가루 37.5%, 콩 7.2%임. 2010년의 경우 각각 28.8%, 19.3%, 34.2%, 16.4%였음.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옥수수와 밀가루의 수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쌀과 콩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2011년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0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2달러에 비해 8.6% 상승하였음.
 -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 단가는 쌀 538달러, 옥수수 304달러, 밀가루 395달러, 콩 661달러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모든 곡종의 가격이 상승하였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쌀 가격은 22.0% 상승하였으며 옥수수, 밀가루, 콩 가격은 각각 19.2%, 19.2%, 13.0% 상승하였음.
- 2011년 6월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503달러임.¹⁾
 - 중립종 쌀은 전년 동월에 비해 17.9% 상승하였으며 장립종 쌀은 11.5% 상승하였음.
 - 2011년 6월 미국 캔서스상품거래소(KCBOT)의 밀 선물가격은 톤당 268달러(hard red winter 2등급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7% 상승하였으며

1) 성명환. 2011. 6. “세계 곡물 가격 동향.” 『세계농업』. M45-1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월에 비해서는 19.0% 하락하였음.

- 2011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0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79.3%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8.5% 하락하였음.
- 2011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89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39.3% 상승하였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1.4% 하락하였음.
- 향후 금년도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생산지의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6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8					
9					
10					
11					
12					
2011.1-6	39,746	4	1	131	39,882
2010. 1	5,492	0	0	0	5,492
2	7,772	0	0	0	7,772
3	23	0	0	4	27
4	0	0	0	7	7
5	5,105	0	0	11	5,116
6	2,122	0	0	5	2,127
7	17,436	0	0	0	17,436
8	2,221	0	0	1	2,222
9	331	0	0	3	334
10	3	0	0	0	3
11	288	0	0	0	288
12	398	0	0	0	398
2010.1-12	41,191	0	0	31	41,191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6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8					
9					
10					
11					
12					
2011.1-6	190,032	40	2	322	190,396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8	169
4	0	0	0	12	12
5	41,280	0	0	19	41,299
6	17,599	0	0	1	17,600
7	160,553	0	0	0	160,553
8	19,771	0	0	1	19,772
9	3,105	0	0	5	3,110
10	5	0	0	0	5
11	961	0	0	0	961
12	3,305	0	0	0	3,305
2010.1-12	287,248	0	0	46	287,29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6월 중국으로부터 총 76,064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함으로써 2월 15,064톤, 3월 10,151톤, 4월 21,755톤, 5월 67,067톤에 이어 지속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있음.
- 6월에 수입한 비료의 80%는 유안이며 요소의 비중은 20%임.
- 2011년 상반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190,396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3,988만 달러에 달함.
-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은 99,588톤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2,054만 달러였으므로 수입량과 수입액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음.
- 금년 상반기에 수입한 비료는 유안(Ammonium sulphate) 164,456톤, 요소(Urea) 25,577톤으로 주로 가격이 저렴한 유안 위주로 수입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유안 59,011톤, 요소 40,531톤을 수입하였음.
- 요소는 유안에 비해 성분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증수 효과는 훨씬 큼. 비료의 성분 함량을 고려할 경우 2011년 상반기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성분량은 46,3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000톤에 비해 50% 가량 증가하였음.
- 2010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287,294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성분량 기준으로 60,000여 톤에 해당함.
- 2011년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안 비료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188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1달러와 비교하면 50% 이상 상승하였음.
- 2011년 1~6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Urea)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34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8달러와 비교하면 5.5% 상승하였음.
- 2010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중량 톤당 수입 단가는 요소 325달러, 유안 110달러였음.
- 금년 들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의 도입 단가가 2월에는 600달러를 넘어섰으나 4월부터 340달러 대로 떨어짐.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농업생산의 기본토대로서의 토지의 지위와 경제기술적 특성¹⁾

김 정 철

- 당의 농업방침을 실현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경리부문에서 토지를 높은 과학기술적 기초 위에서 더 잘 이용하는 것과 함께 면적을 부단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함.
- 농업생산의 기본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임. 일반적으로 토지는 농업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됨. 농업생산의 기본토대로서의 토지는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부침땅을 말함. 부침땅에는 논, 밭, 과수원, 뽕밭, 나무모 밭, 인공풀밭 등이 있음.
- 농업생산의 기본토대로서의 토지는 일련의 경제기술적 특성을 지님. 첫째, 토지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진 생산수단임. 따라서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부침땅은 양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음.
 - 날로 늘어나는 식량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늘리고 부침땅을 적극 개량하는 한편 대자연 개조사업을 통해 부침땅 면적을 늘려나가야 함.
- 둘째, 토지는 자연산물로서 이용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외부적 요인, 특히 자연 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음.
 - 온실효과가스 방출량 증대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과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농경지가 사막화되어가고 있으며 해일과 폭우, 무더기비에 의하여 토지의 겉면 흩층이 씻겨 토양의 질적상태가 나빠지고 많은 면적의 토지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되는 등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 이를 막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

1) 경제연구, 제152호 제2호, 2011.

- 셋째, 토지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면 비옥도와 생산성이 높아짐.
 - 토양의 비옥도란 식물이 자라는 전 기간에 물과 영양물질을 끊임없이 보장할 수 있는 토양의 능력을 말함. 즉 지력으로써, 형성기원에 따라 자연적비옥도와 인공적 비옥도로 나뉨.
 - 자연적비옥도는 토양형성의 오랜 자연적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나, 인공적비옥도는 밭갈이, 거름주기, 물대기와 물빼기, 토지개량 등 농업기술적대책을 적용한 결과에 이루어지는 것임.
 - 농작물은 토지의 자연적비옥도와 인공적비옥도의 통일적작용에 의하여 성장발육 하며 그의 질적상태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음. 농업생산의 발전에 따라 인공적비옥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토지정리사업이 추진되어 전국의 토지가 대규모의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전변하였으며, 많은 새땅을 얻어냈으며, 8,800정보의 대계도간석지개간을 비롯하여 수만 정보의 간석지가 농토로 전변되어 부침땅 면적이 늘어났음. 이는 앞으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일조할 것임.

유기농업의 발전목표설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²⁾

김 응 설

-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 있어 농업은 매우 중요함. 식량문제, 먹는문제부터 풀어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임.
- 유기농업은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후대에게 훌륭한 농업생태환경조건을 물려줄 수 있는 농업발전 전략임.
- 유기농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전목표를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설정해야 함.
 - 첫째,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 둘째, 나라의 농업생산의 현실적조건과 농업발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유기농업의 발전목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구체적 형편과 매개 농장들과 해당 지역들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유기농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종자, 영농자재보장조건, 자금, 영농설비, 노동력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세밀하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워야 함.
 - 셋째,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설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 제도의 성격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수준, 교육문화수준, 국제적환경과 대외무역, 자연부원의 상태, 해당 시기의 경제발전수준을 잘 타산해야 함.
 - 넷째, 농업생산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세워야 함.
- 유기농업과학기술발전목표에는 일정한 기간에 도달해야 할 나라의 유기농업발전 수준, 유기농업과학자, 기술자양성, 유기농업교육의 발전, 유기농업기술의 연구도입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7권 제1호, 2011.

- 현시기 농업발전을 이루는데서 기본은 농업과학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임. 농업 과학기술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최신농업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업 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음.
- 유기농업의 발전목표를 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목표로 분류할 수 있음.
 - 유기농업의 장기목표에는 나라의 전반적인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유기농업과학기술의 연구와 도입, 인재양성, 농업내 부문들 사이의 유기농업균형조절, 유기농업발전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기본건설, 관리기구체계의 개선완성 등이 포함됨.
 - 유기농업의 중기, 단기목표는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유기농업의 발전목표는 또한 대상에 따라 전국가적, 해당 지역, 농장범위의 목표로 분류할 수 있음.
 - 전국가적인 유기농업의 발전목표는 해당지역, 농장목표의 실현에 의하여 달성됨.
- 유기농업생산의 발전목표설정에서는 정보당 수확고지표, 유기농업재배면적지표, 일인당 생산액지표, 유기농산물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E02-2011-02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제2호

찍 은 날	2011. 7	펴낸날	2011. 7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